

투명인간

The Invisible Man

H.G. 웰스 (H.G. Wells)

189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8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Claude Opus 검수

책 정보

원전

H.G. 웰스 (H.G. Wells), "The Invisible Man" (C. Arthur Pearson 1897)

저자

H.G. 웰스 (H.G. Wells) · 1866-1946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5230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검수

Claude Opus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8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원작의 분위기와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
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I장

낮선 이의 등장

그 낮선 이는 2월 초, 살을 에는 듯한 바람과 휘몰아치는 눈발 속에 어느 겨울날 나타났다. 그해의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그는 브램블허스트 기차역에서부터 언덕을 넘어 걸어왔으며, 두툼한 장갑을 낀 손에는 작은 검은색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싸매고 있었고, 부드러운 펠트 모자의 챙이 반짝이는 코끝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었다. 어깨와 가슴에는 눈이 쌓였고, 그가 굽어진 짐 위에도 하얀 눈이 마루처럼 얹혀 있었다.

그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코치 앤드 호시스(여관)로 들어와 여행 가방을 내던졌다. "불 좀 피워 주시오!" 그가 외쳤다. "제발 인정을 베풀어서라도 말이오! 방 하나와 불이 필요하단 말이오!" 그는 술집 안에서 발을 구르며 몸에 쌓인 눈을 털어냈고, 홀 부인을 따라 손님용 거실로 들어가 숙박 조건을 흥정했다. 인사는 그게 전부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금화 두 닢을 던져 놓고는 그렇게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

홀 부인은 불을 지핀 뒤, 손수 식사를 준비하러 가며 그를 그곳에 홀로 두었다. 겨울철에 아이핑을 찾아오는 손님은 그 자체로도 보기 드문 행운이었다. 하물며 흥정을 시도하지 않는 손님이라니, 그녀는 이 뜻밖의 행운에 걸맞은 대접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베이컨이 맛있게 익기 시작할 무렵, 홀 부인은 굵든 하녀 밀리에게 날카로운 독설을 몇 마디 내뱉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했다. 그러고는 식탁보와 접시, 유리잔을 들고 거실로 가서 아주 화려하고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벽난로의 불길에 활기차게 타오르고 있었음에도, 손님이 여전히 모자와 코트를 입은 채 그녀를 등지고 서 있는 모습에 홀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는 창밖 마당에 내리는 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장갑을 낀 두 손은 등 뒤로 맞잡은 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홀 부인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녹아내리는 눈송이가 카펫 위로 푹푹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손님, 모자와 코트를 받아 가도 될까요? 부엌에서 잘 말려 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오.”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방금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깨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계속 쓰고 있는 게 좋겠소." 그가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그가 옆쪽에 가리개가 달린 커다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또한 코트 깃 위로 덩수룩하게 자란 구레나룻이 그의 뺨과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손님.” 그녀가 말했다. “손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죠. 조금 있으면 방이 더 따뜻해질 겁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다시 그녀를 외면했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때를 놓쳤음을 직감한 홀 부인은 남은 식탁 도구들을 탁탁 소리가 나게 서둘러 내려놓고는 방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서 있었다. 구부정한 뒷모습에 깃을 세운 옷차림,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모자챙을 깊게 눌러쓴 탓에 얼굴과 귀는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홀 부인은 달걀과 베이컨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외침에 가까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점심 준비되었습니다, 손님.”

“고맙소.” 그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문을 닫을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내 몸을 휙 돌리더니,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탁자 쪽으로 다가갔다.

홀 부인이 주방으로 가려고 바 뒤편으로 들어갔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치르르, 치르르, 치르르. 그릇 안에서 숟가락을 빠르게 휘젓는 소리였다.

“저 계집애가 정말!” 홀 부인이 내뱉었다. “아이고, 깜빡했네. 저 애가 저러고 있으니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다니!”

홀 부인은 스스로 겨자 소스를 다 섞으면서, 일 처리가 지나치게 느린 밀리를 향해 몇 마디 날 선 말을 내뱉었다. 홀 부인은 이미 햄과 달걀 요리를 만들고 식탁까지 차리는 등 모든 일을 마친 상태였다. 반면 밀리는, 참으로 도와주기는커녕 겨자 소스를 만드는 일을 늦추는 데만 일조했을 뿐이었다. 손님은 새로 오셨는데 머무르기까지 하겠다니! 홀 부인은 겨자 소스를 용기에 담아 금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찻쟁반 위에 위엄 있게 올려놓고는 응접실로 가져갔다.

홀 부인이 문을 두드리고 곧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손님이 급히 움직이는 바람에, 그녀는 흰 물체가 탁자 뒤로 사라지는 모습만을 언뜻 보았을 뿐이었다. 손님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줍고 있는 모양이었다. 홀 부인은 탁자 위에 머스터드 그릇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러다 문득 손님이 외투와 모자를 벗어 화로 앞 의자에 걸쳐 두었음을 알아차렸다. 젖은 부츠 한 켤레는 강철로 된 난로 가리개에 닿아 녹을 일으킬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단호한 태도로 그 물건들에게 다가갔다.

“이제 이것들을 말려도 되겠지요?”

그녀가 말했다.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였다.

“모자는 그대로 두시오.”

방문객이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몸을 돌렸을 때, 그는 이미 고개를 들고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입을 벌린 채 한동안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흰색 냅킨을 얼굴 하단에 두르고 있었다. 그 때문에 입과 턱이 완전히 가려져 목소리마저 웅얼거리는 듯 먹먹하게 들렸다. 하지만 홀 부인을 놀라게 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푸른 안경 위로 드러난 이마 전체가 흰 봉대로 감겨 있었고, 귀마저 또 다른 봉대로 덮여 있었다. 분홍빛이 도는 뾰족한 코를 제외하면 얼굴의 그 어느 부분도 드러나지 않았다. 코는 처음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밝고 분홍빛이 돌며 번들거렸다. 그는 검은색 리넨 안감이 덧대어진 것이 높은 진갈색 벨벳 재킷을 입고, 그 깃을 목까지 바짝 세워 올렸다. 엇갈려 감긴 봉대 사이와 아래쪽으로 빠져나온 굵은 검은 머리카락은 기묘한 꼬리나 뿔처럼 뾰죽뾰죽 솟아올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봉대로 칭칭 감긴 그 모습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에, 홀 부인은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냅킨을 치우지 않았다. 홀 부인이 보기에 그는 갈색 장갑을 낀 손으로 냅킨을 계속 쥐고 있었으며, 속을 알 수 없는 푸른 안경 너머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자는 그대로 두시오." 흰 천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매우 또렷했다.

그녀는 충격으로 떨리던 신경을 겨우 진정시켰다. 그러고는 모자를 다시 벽난로 옆 의자 위에 올려두었다. "몰랐어요, 손님." 그녀가 입을 뗐다. "그게 그러니까……." 그녀는 당황한 듯 말을 멈추었다.

“고맙군요.” 그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그녀를 한 번 보고, 문 쪽을 보더니,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손님, 옷은 곧바로 잘 말려 놓겠습니다."

홀 부인이 말하며 그의 옷을 챙겨 방을 나갔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하얀 천으로 칭칭 감긴 그의 머리와 푸른 고글을 다시 한번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 앞에는 여전히 냅킨이 가려져 있었다. 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의 몸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아함이 역력히 드러났다.

"세상에, 이런 일은 정말이지……."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원, 참!"

그녀는 아주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어, 밀리가 이번엔 또 무엇을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물어볼 겨를조차 없었다.

방문객은 자리에 앉아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들었다. 그는 냅킨을 치우기 전, 의아한 눈빛으로 창밖을 한 번 살펴보고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다. 음식을 한 입 머금은 그는 의심스러운 듯 창밖을 살폈고, 다시 한 입을 먹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냅킨을 쥔 채 방을 가로질러 가서, 아래쪽 유리창을 가리고 있는 흰색 머슬린 천의 윗부분까지 블라인드를 끌어내렸다. 그러자 방 안은 어스름하게 어두워졌다. 일을 마친 그는 한결 편안해진 태도로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식사를 계속했다.

“가여운 사람, 사고를 당했거나 수술이라도 받은 모양이야.” 홀 부인이 말했다. “그 붕대 뭉치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녀는 석탄을 더 집어넣고는 빨래 건조대를 펼쳐 그 위에 여행자의 코트를 걸쳤다. “게다가 그 고글 말이예요! 세상에,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슨 잠수부 헬멧처럼 보였다니까요!” 그녀는 머플러를 건조대 모서리에 걸어 두었다. “입에는 내내 손수건을 대고 있고, 그 너머로 말을 한 다니까요! ... 어쩌면 입 주변도 다쳤던 걸지도 몰라요. 아마도요.”

그녀는 무언가 갑자기 떠오른 듯 몸을 돌렸다. "세상에나, 이런!" 그녀는 엉뚱한 소리를 내뱉으며 말했다. "밀리, 너 아직도 그 감자 안 삶았니?"

홀 부인이 낫선 이의 점심 식사를 치우러 갔을 때, 그가 사고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입 주변도 베이거나 흉하게 일그러졌으리라던 그녀의 짐작은 사실로 굳어졌다.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그녀가 방에 머무는 내내 입에 물부리를 갖다 대면서도 얼굴 하단을 감싼 실크 머플러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머플러를 풀지 않은 것은 단순히 잊어버려서가 아니었다. 담배가 다 타들어 가는 것을 그가 흘끗 쳐다보는 모습을 그녀가 보았기 때문이다. 식사와 음료를 마치고 몸이 기분 좋게 따뜻해진 그는, 창가 블라인드를 등진 채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는 이전보다 덜 투명스럽게, 한결 누그러진 말투로 입을 열었다. 난롯불 빛이 반사되자 그의 커다란 안경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붉은 생기가 감돌았다.

“브램블허스트 역에 맡겨둔 짐이 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짐을 보낼 수 있을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의 설명을 들은 그는 봉대를 감은 머리를 아주 정중하게 숙여 보였다. “내일 말씀입니까?” 그가 다시 물었다. “더 빨리 배달할 방법은 없나요?” 그녀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는 눈에 띄게 실망한 기색이었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는 걸까? 마차를 몰고 올 만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

홀 부인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의 질문에 대답하며 대화를 이어 나갔다. 마차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녀는 “언덕 옆길이 꽤 가파르답니다, 손님”이라고 답했다. 그러더니 대화의 물꼬를 잡듯 말을 덧붙였다. “일 년도 더 전이었죠, 거기서 마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신사 한 분이랑 마부까지 죽었답니다. 사고라는 게 참 무섭지요, 손님? 순식간에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방문객은 그렇게 쉽게 입을 열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속을 알 수 없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조용히 살피며, 목도리에 가려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요.”

“하지만 상처가 낫는 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제 누이 아들 톰만 해도 그렇습니다. 건초밭에서 일하다 낮에 팔을 베었는데, 세상에나! 석 달 동안이나 봉대를 감고 지내야 했대니까요. 정말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이제 낮만 봐도 겁이 납니다, 선생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방문객이 말했다.

“한번은 수술이라도 받아야 하나 겁이 날 정도로 상태가 나빴답니다, 손님.”

방문객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입안에서 억지로 삼켜 죽이려는 듯, 짓는 소리 같은 웃음이었다. "정말 그랬단 말입니까?" 그가 말했다.

“그랬습니다, 손님. 저에게는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누이가 어린 자식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제가 그 일을 도맡아야 했으니까요. 감아줘야 할 봉대도 있었고, 다시 풀어야 할 봉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감히 말씀드리자면, 손님—”

“성냥 좀 가져다주시겠습니까?” 방문객이 아주 갑작스럽게 말을 건넸다. “담배 파이프 불이 꺼졌군요.”

홀 부인은 갑작스럽게 말을 멈췄다. 자신이 해준 일을 다 말해주었는데도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 것은 분명 도가 지나친 처사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헐떡이며 그를 노려보다가, 그에게 받은 금화 두 닢을 떠올렸다. 그녀는 성냥을 가지러 갔다.

"고맙소."

그녀가 물건을 내려놓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어깨를 돌려 그녀를 외면한 채 다시 창밖을 응시했다. 도무지 기운이 빠지는 노릇이었다. 수술이나 봉대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분명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하던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쌀쌀맞은 태도에 화가 난 그녀 때문에, 밀리는 그 날 오후 내내 호된 시간을 보냈다.

방문객은 누군가 끼어들 만한 빌미를 손톱만큼도 주지 않은 채, 네시가 될 때까지 거실에 머물렀다. 그동안 그는 대부분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그는 아마도 화롯불 빛에 의해 담배를 피우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모양이다.

한두 번쯤은 귀 기울인 사람이라면 그가 화로의 석탄을 뒤적이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약 5분 동안은 그가 방 안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다시 자리에 앉는지 안락의자가 삐걱거렸다.

제II장

테디 헨프리의 첫인상

네 시가 되어 사방이 제법 어둑해졌다. 홀 부인은 용기를 내어 손님에게 차를 좀 마시겠느냐고 물으러 들어갈 채비를 했다. 그때 시계 수리공인 테디 헨프리가 술집 안으로 들어왔다. "세상에나! 홀 부인," 그가 말했다. "얇은 장화를 신고 다니기엔 날씨가 정말 끔찍하군요!" 밖에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홀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더니, 그가 가방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테디 씨, 마침 잘 오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괜찮다면 거실에 있는 저 낡은 시계 좀 봐주셨으면 해요. 시계가 돌아가긴 하고 종소리도 아주 우렁차게 울리는데, 시침이 자꾸 여섯 시에만 머물러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네요."

그녀는 앞장서서 거실 문으로 다가가, 문을 푹푹 두드리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방문객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벽난로 앞 안락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듯했다. 봉대를 감은 머리는 한쪽으로 힘없이 떨어져 있었다. 방 안의 유일한 빛은 벽난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불빛뿐이었다. 그 불빛은 마치 불길한 철도 신호등처럼 그의 눈을 붉게 비추었으나, 아래로 숙인 얼굴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잔광이 그나마 빛을 보태고 있었다. 방금 막 바 램프에 불을 붙인 터라 눈이 부셨던 탓에,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붉고 어둑하며 불분명하게 보였다.

그런데 찰나의 순간, 눈앞의 남자가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얼굴 하단부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기괴한 입이었다. 봉대를 감은 머리, 괴물처럼 부릅뜬 눈,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진 거대한 하품.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 느낀 감각이었다. 그때 그가 몸을 뒤척이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치켜 들었다. 그녀가 문을 활짝 열자 방 안이 밝아졌고, 그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는 예전에 식탁보를 얼굴에 대고 있던 것처럼 머플러를 얼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본 것이 그저 그림자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생님, 실례지만 이 사람이 시계를 좀 보러 들어와도 괜찮으시겠어요?"

잠시 충격에서 벗어난 그녀가 물었다.

“시계를 보라고요?” 그가 줄음이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손 너머로 중얼거렸다. 그러다 정신이 좀 드는지 다시 말했다. “물론이죠.”

홀 부인이 등불을 가져오려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일어나 기지개를 폈다. 곧 불빛이 비쳤고, 방 안으로 들어선 테디 헨프리 씨는 붕대를 감은 이 인물과 마주쳤다. 그는 당시 무척 당황했다고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낮선 이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헨프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검은 안경이 어찌나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던지, 낮선 이가 마치 바닷가재처럼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한다.

“실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테디 헨프리가 말했다.

“전혀 없습니다.” 낮선 이가 말했다. 그러고는 홀 부인을 향해 몸을 돌리며 덧붙였다. “듣기로는 이 방을 저 혼자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손님, 제 생각에는요." 홀 부인이 말했다. "시계를 봐드리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낮선 이가 말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보통은 혼자 있고 싶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시계를 봐주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테디 헨프리가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자 그가 말했다. "아주 기쁩요." 테디 헨프리는 사과를 하고 물러나려던 참이었으나, 상대의 이런 말에 안심했다. 낮선

이는 벽난로를 등지고 몸을 돌린 뒤 두 손을 등 뒤로 맞잡았다. "그리고 시계 수리가 끝나면," 그가 덧붙였다. "차를 좀 마시고 싶군요. 하지만 반드시 수리가 다 끝난 뒤에야 합니다."

홀 부인은 방을 나가려던 참이었다. 이번에는 테디 헨프리 앞에서 무안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에, 먼저 말을 붙여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때 손님이 브램블허스트에 있는 자신의 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두었느냐고 물었다. 홀 부인은 우체부에게 그 일을 말해두었으며, 내일이면 운반인이 상자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게 정말 가장 빠른 방법입니까?" 그가 물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차가운 어조로,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설명을 좀 해야겠군요." 그가 덧붙였다. "아까는 너무 춥고 지친 나머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손님." 홀 부인이 깊이 감명받은 듯 말했다.

"그리고 제 짐 안에는 여러 가지 장치와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아주 유용한 물건들이네요, 손님." 홀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제 조사를 서둘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몹시 간절합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내가 아이핑에 온 이유는...” 그는 태도를 신중히 가다듬으며 말을 이어갔다.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구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거든요. 게다가 연구와는 별개로, 사고가 하나 있어서—”

“내 그럴 줄 알았지.” 홀 부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당분간은 은둔 생활이 불가피합니다. 제 눈이—가끔 너무 약해지고 통증이 심해져서, 몇 시간씩 어둠 속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거든요. 문을 걸어 잠그고 말입니다. 가끔—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일 때는 아주 작은 방해나 낯선 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정을 미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이지요, 손님.” 홀 부인이 말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여쭙봐도 될까요?”

“제 생각엔 이게 전부입니다.” 낯선 이가 말했다. 그는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비칠 수 있는, 조용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홀 부인은 질문과 동정심을 뒤로 미루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홀 부인이 방을 나간 뒤에도 그는 벽난로 앞에 서서 시계 수리품을 노려보았다. 테디 헨프리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랬다. 헨프리는 시계의 바늘과 판을 떼어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부품까지 전부 꺼내 놓았

다. 그는 최대한 느리고 조용하며,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이어갔다. 램프를 가까이 가져다 댄 덕분에 초록색 전등갓이 그의 손과 시계의 프레임, 톱니바퀴 위로 밝은 빛을 비추었고, 방의 나머지 공간은 어스름한 그림자에 잠겼다. 헨프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색깔이 섞인 잔상들이 어른거렸다. 본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던 헨프리는, 떠나기 전 시간을 좀 더 끌어보려는 생각으로 시계 부품을 다 꺼내 놓았다. 어쩌면 그 틈을 타 낯선 이와 대화라도 나누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낯선 이는 그저 미동도 없이, 완벽하게 침묵을 지키며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지나친 정적이 헨프리의 신경을 자극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든 헨프리가 고개를 들자, 회색빛의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붕대를 감은 머리와 거대한 푸른색 렌즈가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고, 렌즈 앞에는 초록색 점들이 안개처럼 떠다녔다.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여,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며 멈춰 서 있었다. 이윽고 헨프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참으로 불편한 상황이었다! 뭐라도 한마디 건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맘때 치고 날씨가 너무 춥다는 말이라도 꺼내야 할까?

그는 마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첫발을 내딛으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날씨가 좀…….” 그가 입을 뗐다.

“다 끝내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뻗뻗하게 굳은 형체가 물었다. 분명 고통스러운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기색이었다. “그저 시침을 축에 맞춰 끼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일부러 시간을 끌며 나를 속이려는 거죠?”

“물론입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깜빡하는 바람에——” 테디 헨프리는 말을 채 끝내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는 몹시 짜증이 난 채 발걸음을 옮겼다. 녹아내리는 눈을 밟으며 마을 길을 터덜터덜 내려가던 테디 헨프리가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제기랄! 가끔은 사람도 시계라도 좀 맞춰야 하는 법인데 말이야.”

"사람이 당신을 좀 보면 안 됩니까? — 정말 못생겼군!"

"보아하니 그것도 안 되는 모양이지. 경찰에 쫓기는 신세라 한들, 이보다 더 온몸을 칭칭 싸매고 봉대를 감지는 못할 거요."

글리슨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그는 홀을 보았다. 홀은 최근 '코치 앤드 호시스(여관)'에서 그 낯선 손님을 맞은 여관 안주인과 결혼한 사람으로, 이따금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면 아이핑에서 시더브리지 교차로까지 마차를 몰아 주곤 했다. 마침 그곳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와 마주친 참이었다. 마차 모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홀은 시더브리지에서 한 잔 걸치며 한참 머물다 온 것이 분명했다. "여어, 테디! 잘 지내나?" 그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다.

“집에 아주 기묘한 손님이 오셨군요!” 테디가 말했다.

홀이 아주 불임성 있게 마차를 세웠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가 물었다.

“코치 앤드 호시스(여관)에 웬 수상쩍은 손님이 묵고 있다니까요.”
테디가 말했다. “세상에나!”

그는 홀에게 그 기괴한 손님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꼭 변장이라도 한 것 같지 않소? 내 집에 손님이 묵는다면 난 그 사람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을 거요." 헨프리가 말했다. "하지만 여자들이란 낯선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준단 말이지. 여보게 홀, 그 양반은 자네 방을 다 차지해 놓고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있잖나."

"설마 그럴 리가요!" 이해가 굼뜬 홀 씨가 말했다.

"맞아요." 테디가 말했다. "주 단위로 계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일주일 안에는 도저히 내보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내일은 짐도 잔뜩 온다고 하더군요. 홀, 그 짐 상자 안에 돌덩이라도 가득 들어있지 않기만을 바라야죠."

그는 해스팅스에 사는 자신의 고모가 빈 여행 가방을 든 낯선 이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홀에게 늘어놓았다. 그가 하는 말들은 전반적으로 홀의 마음에 어렴풋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랴, 가자, 이놈아." 홀이 (말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군."

테디 헨프리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홀 씨는 상황을 살피는 대신, 돌아오는 길에 아내로부터 시더브리지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홀 씨가 조심스럽게 캐물어도 아내는 투명스럽게 대꾸할 뿐, 핵심을 비껴가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그러나 테디 헨프리가 심어 놓은 의심의 씨앗은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홀 씨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웠다. 홀 씨는 가능한 한 빨리 손님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으며, "당신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라고 말했다.

낮선 이가 밤 9시 반쯤 잠자리에 들자, 홀 씨는 아주 적극적으로 거실로 나갔다. 그는 그 손님이 이곳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듯 아내의 가구들을 매섭게 훑어보았다. 이어 손님이 남겨둔 수학 계산지를 아주 면밀하고도 약간은 경멸 섞인 시선으로 살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홀 씨는 홀 부인에게 다음 날 손님의 짐이 들어오면 아주 꼼꼼히 살펴보라고 일렀다.

"홀,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써요." 홀 부인이 말했다. "나도 내 일에만 신경 쓸 테니까."

낮선 이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달리 기이한 부류의 사람이었기에, 홀 부인은 그에게 더욱 날카롭게 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녀 스스로도 그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밤중, 그녀는 무시무시한 꿈을 꾸며 잠에서 깨어났다. 끝도 없이 긴 목 끝에 거대한 검은 눈을 단, 순무처럼 생긴 커다란 하얀 머리들이 자신을 뒤쫓아오는 꿈이었다. 하지만 분별력 있는 여인이었던 그녀는 공포를 억누르고는, 몸을 뒤척이며 다시 잠을 청했다.

제III장

천 하고도 한 개의 병들

해빙기가 시작되던 2월 29일, 이 기이한 인물은 마치 무(無)의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듯 아이핑 마을에 나타났다. 다음 날,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가운데 그의 짐이 도착했는데, 참으로 범상치 않은 짐들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필요할 법한 트렁크 몇 개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책 상자가 하나 있었다. 크고 두툼한 책들이었는데, 어떤 책들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쓰여 있었다. 게다가 짚으로 채워진 물건들이 담긴 상자와 껌깍, 가방이 열두 개 넘게 더 있었다. 홀이 무심한 호기심에 짚을 슬쩍 잡아당겨 보니 그 안에는 유리병들이 들어 있었다. 모자와 코트, 장갑과 망토로 몸을 꼼꼼 싸맨 이 이방인은, 홀이 짐을 안으로 옮기는 일을 거들기에 앞서 잡담을 나누는 동안, 피어렌사이드의 마차를 맞이하러 참을성 없게 밖으로 나왔다. 그는 홀의 다리 근처에서 한가롭게 냄새를 맡고 있는 피어렌사이드의 개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 상자들 좀 빨리 가져오시오." 그가 말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그는 마치 작은 상자를 붙잡으려는 듯, 수레 뒷부분을 향해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피어렌사이드의 개가 그를 발견하자마자 털을 바짝 세우며 사납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계단을 뛰어 내려가자, 개는 주춤하며 한 번 움찔하더니 곧장 그의 손을 향해 달려들었다. "으악!" 홀이 뒤로 펄쩍 물러나며 소리쳤다. 그는 개라면 질색하는 사람이었다. 피어렌사이드는 "엎드려!"라고 고함치며 채찍을 낚아챘다.

사람들은 개의 이빨이 그 손을 빗나가는 것을 보았다. 발길질 소리가 들렸고, 개가 옆으로 휩 뛰어올라 낮선 이의 다리를 덥석 무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어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피어렌사이드의 채찍 끝이 자기 개에게 닿았고, 당황한 개는 킁킁거리며 마차 바퀴 밑으로 물러났다. 이 모든 소동은 채 30초도 걸리지 않을 만큼 순식간이었다. 아무도 제대로 말을 잊지 못했고, 모두가 소리만 질러댔다. 낮선 이는 찢어진 장갑과 자신의 다리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다리를 살피려는 듯 몸을 굽히는 척했다. 그러고는 곧장 몸을 돌려 여관 계단을 향해 급히 뛰어 올라갔다. 그가 복도를 가로질러 카펫도 깔리지 않은 계단을 지나 자신의 침실로 정신없이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모두의 귀에 들렸다.

“이 짐승 같은 놈!” 피어렌사이드가 채찍을 손에 쥔 채 마차에서 내려오며 소리쳤다. 개는 바퀴 사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리 와, 이놈아.” 피어렌사이드가 말했다. “그게 네 신상에 좋을 거다.”

홀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양반, 물렸소." 홀이 말했다. "가서 좀 살펴봐야겠소." 그는 낯선 이를 따라 종종걸음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홀 부인을 마주친 그가 말했다. "마차꾼 개가 그 양반을 물었다오."

그는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다. 낯선 이의 방문이 약간 열려 있기에, 그는 문을 밀어 열고 예의를 차리는 일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본래 성격이 남의 사정에 공감하기를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블라인드는 내려가 있었고 방 안은 어둑했다. 그는 아주 기이한 광경을 언뜻 보았다. 손이 없는 팔 하나가 자신을 향해 흔들리는 듯했고, 하얀 바탕에 커다란 점 세 개가 찍힌 얼굴은 마치 창백한 팬지꽃 같았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는 뒤로 나동그라졌고, 눈앞에서 문이 쿵 닫히더니 잠겨버렸다. 모든 일이 너무나 순식간이라 미처 살필 겨를조차 없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형체들이 흔들리더니, 타격이 가해졌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는 어두운 작은 계단 참에 서서, 방금 본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의아해하며 서 있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는 코치 앤드 호시스(여관) 밖에 모여든 작은 무리에게 돌아갔다. 그곳에는 피어렌사이드가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떠들고 있었고, 홀 부인은 그의 개가 손님을 물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쏘아붙이고 있었다. 길 건너 잡화점 주인 헉스터는 의아하다는 듯 캐묻고 있었으며, 대장간의 샌디 와저스는 마치 판사라도 된 양 엄숙한 태도를 보였다. 그 외에도 여자들과 아이들이 모여들어 "나를 물지 않

아서 다행이지요", "저런 개를 키우는 건 옳지 않아요", "대체 왜 문 건가요?" 같은 실없는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홀 씨는 계단에 서서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위층에서 그토록 놀라운 일이 정말로 벌어졌다는 게 그로서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받은 인상을 표현하기에는 어휘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 하더군.” 아내의 물음에 그가 대답했다. “그냥 짐을 안으로 옮겨다 주는 게 좋겠어.”

“당장 소작술을 해야 합니다.” 헉스터 씨가 말했다. “특히 염증이라도 생겼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난 저놈을 썩버릴 거야, 기어코 그렇게 하고 말 거라고.” 무리에 섞여 있던 한 여성이 말했다.

갑자기 개가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어서 움직여!” 문가에서 화가 난 목소리가 외쳤다. 그곳에는 깃을 세우고 모자챙을 깊게 눌러쓴, 얼굴을 가린 닳은 이가 서 있었다. “그 물건들을 빨리 정리할수록 내 기분도 좋아질 테니까.” 익명의 목격자에 따르면, 그가 입고 있던 바지와 장갑이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손님?” 피어렌사이드가 물었다. “그 개놈이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요.” 낯선 이가 말했다. “피부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서 그것들 좀 빨리 챙겨 주시죠.”

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그 뒤로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지시대로 첫 번째 상자가 거실로 옮겨지자마자, 낯선 이는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상자 위로 몸을 던졌다. 그는 홀 부인의 카펫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짚을 사방으로 흠뿌리며 짐을 풀기 시작했다.

상자에서는 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루가 담긴 작고 통통한 병부터, 색깔이 있거나 흰 액체가 담긴 작고 가느다란 병들이 이어졌다. '독약(Poison)'이라고 적힌 세로 홈이 파인 푸른 병, 몸통은 둥글고 목은 가느다란 병, 커다란 초록색 유리병과 커다란 흰색 유리병도 있었다. 유리 마개가 달린 병과 불투명한 라벨이 붙은 병, 가는 코르크 마개가 있는 병, 마개로 막은 병, 나무 뚜껑이 있는 병, 와인병과 샬러드 오일 병까지 끊임없이 나왔다. 그는 이 병들을 찬장 위와 벽난로 선반, 창가 탁자, 바닥 주변, 책상 위 등 온 사방에 줄지어 늘어놓았다. 브램블허스트에 있는 약국이라 해도 이보다 절반만큼의 병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상자를 하나씩 비울 때마다 병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여섯 개의 상자를 모두 비우자 탁자 위에는 짚이 높게 쌓였다. 상자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병들 외에 시험관 몇 개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저울뿐이었다.

상자가 풀리자마자 낫선 이는 곧장 창가로 가서 일을 시작했다. 흠어진 짚더미나 꺼져버린 불씨, 밖에 놓인 책 상자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 기색이었다. 위층으로 옮겨진 트렁크와 다른 짐들도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했다.

홀 부인이 저녁 식사를 가져다주었을 때, 그는 이미 작업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그는 병에 든 액체를 시험관에 조금씩 떨어뜨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부인이 다가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부인이 바닥에 널브러진 짚더미를 쓸어내고, 지저분한 바닥 상태를 보고는 약간의 불만 섞인 몸짓으로 식사 쟁반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서야 그는 겨우 반응했다. 그는 고개를 반쯤 돌렸으나 이내 다시 외면해 버렸다. 하지만 부인은 그가 안경을 벗어두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안경은 탁자 위 그 옆에 놓여 있었고, 그가 안경을 벗은 눈 주위는 유난히 행해 보였다. 그는 다시 안경을 고쳐 쓰고는 몸을 돌려 부인을 마주 보았다. 부인이 바닥에 흠어진 짚더미에 대해 한마디 하려던 찰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가 말했다. 평소 그를 상징하듯, 비정상적일 만큼 짜증 섞인 말투였다.

“노크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조사 과정에서는—정말이지 매우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조사 중에는—아주 작은 방해조차,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하나조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들어 주셔야—”

“물론입니다, 손님.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직접 문을 잠그셔도 좋습니다. 아무 때나 그러셔도 돼요.”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낯선 이가 말했다.

“선생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지요. 이 짚 말입니다만
——”

“하지 마시오. 그 짚단이 문제가 된다면 그냥 계산서에 넣어 두시오.” 그러고는 그녀를 향해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욕설인 듯 수상쩍은 말이었다.

그는 한 손에는 병을, 다른 한 손에는 시험관을 든 채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하고 공격적이며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위태로워 보이던지, 홀 부인은 겁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기세에 눌릴 여자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손님. 대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건지—.”

“1실링—1실링을 내놓으라고. 설마 1실링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럼 그렇게 하죠.” 홀 부인이 식탁보를 집어 들며 테이블 위에 펼치기 시작했다. “손님께서 만족하신다면 말이에요.”

그는 몸을 돌려 앉았다. 코트 깃이 그녀를 향하게 한 채였다.

그는 오후 내내 문을 잠근 채 작업에 몰두했다. 홀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번은 무언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마치 탁자를 세게 친 것처럼 병들이 서로 부딪치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병 하나가 거칠게 내팽개쳐지며 박살 나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방 안을 가로질러 급하게 서성거리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홀 부인은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 겁이 났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문가로 다가가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살폈다.

“더는 못 해, 더는 못 해!” 그는 미친 듯이 중얼거렸다. “더는 못 버틴단 말이야. 30만, 40만 명이라니! 그 엄청난 군중들이! 모두 속았어! 내 평생을 다 바쳐야 할지도 몰라! ……인내! 인내라고? 인내가 다 무슨 소용이야! ……바보 같으니! 이 바보 같은 놈!”

술집 벽돌 바닥 위로 징 박힌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홀 부인은 그가 혼잣말을 이어가는 것을 차마 다 듣지 못한 채, 못내 아쉬워하며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미세한 소리와 가끔 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닷새 이튿날 다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가 차를 가져다주었을 때, 오목거울 아래 방 구석에서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 옆에는 누군가 부주의하게 닦아낸 듯한 금빛 얼룩도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장부에 적어 두세요.” 방문객이 쏘아붙이듯 말했다.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 손상된 게 있다면 그냥 장부에 다 적어 넣으란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는 눈앞에 놓인 연습장에 목록을 하나씩 체크해 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뭐 하나 말해주지.” 페어렌사이드가 신비로운 말투로 말했다. 때는 늦은 오후였고, 그들은 아이핑 행어에 있는 작은 맥주집에 있었다.

“그래서요?” 테디 헨프리가 말했다.

“우리 개한테 물린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 말이에요. 아주 시커멓더라고요. 적어도 다리만큼은 그랬습니다. 바지랑 장갑이 찢어진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거든요. 보통 같으면 살색이라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안 보이더군요. 그냥 검은색뿐이었어요. 정말이지, 내 모자만큼이나 새카맣다니깐요.”

“세상에나!” 헨프리가 외쳤다. “정말이지 기묘한 일이군. 아니, 저 사람 코 좀 봐, 페인트칠을 한 것처럼 발그레하잖아!”

“맞는 말이야.” 페어렌사이드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네. 내 생각을 말해주지. 테디, 저 사람은 얼룩이야. 여기는 검고 저기는 희고 — 얼룩덜룩하게 말이야.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지. 일종의 혼혈인데, 색이 고르게 섞이지 못하고 얼룩덜룩하게 빠져버린 거라고. 전에도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네. 누구나 알 수 있듯, 말(馬)들한테는 흔히 있는 일이지.”

제IV장

커스 씨가 낯선 이와 면담하다

낯선 이가 아이핑에 도착했을 당시의 상황을 꽤 상세히 서술했다. 그가 남긴 기묘한 인상을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였다. 하지만 두 차례의 특이한 사건을 제외하면, 그가 마을 축제가 열리던 그 기이한 날에 이르기까지 머물렀던 과정은 아주 간략히 넘어가도 무방하다.

가사 관리 문제로 홀 부인과 몇 차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빈곤의 징후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4월 말 전까지는, 그는 돈을 더 얻어 주는 손쉬운 방법으로 매번 부인을 제압했다. 남편 홀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엄두가 날 때면 그를 내보내는 편이 낫겠다는 말을 꺼내곤 했다. 하지만 그가 못마땅함을 드러내는 방식은 주로 그 감정을 일부러 티 나게 감추고, 손님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었다.

"여름이 올 때까지 기다려 봐요." 홀 부인이 현명하다는 듯 말했다. "예술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때 두고 보자고요. 그 사람이 좀 거

만하긴 해도, 돈을 제때 꼬박꼬박 내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깐요. 뭐라고 떠들든 말든 말이에요."

그 이방인은 교회에 가지 않았다. 복장조차 일요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종교적 관습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홀 부인이 보기에 그의 일과는 매우 불규칙했다. 어떤 날은 일찍 내려와 끊임없이 무언가에 몰두하곤 했다. 반면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며 몇 시간 내내 들릴 만큼 초조하게 안달하다가, 담배를 피우거나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는 마을 밖 세상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

성미는 여전히 변덕스러웠다. 대개는 참기 힘든 자극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처럼 굴었으며, 한두 번은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물건을 툭 끊어버리거나, 찢거나, 짓이기거나, 부수기도 했다. 그는 극도의 신경질이 만성화된 상태처럼 보였다.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버릇도 점점 심해졌다. 홀 부인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는 낮에는 좀처럼 밖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해 질 녘이 되면 날씨가 춥든 말든 상관없이,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몸을 뽁뽁 싸맨 채 외출하곤 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길이나 나무와 독이 드리워져 그늘진 길만을 골라 다녔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의 기괴한 안경과 봉대를 감은 창백한 얼굴은, 어둠 속에서 갑작스럽고도 불쾌하게 나타나 귀가하던 노동자들을 놀라게 하곤 했다. 어느 날 밤 9시 반쯤, 테디 헨프리가 '스칼렛 코트' 여관에서 나오던 중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모자를 손에 들고 걸던 그는 여관 문이 열리며 새어 나온 빛에 비친 그 이방인의 해골 같은 머리를 보고는 수치스러운 정도로 겁에 질리고 말았다. 해 질 녘에 그를 본 아이들은 밤마다 괴물을 꿈꿨다. 그가 아이들을 싫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그를 싫어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으나, 양쪽 모두 서로를 아주 강렬하게 싫어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토록 기이한 외양과 태도를 지닌 인물이 나타났으니, 아이핑 같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두고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홀 부인은 이 문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그녀는 마치 함정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그가 '실험적 조사관'이라고 설명하곤 했다. 실험적 조사관이 무엇인지 묻는 이들에게는,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며 약간 우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고는 그가 '무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홀 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 손님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얼굴과 손의 색이 일시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성격이 워낙 예민한 편이라, 그런 사실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그녀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가 범죄자라는 추측이 무성하게 퍼져 나갔다. 경찰의 눈을 피해 몸을 완전히 감추려고 온통 옷으로 휘감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이 생각은 테디 헨프리 씨의 머리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2월 중순이나 말 사이에 일어난 중대한 범죄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국립학교의 수습 조교인 골드 씨는 이 가설을 상상력으로 부풀

렸다. 그는 그 낯선 이가 정체를 숨긴 무정부주의자이며, 폭발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다. 골드 씨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탐정 노릇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주로 낯선 이와 마주칠 때마다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그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유도 심문을 던지는 식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피어렌사이드 씨의 의견을 따르는 또 다른 학파도 있었다. 이들은 앞서 언급된 얼룩덜룩한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를 조금 변형한 입장을 취했다. 예를 들어, 사일러스 더건은 "저 이방인이 축제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지만 한다면, 순식간에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신학적 식견이 조금 있었던 그는 이 낯선 이를 성경 속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비유했다. 한편, 이방인을 그저 해롭지 않은 광인으로 간주하며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는 또 다른 견해도 있었다. 이 관점은 모든 의문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 주요 집단 사이에는 갈팡질팡하며 타협안을 찾는 이들도 있었다. 서섹스 사람들은 미신을 거의 믿지 않았기에, 마을에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속삭여지기 시작한 것은 4월 초의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였다. 그마저도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이들은 여자들뿐이었다.

하지만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 아이핑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같이 그를 싫어했다. 도시에서 머리를 쓰는 지식인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조용한 서섹스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신경질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그가 가끔씩 보여주는 광기 어린 몸짓, 해가 진 뒤 조용한 길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 무모한 발걸음, 호기심을 품고 다가가는 이들을 비인간적일 만큼 거칠게 밀쳐내는 행위,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리며 촛불과 등불을 꺼버리게 만드는 그 기묘한 황혼의 습성까지. 도대체 누가 이런 기괴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가 마을 길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길을 비켜섰다. 그가 지나가고 나면, 젊은 장난꾸러기들은 옷깃을 세우고 모자챙을 눌러쓴 채, 그의 기묘한 태도를 흉내 내며 초조한 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라 걷곤 했다. 당시에는 ‘보기맨(The Bogey Man)’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는데, 스테첼 양이 교회 등불 기금 마련을 위한 학교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 있을 때 낯선 이가 나타나면, 누군가는 음정이 맞지 않는 서툰 솜씨로 이 노래의 한 구절을 휘파람으로 불어댔다. 뒤늦게 따라온 어린아이들도 그를 향해 “보기맨이다!”라고 소리치며, 겁에 질린 듯하면서도 들뜬 기분으로 달아나곤 했다.

지역 의사인 커스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손님을 감싼 봉대는 의사로서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수많은 병이 있다는 소문은 질투심마저 불러일으켰다. 커스는 4월과 5월 내내 그 낯선 이와 대화할 기회만을 갈망했다. 결국 성령강림절 무렵, 더는 참지 못한 그는 마을 간호사를 위한 기부 명단 작성을 핑계 삼아 접근했다. 그런데 홀 씨가 손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깜짝 놀랐다. “이름을 말하긴 했어요.” 홀 부인은 사실과도 다른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제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무척 바보같이 느껴졌다.

커스가 거실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욕설이 꽤 또렷하게 들려왔다. “불쑥 실례하겠습니다.” 커스가 말하자 문이 닫혔고, 홀 부인은 대화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후 10분 동안 그녀의 귀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누군가 놀라 비명을 질렀고, 발소리가 분주해지더니 의자가 거칠게 밀려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짧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누군가 문을 향해 급히 달려가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곧이어 커스(Cuss)가 나타났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깨 너머로 뒤를 자꾸만 돌아보았다. 그는 등 뒤로 문을 열어둔 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홀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그가 길을 따라 서둘러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모자를 손에 든 채였다. 그녀는 문 뒤에 서서 열려 있는 거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때 낮은 이가 낮은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방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서 있는 위치에서는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거실 문이 콧 하고 닫혔고, 공간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커스는 마을 위쪽으로 곧장 올라가 번팅 목사를 찾아갔다. "제가 미친 겁니까?" 허름하고 작은 서재로 들어서자마자 커스가 불쑥 말을 내뱉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까?"

“무슨 일인가요?” 목사가 물었다. 그는 곧 발표할 설교문의 초고 위에 암모나이트 화석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관에 있던 그 친구 말이야—”

“그래서요?”

“마실 것 좀 내오게.” 커스가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저렴한 세리주 한 잔이 그의 신경을 진정시켜 주었다. 인심 좋은 교구 목사가 내놓을 수 있는 술이라곤 그것뿐이었다. 술기운이 좀 올라오자 그는 방금 전 있었던 면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방에 들어갔죠.”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러고는 간호사 기금에 기부 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쿵쿵거리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과학적인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다시 쿵쿵거렸습니다. 내내 쿵쿵거리기만 하던데, 분명 지독한 감기에 걸린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뽕뽕 싸매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저는 간호사 기금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눈은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방에 병이랑 화학 약품들이 널려 있더군요. 저울과 시험관 거치대도 보였고, 달맞이꽃 같은 냄새도 났습니다. 기부를 해 줄 거냐고 물으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놓고 물었습니다. 연구 중이시냐고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연구가 오래 걸리냐고 물었더니, 아주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빌어먹을 정도로 오래 걸리는 연구지!’라며 그는 말하자마자 폭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아’ 하고

말았죠. 그러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제 질문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귀중한 처방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처방전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죠. 의학적인 것이냐고 물었더니, ‘제기랄! 대체 뭘 캐내려는 거야?’라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그는 위엄 있게 콧방귀를 뀌고 기침을 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방전을 읽어봤는데 성분이 다섯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처방전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창문에서 불어온 바람이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르륵,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는 벽난로가 켜져 있는 방에서 작업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불꽃이 번쩍하더니, 처방전이 타오르며 굴뚝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종이가 굴뚝으로 휙 빨려 올라가는 순간 그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실감 나게 보여주려는 듯, 갑자기 그의 팔이 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손이 없었어요. 그냥 텅 빈 소매뿐이었다니까요! 세상에, 난 그제 신체 결손인 줄로만 알았죠! 아마 코르크로 만든 의수를 끼고 있다가 벗어 놓은 거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곧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무엇이 그 소매를 저렇게 콧콧하게 세우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정말이지 소매 안은 텅 비어 있었다니까요. 관절 부분까지 속이 흰히 보일 정도였어요. 팔꿈치 부근까지 속을 들여다봤는데, 옷감이 찢어진 틈 사이로 빛이 번쩍이며 통과하는 것까지 보였다고니까요! ‘세상에나!’ 하고 내가 소리쳤죠. 그러자 그가 동작

을 멈추더니, 검은 고글 너머로 나를 뵈히 쳐다보더군요. 그러고는 자기 소매를 쳐다봤고요.”

“그래서요?”

“그게 전부예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력하기만 하더니, 얼른 소매를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죠. ‘내 말은 말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처방전이 타고 있었다는 뜻이었어, 안 그래?’ 그는 질문하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물었습니다. ‘빈 소매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빈 소매라고?’ ‘그래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빈 소매 말입니다.’”

‘빈 소매였다고? 그게 빈 소매였다는 걸 봤단 말인가?’ 그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따라 일어섰죠. 그는 아주 느릿느릿 세 걸음 만에 내 앞으로 다가와 바로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독기를 품은 듯 씹씹거렸어요. 나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대로 감긴 그 뭉툰한 머리에 눈가리개까지 한 괴상한 몰골로 소리 없이 다가온다면, 그 누구라도 겁에 질리지 않을 재간이 없을 겁니다.

‘소매가 비어 있다고 했잖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고말고요.’ 내가 대답했죠. 말없이 노력하는 시합이라면, 안경조차 쓰지 않은 맨얼굴인 사람은 처음부터 불리한 법이거든요. 그러더니 그는 아주 조용히 주머니에서 소매를 다시 꺼내, 마치 또 한 번 보여주려는 듯 내 쪽으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주, 아주 천천히 말이죠. 나는 그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흐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내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뭐라도 말해야 했어요. 겁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소매 속이 끝까지 흰히 들여다보였어요. 그가 그 소매를 제 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바로 이렇게—뺏어 왔는데, 소매부리가 제 얼굴에서 6인치 거리까지 다가왔지 뭐니까. 텅 빈 소매가 그렇게 다가오는 걸 보는 건 정말 괴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서요?”

“무언가가—꼭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같은 느낌이었는데—내 코를 짝 꼬집지 뭐니까.”

번팅이 웃음을 터뜨렸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커스가 외쳤다. ‘거기’라는 말을 내뱉을 때 그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높게 치솟았다. “웃으라고 마음대로 웃으세요. 하지만 정말이지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의 소매를 세계 치고는 곧장 뒤돌아 방을 뛰쳐나왔단 말입니다. 그를 그냥 두고 말이에요!”

커스는 말을 멈췄다. 그가 느끼는 공포가 진심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속수무책이라는 듯 몸을 돌리더니, 목사가 내놓은 질 낮은 세리주를 두 번째 잔으로 따라 마셨다. “그의 소매자락을 찢을 때 말입니다.” 커스가 말했다. “정말이지, 분명히 팔을 친 것 같은 느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엔 팔이 없었습니다! 팔의 흔적조차 전혀 없었다고요!”

번팅 씨는 그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다. 그러더니 커스 씨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군요.” 그가 말했다. 그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현명하고 엄숙해 보였다. “정말로,” 번팅 씨가 판사처럼 단호하게 강조하며 덧붙였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V장

목사관의 절도 사건

교구 목사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전말은 주로 목사와 그의 부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사건은 아이핑의 클럽 축제가 열리는 날인 휘트 먼데이(Whit Monday)의 새벽녘에 일어났다. 번팅 부인은 동이트기 전의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안방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으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침대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옆에 있는 탈의실에서 맨발이 복도를 지나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 '저벅, 저벅, 저벅'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소리의 정체를 확신하자마자 그녀는 가능한 한 조용히 번팅 목사를 깨웠다. 목사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안경을 쓰고, 부인의 가운과 자신의 욕실용 슬리퍼를 신은 뒤 소리를 듣기 위해 복도 계단참으로 나갔다. 그는 아래층 서재 책상에서 무언가 뒤적거리는 소리와 뒤이어 터져 나온 격렬한 재채기 소리를 아주 또렷하게 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침실로 돌아가 가장 확실한 무기인 부지깽이를 챙겨 들었다. 그러고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때 번팅 부인이 계단참으로 나왔다.

시간은 네 시쯤 되었고, 밤의 가장 깊은 어둠은 이미 지나간 뒤였다. 복도에는 희미한 빛이 감돌았으나, 서재 문틈은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번팅 씨의 발걸음에 계단이 희미하게 삐걱대는 소리와 서재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움직임 외에는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서랍이 열리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욕실이 터져 나왔고, 성냥을 긋는 소리와 함께 서재 안이 노란 불빛으로 가득 찼다. 번팅 씨는 어느새 복도에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책상과 열려 있는 서랍, 그리고 책상 위에서 타오르는 촛불이 보였다. 하지만 도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복도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번팅 부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라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번팅 씨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 도둑이 분명 마을 사람 중 하나일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돈이 찡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도가 집안의 비상금인 금화를 찾아낸 모양이었다. 반 소비린 금화로 총 2파운드 10실링어치였다. 그 소리가 들리자 번팅 씨는 결단력을 발휘해 행동에 나섰다. 그는 부지깽이를 단단히 움켜쥔 채 방 안으로 돌진했고, 그 뒤를 번팅 부인이 바짝 뒤따랐다. "꼼짝 마!" 번팅 씨가 사납게 외쳤으나, 이내 경악하며 몸을 숙였다. 방 안은 분명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방금 이 순간 누군가 방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두 사람의 확신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은 한 30초 동안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그러다 번팅 부인이 방을 가로질러 가 칸막이 뒤를 살폈고, 번팅 씨도 비슷한 충동에 휩싸여 책상 밑을 들여다보았다. 이어 번팅 부인이 창문의 커튼을 젖히자, 번팅 씨는 굴뚝 안을 올려다보며 부지깽이로 안을 휘저었다. 번팅 부인이 쓰레기통을 살살이 뒤지는 동안 번팅 씨는 석탄통 뚜껑을 열어젖혔다. 그러다 두 사람은 동작을 멈추고,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멈춰 섰다.

"분명히 —라고 맹세할 수도 있었는데—." 번팅 씨가 말했다.

"양초다!" 번팅 씨가 외쳤다. "누가 양초에 불을 붙인 거야?"

"서랍이에요!" 번팅 부인이 외쳤다. "서랍이 열려 있고, 돈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서둘러 문가로 향했다.

"별 희한한 일도 다—"

복도에서 격렬한 재채기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급히 밖으로 달려 나가는 순간, 주방 문이 쿵 하고 닫혔다. "양초 가져와." 번팅 씨가 말하며 앞장섰다. 두 사람은 누군가 급히 빗장을 다시 거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가 주방 문을 열었을 때, 세척실 너머로 뒷문이 막 열리는 모습이 보였다. 이른 새벽의 희미한 빛 사이로 정원의 어두운 형체들이 드러났다.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은 열린 채 잠시 그대로 있다가,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순간, 홀 부인이 서재에서 들고 오던 촛불이 일렁이며 크게 타올랐다. 그들이 주방 안으로 들어서기까지는 1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은 뒷문을 다시 잠그고 주방과 식료품 저장실, 세척실을 살살이 뒤진 뒤, 마침내 지하실로 내려갔다. 아무리 찾아 헤매도 집 안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날이 밝았을 때, 기묘한 차림을 한 작은 부부인 목사와 그의 아내는 여전히 자신들의 집 1층에서 꺼져가는 촛불의 불필요한 빛에 의지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제VI장

미쳐버린 가구들

화이트 먼데이(Whit Monday) 이른 새벽, 밀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느라 분주해지기 전이었다. 홀 씨와 홀 부인은 소리 죽여 일어나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하려는 일은 사적인 용무였는데, 맥주의 비종과 관련된 일이었다. 두 사람이 지하실에 들어서자마자, 홀 부인은 공동 거실에서 사사파릴라 한 병을 챙겨 내려오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작업의 전문가이자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이가 홀 부인이었기에, 홀 씨는 당연하다는 듯 그것을 가지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참에 올라선 그는 낮선 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안내받은 대로 그 병을 찾아냈다.

병을 들고 돌아오던 그는 앞문 빗장이 풀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문은 그저 걸쇠에 살짝 걸려 있을 뿐이었다. 순간 번뜩이는 영감이

스쳤다. 그는 이 상황을 위층에 머무는 낯선 이의 방, 그리고 테디 헨프리가 했던 말들과 연결 지었다. 밤사이 홀 부인이 빗장을 걸 때 자신이 촛불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억났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멈춰 섰다. 그러고는 손에 병을 든 채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낯선 이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린 뒤, 문을 활짝 밀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침대도, 방도 비어 있었다. 게다가 그의 무딘 지능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침실 의자와 침대 난간을 따라 투숙객의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가 알기로 그것이 손님이 가진 유일한 옷들이었다. 심지어 그가 쓰던 커다란 챙 모자마저 침대 기둥에 삐딱하게 걸려 있었다.

홀이 그곳에 서 있을 때, 지하실 깊은 곳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웨스트 서식스 지방 마을 사람들이 성미 급한 조바심을 드러낼 때 흔히 쓰는 말투였다. 음절을 빠르게 몰아치듯 발음하며, 문장 끝을 높은 음으로 치켜올려 묻는 식이었다.

"조지! 도대체 뭘 가져온 거야?"

그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몸을 돌려 그녀에게 급히 내려갔다. 그는 지하실 계단 난간 너머로 외쳤다. "재니, 헨프리가 말한 게 다 사실이야. 그 사람 우리 방에 없어, 정말이라니까. 게다가 현관문도 빗장이 걸려 있어."

처음에는 홀 부인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그녀는 직접 빈 방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홀은 여전히 병을 손에 든 채 앞장서서 나갔다. "만약 그놈이 거기 없다면," 그가 말했다. "옷은 여기 있는 거요. 그런데 옷도 없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란 말이오? 참으로 기이한 일이구려."

지하실 계단을 올라오던 두 사람은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에,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홀 부인은 복도에서 남편을 지나쳐 먼저 위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그때 계단 위에서 누군가 재채기를 했다. 홀 씨는 부인보다 여섯 계단 뒤쳐져 올라가며 부인이 재채기를 했다고 생각했다. 반면 먼저 올라가던 부인은 홀 씨가 재채기를 했다고 느꼈다. 부인은 문을 벌컥 열고 방 안을 살피며 말했다.

“정말 이상하기도 하지!”

그녀는 머리 바로 뒤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홀 씨가 계단 맨 꼭대기에서 열두 자 남짓 떨어진 곳에서 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여 베개 위에 손을 얹고, 이어서 옷가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었다.

“출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분은 한 시간 전이나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던 순간, 정말이지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침대 덮개가 스스로 한데 모이더니, 갑자기 뽕뽕하게 솟구쳐 올랐다. 그러더니 침대 발치 난간 너머로 곤두박질쳤다. 마치 누군가 침대 중앙을 움켜쥐고 옆으로 확 내던진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직후에는 침대 기둥에 걸려 있던 낫선 이의 모자가 툭 튀어 오르더니, 공중에서 커다란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다가 홀 부인의 얼굴을 향해 곧장 날아들었다. 세면대 위에 있던 스펀지도 순식간에 날아왔다. 이어 의자까지 움직였다. 의자는 낫선 이의 코트와 바지를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더니, 마치 그 남자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목소리로 메마른 웃음을 터뜨리며 네 다리를 세워 홀 부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의자는 잠시 그녀를 겨냥하는 듯하더니, 그대로 홀 부인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리자, 의자 다리가 그녀의 등을 부드러운면서도 단호하게 밀어붙였다. 의자는 홀 부인을 방 밖으로 밀어냈다. 문은 쿵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닫히더니 잠겨 버렸다. 의자와 침대는 잠시 승리의 춤이라도 추는 듯하더니, 이내 모든 것이 갑자기 정적에 잠겼다.

홀 부인은 계단참에서 홀 씨의 품에 안긴 채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의 비명에 놀라 깨어난 홀 씨와 밀리가 그녀를 부축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런 상황에서 흔히 쓰는 회복제를 먹이며 진정시키기까지는 무척이나 애를 먹어야 했다.

“그건 귀신 짓이에요.” 홀 부인이 말했다. “분명 귀신 짓이라고요.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탁자랑 의자가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춘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한 잔 더 마셔요, 재니.” 홀 씨가 말했다. “그러면 좀 진정될 거요.”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려요.” 홀 부인이 말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내 짐작이 맞았어.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부릅뜬 눈에 머리엔 붕대까지 감고, 일요일이면 교회에도 안 가고 말이야. 게다가 그 수많은 술병은 또 어땡고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았던 말이에요. 그자가 가구에 귀신이라도 붙여 놓은 게 분명해요. 내 소중한 오래된 가구들 말이에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머니께서 바로 그 의자에 앉아 계시곤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구가 이제 와서 나를 공격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마셔요, 재니.” 홀 씨가 말했다. “당신, 신경이 아주 다 곤두서 버렸구먼.”

사람들은 이른 아침 다섯 시의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는 길 건너편으로 밀리를 보냈다. 대장장이인 샌디 와저스 씨를 깨우기 위해서였다. 홀 씨가 전한 인사와 함께, 위층의 가구들이 아주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와저스 씨가 이쪽으로 와줄 수 있을까? 와저스 씨는 세상 물정에 밝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꽤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그게 마법이라면 정말이지 손쓸 도리가 없지요.” 샌디 와저스 씨의 견해는 그러했다. “저런 양반한테는 말편자가 필요한 법이니깐요.”

그는 몹시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에게 방으로 올라가는 길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는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편을 택했다. 건너편에서는 헉스터의 도제(徒弟)가 나와 담배 판매용 창문의 덧창을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불러 대화에 끼워 넣었다. 당연히 몇 분 뒤에는 헉스터 씨도 그쪽으로 따라왔다. 의회 정치에 능한 앵글로색슨족 특유의 기질이 발휘되었다. 말은 무성했으나 결단력 있는 행동은 없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따져봅시다.” 샌디 와저스 씨가 주장했다.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부터 확실히 해야 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건 언제든 가능하지만, 한 번 부숴버린 문을 다시 멀쩡하게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때 갑자기, 그리고 기적처럼 위층 방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 사람들이 경악하며 고개를 들어 올리자, 계단을 내려오는 낯선 이의 형체가 보였다. 그는 그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푸른 유리 눈을 치켜뜬 채, 이전보다 더 검고 명한 눈빛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내내 시선을 고정한 채 뻗뻗하고 느릿한 동작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이어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오던 그는 계속해서 앞을 노려보다가, 이내 걸음을 멈추었다.

“저길 봐!” 그가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장갑 낀 손가락 끝을 따라갔다. 지하실 문 바로 옆에 사사파릴라 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러고는 그가 거실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재빠르고도 악의적으로 문을 광 닫아버렸다.

문이 광 닫히며 남긴 마지막 메아리마저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세상에, 정말이

지 기가 막히는군요!" 와저스 씨가 말하며, 뒤에 이어질 말은 차마 내뱉지 않은 채 말을 줄였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물어보겠소.” 와저스가 홀 씨에게 말했다. “당장 설명을 내놓으라고 따져 물어야지.”

여관 주인 남편을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마침내 그가 문을 두드리고 열더니,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는 데까지는 겨우 도달했다.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 낯선 이가 엄청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고는 “나가는 길에 문이나 꼭 닫고 나가!”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짧았던 만남은 끝이 났다.

제VII장

낮선 이의 정체가 드러나다

그 낮선 이는 새벽 5시 반쯤 코치 앤드 호시스(여관)의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는 정오가 다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굳게 닫아건 채였다. 홀 씨가 퇴짜를 맞은 이후로,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게 분명했다. 그는 벨을 세 번이나 눌렀다. 세 번째에는 미친 듯이 연달아 눌러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옥에나 가라니, 참나!” 홀 부인이 투덜거렸다. 곧이어 목사관에 도둑이 들었다는 어렴풋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앞뒤 정황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 홀 씨는 와저스의 도움을 받아 치안판사인 슈클포스 씨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러 떠났다. 아무도 감히 2층으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이방인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가끔 그는 방 안을 격렬하게 서성거렸고, 두어 번은 욕설

이 터져 나오거나 종이를 찢는 소리, 병을 거칠게 깨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에 질렸으면서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늘어났다. 헉스터 부인이 다가왔고, 화이트 먼데이(Whit Monday)를 맞아 검은색 기성복 재킷에 피케(piqué) 종이 넥타이를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도 무리에 합류했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 젊은 아치 하커는 마당으로 달려가 창문 블라인드 밑을 훑쳐보려 시도하며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마치 무언가를 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자 아이핑의 다른 젊은이들도 곧 그를 따라 나섰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창한 휘트 먼데이(Whit Monday)였다. 마을 거리에는 열 개 남짓한 가판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사격장도 마련되어 있었다. 대장간 옆 잔디밭에는 노란색과 초콜릿색 마차 세 대가 놓여 있었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그림처럼 멋스러운 낮선 이들이 모여 코넛 맞추기 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신사들은 푸른색 저지를 입었고, 숙녀들은 흰 앞치마에 깃털이 풍성하게 달린 유행하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퍼플 폰' 여관의 워저와 구두 수선공이자 중고 자전거를 팔기도 하는 재거스 씨는 도로를 가로질러 유니언 잭과 로열 인사인(본래 빅토리아 여왕의 첫 즉위 기념식을 위해 만들어진 깃발들)을 줄로 연결해 걸고 있었다.

거실 안은 인공적인 어둠이 깔려 있었다.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만이 겨우 스며들 뿐이었다. 그곳에는 낮선 이가 있었다. 그는 불편할 정

도로 뜨거운 옷가지에 몸을 뽁뽁 싸맨 채,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는 검은 안경 너머로 서류를 뒤적이거나 지저분하고 작은 병들을 살폈다. 가끔은 창밖에서 들리는 소년들을 향해 짐승처럼 거칠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는데, 몸은 보이지 않아도 그 목소리만큼은 또렷이 들려왔다. 벽난로 옆 구석에는 깨진 병 조각들이 대여섯 개나 널브러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자극적인 염소 냄새가 감돌았다. 당시 들려온 소리와 이후 방 안에서 발견된 정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러했다.

정오 무렵, 그가 갑자기 거실 문을 열고 나오더니 술집에 있던 서너 명의 사람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섰다. “홀 부인,” 그가 불렀다. 누군가 주춤거리며 달려가 홀 부인을 불러왔다.

잠시 후 홀 부인이 나타났다. 숨이 조금 가쁜 듯했으나, 그 때문에 오히려 기세는 더욱 험악해 보였다. 홀 씨는 아직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 부인은 이 상황을 두고 한참을 고민한 듯했다. 그녀는 정산되지 않은 계산서가 놓인 작은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손님, 찾으시는 게 이 계산서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왜 내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지? 왜 내 식사를 챙기지 않고 벨 소리에도 응답하지 않는 거야? 내가 먹지도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내 숙박비는 왜 아직 안 내는 거죠?” 홀 부인이 말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바로 그거라고요.”

“사흘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송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틀 전에도 말했잖소, 송금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내 계산서가 닳새 동안이나 밀려 있었는데, 아침 식사가 좀 늦어진다고 투덜대면 안 되는 거 아니오?”

낮선 이는 짧지만 거칠게 욕설을 내뱉었다.

“안 돼, 안 돼!” 술집 안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선생님, 욕설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군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홀 부인이 말했다.

낮선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가 난 잠수용 헬멧 같은 형상으로 서 있었다. 여관 술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홀 부인이 그를 제압했다고 느꼈다. 그가 다음에 내뱉은 말 역시 그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보시오, 부인—” 그가 말을 시작했다.

“나한테 ‘착한 부인’이니 뭐니 하면서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홀 부인이 말했다.

“송금액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송금이라니, 참나!” 홀 부인이 말했다.

“그래도, 내 주머니 속에 아마도—”

“사흘 전에는 가진 돈이라고는 은화 한 소버린 정도밖에 없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내가 좀 더 찾아냈는데—”

"여보쇼!" 여관 바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걸 대체 어디서 찾아내신 건지 궁금하네요.” 홀 부인이 말했다.

그 말은 낯선 이를 몹시 짜증 나게 만든 모양이었다. 그는 발을 구르며 말했다. “무슨 뜻이지?”

“도대체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홀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계산서를 받거나 아침 식사를 차리는 등 어떤 일이라도 하기 전에, 당신이 꼭 대답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가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것 말이에요. 2층 내 의자에서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방이 비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왔는지 알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 여관에 머무는 손님들은 모두 문으로 들어와요. 그게 우리 여관의 규칙인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건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갑자기 낯선 이가 장갑을 낀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리더니, 발을 구르며 외쳤다. "멈춰!" 그가 내뱉은 말은 너무나도 격렬해서, 홀 부인은 즉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가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 말이야. 내가 직접 보여주지. 맙소사, 반드시 보여주고 말 테다!” 그러고는 펼친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었다가 떼어냈다. 그러자 그의 얼굴 중앙이 검은 구멍처럼 뿔뿔히 뚫려 버렸다. “여기 있소.” 그가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홀 부인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홀 부인은 기괴하게 변해버린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 들었다. 그러다 그것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떨어뜨리고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바닥에는 분홍빛으로 번들거리는 그 낯선 이의 코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가 안경을 벗자 여관 안에 있던 모든 이가 숨을 들이켰다. 이어 그는 모자를 벗더니, 격렬한 몸짓으로 수염과 붕대를 거칠게 뜯어냈다. 잠시 동안 붕대가 잘 벗겨지지 않자, 여관 안에는 끔찍한 예감이 스치듯 지나갔다. 누군가 "세상에나!" 하고 외쳤다. 이윽고 붕대들이 마침내 벗겨져 나갔다.

상황은 그 무엇보다 끔찍했다. 홀 부인은 입을 벌린 채 공포에 질려 눈앞의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집 문을 향해 달아났다. 사람들도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얼굴이나 기괴한 형상, 혹은 눈에 보이는 공포를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이런 일은 상

상조차 못 했다. 복도를 가로질러 술집 안으로 봉대와 가발이 날아들었고, 이를 피하려던 한 청년이 펄쩍 뛰어올랐다. 사람들은 계단 아래로 서로 뒤엎겨 넘어졌다. 그곳에는 횡설수설하며 무언가 해명하려 소리치는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코트 깃까지만 실루엣이 보일 뿐, 그 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어떤 형체도 보이지 않는, 그저 허공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거리 위쪽을 올려다 보니 코치 앤드 호시스(여관)에서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 튀어나오고 있었다. 홀 부인이 넘어지는 모습과 그녀를 밟지 않으려고 테디 헨프리가 펄쩍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이어 밀리의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주방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밀리가 뒤에서 머리 없는 이방인과 맞닥뜨린 것이다. 비명 소리는 순식간에 커졌다.

그 즉시 거리의 모든 사람이 여관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사탕 장수와 코코넛 던지기 게임 주인과 그 조수, 회전목마를 돌리는 사람, 어린 소년 소녀들, 시골뜨기 멋쟁이들, 세련된 처녀들, 앞치마를 두른 노인들과 집시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달려왔다. 기적처럼 짧은 시간 안에 마흔 명 남짓한 군중이 홀 부인의 여관 앞에 모여들었다. 인원은 빠르게 늘어났고, 사람들은 몸을 흔들며 야유를 보내거나 질문을 던지고, 경악하며 무언가를 추측해 냈다. 모두가 한꺼번에 말을 쏟아내려 한 탓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쓰러진 홀 부인을 부축하는 작은 무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를 열었고, 목소리 큰 목격자가 믿기 힘든 증언을 쏟아냈다.

“세상에, 귀신이야!” “대체 그놈이 뭘 한 건데?” “그 여자애를 다치게 한 건 아니겠지?” “내 생각엔 칼을 들고 달려든 것 같아.”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진짜라니까. 머리가 없었다고! 머리가 아예 없었던 말이야!” “말도 안 돼! 분명 무슨 마술 같은 속임수일 거야.” “그놈이 자기 몸을 감싸던 천을 획 걷어치우더니—!”

열린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려 애쓰던 군중은 여관 쪽으로 머리가 향한, 제멋대로 흩어진 뺨기 모양의 대열을 이루었다.

“그자가 잠시 멈춰 서 있더라고요. 그 여자애가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자가 몸을 돌렸죠. 여자의 치맛자락이 휘날리는 게 보였고, 그자가 여자를 뒤쫓아갔어요. 채 10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러더니 손에 칼과 빵 한 덩이를 든 채 다시 돌아왔어요. 마치 멍하니 응시하는 것처럼 그대로 서 있더군요. 방금 전 일이에요. 저 문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내 말 좀 들어보쇼, 그자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방금 놓친 거예요—”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다. 말을 이어가던 이가 잠시 멈춰 서더니 옆으로 비켜섰다. 집을 향해 아주 단호한 발걸음으로 행진해 오는 작은 행렬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맨 앞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결연한 표정을 지은 홀 씨가 섰고, 그 뒤를 마을 순경인 바비 재퍼스 씨가 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의 와저스 씨가 뒤따라왔다. 그들은 이제 영장을 손에 쥐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최근 상황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말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웠다. "머리가 있든 없든," 재퍼스가 말했다. "난 놈을 체포해야 하고, 반드시 체포하고 말 거야."

홀 씨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 거실 문 앞으로 곧장 향하더니, 문을 뚫어 열어젖혔다. "순경," 그가 말했다. "직무를 다하십시오."

재퍼스가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뒤이어 홀 씨가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와저스가 따라 들어왔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머리 없는 형체였다. 그 형체는 그들을 마주 보고 서 있었는데, 한쪽 장갑 낀 손에는 갇아먹다 남은 빵 조각을, 다른 쪽 손에는 치즈 덩어리를 들고 있었다.

"저 사람이예요!" 홀 씨가 외쳤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 형체의 깃 위로, 분노 섞인 항의가 터져 나왔다.

"당신은 정말이지 골치 아픈 손님이야, 선생." 재퍼스 씨가 말했다. "하지만 머리가 있든 없든, 영장에는 '신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의무는 의무라고."

"물러서!" 그 형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그는 갑자기 빵과 치즈를 내던졌고, 홀 씨가 간발의 차로 탁자 위의 칼을 붙잡아 떨어지지 않게 했다. 낫선 이가 왼손 장갑을 벗어 던지더

니 재퍼스의 얼굴을 후려했다. 재퍼스는 영장과 관련된 말을 하다 말고, 순식간에 손이 없는 그의 손목을 움켜쥐고 보이지 않는 목을 틀어쥐었다.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여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다. 홀 씨는 탁자 위로 칼을 밀어 와저스에게 보냈다. 와저스는 말하자면 공격을 막는 골키퍼처럼 칼을 받아 든 뒤 앞으로 나섰다. 재퍼스와 닛선 이가 서로를 붙잡고 때리며 비틀거리는 사이, 그들이 와저스 쪽으로 휘청거리며 다가왔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의자는 그들이 한데 뒤엉켜 쓰러지면서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옆으로 밀려났다.

“발부터 잡아!” 재퍼스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홀 씨는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려 애썼으나, 갈비뼈에 묵직한 발길질을 당하고 말았다. 그 충격에 그는 잠시 나가떨어졌다. 한편, 머리가 잘린 듯한 이방인이 몸을 뒤척여 재퍼스 위로 올라타는 것을 본 와저스 씨는 칼을 손에 쥔 채 문 쪽으로 물러났다. 그러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려 달려오던 헉스터 씨와 시더브리지 마부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장식장 위에서 병 서너 개가 쏟아져 내리며 방 안의 공기 속으로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를 흩뿌렸다.

“항복하겠소!” 닛선 이가 외쳤다. 그는 이미 재퍼스를 쓰러뜨린 상태였으나, 이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머리도 없고 손도 없는 기괴한 형상이었다.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 장갑까지 벗어 던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숨이 넘어가듯 헐떡이며 말했다. “이건 소용없는 짓이야.”

텅 빈 허공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경험이었으나, 서섹스의 농민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무던한 사람들일 것이다. 재퍼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 한 쌍을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멍하니 응시했다.

“이봐요!” 재퍼스가 외쳤다. 이 모든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는 그만 멈춰 선 것이었다. “제기랄!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군!”

낮선 이는 조끼를 따라 팔을 아래로 훑어 내렸다. 그러자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 빈 소매가 가리키는 곳의 단추들이 저절로 풀렸다. 이어 그는 정강이 부근이 불편하다는 듯 무언가 말하며 몸을 굽혔다. 그는 신발과 양말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더듬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세상에!” 헉스터가 갑자기 외쳤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그냥 빈 옷일 뿐이라고. 봐! 옷깃 안쪽이랑 안감까지 다 보인단 말이야. 내 팔을 집어넣을 수도—”

그가 손을 뻗었다. 허공에서 무언가에 맞닿은 듯하자, 그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거두어들였다.

“내 눈에 손가락 좀 집어넣지 말아 주게.”

허공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야만적인 항의를 담아 쏘아붙였다.

“사실 난 머리부터 손, 다리,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위까지 온전하게 다 있단 말이네. 다만 몸이 투명할 뿐이지.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일이지만, 사실이 그렇다네. 그렇다고 해서 아이핑의 멍청한 시골뜨기들이 죄다 나를 이리저리 찔러봐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

단추가 모두 풀린 채 보이지 않는 형체 위에 느슨하게 걸쳐진 옷가 지들이, 마치 양손을 허리에 얹고 선 사람처럼 꼴꼴이 서 있었다.

다른 사내들도 속속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실내는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다. "투명인간이라고?" 헉스터가 낮은 이의 욕설을 못 들은 척하며 말했다. "세상에 그런 해괴한 소리를 누가 믿겠어?"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범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경찰관이 나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겁니까?”

“아, 그건 이야기가 다르죠.” 재퍼스가 말했다. “이런 조명 아래서는 당신 모습이 좀 흐릿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영장을 받았고 모든 절차는 정당합니다. 내가 쫓는 건 투명함 따위가 아니라 절도입니다. 누군가 남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쳐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정황상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투명인간이 말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지시받은 대로 해야 합니다.”

“좋소.” 낫선 이가 말했다. “가겠소. 반드시 가겠단 말이요. 하지만 수갑은 안 되요.”

“늘 있는 일입니다.” 재퍼스가 말했다.

“수갑은 안 됩니다.” 낫선 이가 못을 박듯 말했다.

“실례하겠습니다.” 재퍼스가 말했다.

그 형체는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았다. 누군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탁자 아래로 슬리퍼와 양말, 바지를 발로 차서 벗어 던졌다. 그러더니 다시 벌떡 일어나 코트까지 휙 벗어 던졌다.

“이봐, 당장 멈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갑자기 깨달은 재퍼스가 외쳤다. 재퍼스는 조끼를 움켜쥐었으나, 조끼 안에서 무언가 몸부림을 쳤다. 그러자 셔츠가 조끼 밖으로 미끄러져 빠져나왔고, 재퍼스의 손에는 힘없이 텅 빈 조끼만이 남았다. “그를 붙잡아!” 재퍼스가 큰 소리로 명령했다. “저놈이 옷을 다 벗어 던지기만 하면—”

“그를 붙잡아!”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사람들은 이제 낫선 이의 모습 중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 되어버린, 필력이는 흰 셔츠를 향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셔츠 소매가 흘 씨의 얼굴을 매섭게 후려쳤다. 그 일격에 팔을 벌리고 달려들던 그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 뒤로 밀려나며 성당 관리인인 늙은 투섬 씨를 들이받았다. 직후에 그 옷가지가 들어 올려지더니, 마치 사람 머리 위로 씌워지는 셔츠처럼 팔 부분에서 허공을 휘저으며 맥없이 파닥거렸다. 재퍼스가 그 옷을 붙잡았으나 오히려 옷을 벗기는 데 도움을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허공에서 날아온 주먹에 입을 얻어맞은 재퍼스는 즉시 진압봉을 내던지며 테디 헨프리의 정수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조심해!” 사람들이 소리쳤다. 다들 허공을 향해 무작정 휘두르며 아무것도 없는 곳을 때려댔다. “그를 붙잡아! 문을 닫아! 놓치면 안 돼! 내가 잡았어! 여기 있다!” 사방에서 소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공격을 받는 듯한 형국이었다. 코를 세게 얻어맞아 정신이 번쩍 든 샌디 와저스는 평소처럼 기민하게 움직이며 문을 다시 열고 도망치는 무리를 이끌었다. 뒤따르던 사람들은 문가 구석에 잠시 엉켜 꼼짝도 못 했다. 난투는 계속되었다. 유니테리언 신자인 핍스는 앞니가 부러졌고, 헨프리는 귀 연골을 다쳤다. 재퍼스는 턱 밑을 얻어맞았다. 그는 몸을 돌리며 헉스터와 자신 사이를 가로막아 충돌을 방해하는 무언가를 붙잡았다. 단단한 가슴 근육이 손에 잡혔다. 잠시 후,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던 흥분한 사내들이 한꺼번에 복적이는 홀로 튀어나왔다.

“잡았다!” 재퍼스가 소리쳤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 혈떡이며 사람들 사이를 비틀거리며 헤치고 나갔다. 얼굴은 자줏빛으로 달아올랐고

핏줄이 불거진 채,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을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벌였다.

기이한 싸움이 집 문을 향해 급박하게 몰아치자, 사람들은 좌우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싸움의 소용돌이는 여관의 계단 여섯 개를 타고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재퍼스는 목이 메는 듯한 비명을 내질렀다. 그는 끝까지 버티며 무릎으로 저항하려 애썼지만, 결국 몸이 휙 돌아가며 자갈 바닥 위로 머리부터 무겁게 처박히고 말았다. 그제야 그의 손가락에서 힘이 풀렸다.

“붙잡아라!”, “투명인간이다!” 하는 흥분 섞인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낯선 젊은이가 급히 달려들었다. 그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으나 헛손질을 했고,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경찰관의 몸 위로 넘어졌다. 길 한복판에서는 무언가에 밀린 여인이 비명을 질렀다. 발길질이라도 당한 듯한 개 한 마리가 짹짹거리며 울부짖더니 헉스터 씨네 마당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 소란을 끝으로 투명인간은 자취를 감췄다.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서서 손짓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이내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마치 돌풍이 낙엽을 흩뿌리듯, 사람들은 마을 곳곳으로 사방팔방 흩어져 달아났다.

하지만 재퍼스는 여관 계단 아래에 무릎을 굽힌 채,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제VIII장

이동 중

여덟 번째 장은 매우 짧다. 그 내용은 이렇다. 이 지역의 아마추어 자연학자인 기번스는 드넓게 펼쳐진 구릉지 위에 홀로 누워 있었다. 주변 수 마일 안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기번스가 거의 졸음에 빠져들 무렵, 바로 곁에서 누군가 기침하고 재채기를 하더니, 이내 거칠게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목소리만큼은 분명했다. 욕설은 계속되었다. 마치 교양 있는 사람이 내뱉는 듯, 욕설의 폭과 종류가 아주 다채롭고 방대했다. 욕설은 절정에 달했다가 다시 잦아들더니,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가 아더딘 방향으로 사라지듯 점차 희미해졌다. 그러다 발작적인 재채기 한 번과 함께 소리는 완전히 끝났다.

기번스는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방금 겪은 기이한 현상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불안해서, 그가 유지하

던 철학적 평온함은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그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을을 향해 가파른 언덕길을 최대한 빨리 내려갔다.

제IX장

마블 씨

마블 씨의 생김새를 그려보자면, 이렇다. 얼굴은 살집이 많고 표정이 변화무쌍하며, 코는 원통형으로 툭 튀어나왔다. 입술은 감초처럼 검고 두툼하며 끊임없이 달싹거리고, 수염은 제멋대로 뻗쳐 있어 기괴한 느낌을 준다. 체격은 살집이 있어 통통한 편인데, 짧은 팔다리가 그 비대한 느낌을 더욱 부각한다. 그는 털이 보송보송한 실크 모자를 썼다. 옷 곳곳을 살펴보면 단추 대신 노끈이나 신발 끈을 묶어 놓은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본래 혼자 사는 독신남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토마스 마블 씨는 아이핑에서 1.5마일 정도 떨어진 애더딘 방향의 구릉지, 길가 도랑에 발을 담근 채 앉아 있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양말을 제외하면 맨발이었는데, 넓적한 엄지발가락은 마치 경계하는 개 귀처럼 쫓긋 세워져 있었다. 그는 아주 느긋하게, 아니 무엇이든 늘 느긋하게 하는 사람답게 장화 한 켤레를 신어 볼까 고민하며 물끄러미 바라

보고 있었다. 그 장화는 근래 들어 본 것 중 가장 튼튼한 물건이었지만 그에게는 너무 컸다. 반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날이 건조할 때는 아주 편안했지만, 습한 날씨에는 밑창이 너무 얇았다. 마블 씨는 험령한 신발을 싫어했지만, 그렇다고 축축한 것도 싫어했다. 어느 쪽을 더 싫어하는지 제대로 따져본 적은 없었다. 마침 날씨도 화창했고 딱히 할 일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네 짝의 신발을 잔디 위에 보기 좋게 모아 놓고는 가만히 응시했다. 그러다 풀과 솟아오른 짚신나물 사이에 놓인 신발들을 보고는, 두 켤레 모두 지독하게 못생겼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어쨌든 장화잖아.” 목소리가 말했다.

“이건—자선 단체에서 준 장화예요.” 마블 씨가 고개를 옆으로 까닥이며 못마땅한 듯 쳐다보며 말했다. “세상천지에 이보다 더 못생긴 장화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라고요, 정말이지!”

“음,” 목소리가 말했다.

“이보다 더 형편없는 장화를 신어본 적도 있죠—사실 아예 못 신어본 적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흉측한 놈은—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처음입니다. 며칠 동안 특히 장화를 얻어보려고 구걸하느라 다시피 했어요. 신고 있던 게 지긋지긋했거든요. 물론 그것들도 멀쩡하긴 했죠. 하지만 길 위를 떠도는 신사라면 제 장화를 지겹도록 들여다보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축복받은 나라를 아무리 뒤지고 다녀도 손에 넣은 거라곤 이놈들뿐이라니까요. 이것 좀 보세요! 그것도 보통은 장화 구하기 좋은 나라인데 말이죠. 그저

제 잡스러운 운이 문제인 거죠. 이 나라에서 10년 넘게 장화를 구해 신어왔는데, 돌아오는 대접이 고작 이 모양이라니요.”

“참으로 짐승 같은 나라로군.” 목소리가 말했다. “사람들은 돼지나 다름없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마블 씨가 말했다. “세상에! 저 장화 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그는 대화 상대의 장화를 비교해 보려고 고개를 오른쪽 어깨 너머로 돌렸다. 그런데 아뿔싸, 상대의 장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다리도, 장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경악의 빛에 휩싸였다.

"도대체 어디 계신 거요?"

마블 씨가 네 발로 기어오며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그의 눈앞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멀리 떨어진 초록빛 가시덤불과 텅 빈 구름지뿐이었다.

“내가 취한 건가?” 마블 씨가 말했다. “환상을 본 건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건가? 대체 이게 무슨—”

“놀라지 마시오.” 목소리가 말했다.

“내 입을 빌려 떠드는 건 이제 그만두시오!” 마블 씨가 벌떡 일어나며 쏘아붙였다. “대체 어디 있는 거요?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군!”

“놀라지 마시오.”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금방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게 될 거다, 이 멍청한 놈아.” 마블 씨가 말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네 몸에 표시라도 해둬야겠으니 가만히 있어 봐…….”

“자네, 혹시 _매장된_ 상태인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마블 씨가 물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마블 씨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재킷은 거의 벗겨지다시피 하여 몸에 간신히 걸려 있었다.

“피윳,” 아주 멀리서 피윳새 한 마리가 울었다.

“피윳이라니, 정말이지!” 마블 씨가 말했다. “지금 농담 따먹기나 할 때가 아니라고.”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들판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얇은 도랑과 흰색 경계 말뚝이 늘어선 길은 남북으로 매끄럽게 뻗어 있었으나 텅 비어 있었고, 저 피윳 새 한 마리를 제외하면 푸른 하늘 또한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다. “맹세코,” 마블 씨가 어깨 위로 코트를 다시 추스르며 말했다. “술 때문이야!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술 때문이 아니야.” 목소리가 말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침착하게 있게.”

“아악!” 마블 씨가 비명을 질렀다. 얼룩덜룩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술 때문이야!”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마블 씨는 몸을 천천히 뒤로 돌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분명히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단 말이야.” 그가 속삭였다.

“당연히 그랬겠지.”

“또 시작됐어.” 마블 씨가 눈을 감으며 비극적인 몸짓으로 이마를 짚은 채 말했다. 그 순간 누군가 마블 씨의덜미를 낚아채 격렬하게 흔들었고, 그는 이전보다 더 멍한 상태로 내팽개쳐졌다. “바보 같은 소리 마.” 목소리가 말했다.

“나도—정신이—나갔어—이런—빌어먹을,” 마블 씨가 말했다. “소용없어. 그 빌어먹을 장화 때문에 미치겠단 말이야. 나도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거나.”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말했다. “잘 들어!”

“멍청한 놈.” 마블 씨가 말했다.

“잠깐만.” 목소리가 말했다. 자제력을 유지하려는 듯 떨림이 섞여 있었으나, 그 속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요?” 마블 씨가 물었다.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가슴팍을 푹 찌른 듯한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고작 상상 속의 존재일 뿐이라고?”

“그것 말고 당신이 뭐겠소?” 마블 씨가 뒷목을 문지르며 말했다.

“좋아.” 목소리가 안도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럼 네 생각이 바뀔 때까지 부싯돌을 던져주마.”

“그런데 대체 어디 계신 거요?”

목소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때 허공에서 갑자기 부싯돌 하나가 획 하고 날아오더니, 마블 씨의 어깨를 간발의 차로 비껴갔다. 마블 씨가 뒤를 돌아보니, 부싯돌 하나가 공중으로 튀어 올라 복잡한 궤적을 그리더니 잠시 허공에 머물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그의 발치에 내동댕이쳐졌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부싯돌은 다시 획 날아와 그의 맨발가락을 맞고 튕겨 나가 도랑 속으로 처박혔다. 토마스 마블은 한 자는 족히 뛰어오르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는 막 도망치려다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더니, 머리부터 곤두박질치며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자, 이제.”

세 번째 돌이 위로 솟구치더니 부랑인의 머리 위 허공에 멈춰 섰을 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환상이라도 되는 건가?”

마블 씨는 대답 대신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애썼으나, 곧바로 다시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그는 잠시 동안 조용히 누워 있었다. “더 발버둥 친다면,” 목소리가 말했다. “네 머리에 부싯돌을 던져버리겠다.”

“좋소, 공평하군.” 마블 씨가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다. 그는 다친 발가락을 손에 쥐고 세 번째로 날아온 돌을 응시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돌맹이가 제멋대로 날아다니고, 심지어 말까지 하다니. 그냥 땅에 처박혀 썩어 없어지라고. 난 이제 끝이야.”

세 번째 부싯돌이 떨어졌다.

“아주 간단합니다.”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투명인간입니다.”

“내가 모르는 걸 말해 보라고요.” 마블 씨가 고통에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이 어디에 숨었는지, 대체 어떻게 그러는 건지, 난 도무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완전히 쫓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투명인간입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지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빌어먹게 조급하게 굴 필요는 없어요, 선생.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설명 좀 해보시죠. 도대체 어떻게 몸을 숨기고 있는 겁니까?”

“난 투명인간이야. 그게 핵심이지. 그리고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거야—”

“하지만 정확히 어디 말입니까?” 마블 씨가 말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자, 여기요! 앞쪽으로 6야드 지점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눈먼 사람인 줄 압니까? 다음번엔 그냥 공기일 뿐이라고 우기시겠구먼. 난 당신네 무식한 부랑자 중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래요, 난 실체가 없는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 몸을 통과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한테 실체란 게 도통 없단 말ियो? 보क्स 에트—그게 뭐더라?—주절주절.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죠?”

“나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몸이 실재하고, 음식과 물이 필요하며, 몸을 가릴 옷도 필요한 그런 인간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투명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투명하다고요.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투명함, 그것뿐입니다.”

“뭐라고요, 정말로요?”

“그래요, 진짜입니다.”

“당신이 정말 실재하는 사람이라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봅시다.” 마블이 말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까지 터무니없게 느껴지진 않을 테니—세상에나!” 마블이 소리쳤다.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잖아요! 그렇게 덩석 움켜쥐다니!”

그는 자유로운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목을 움켜쥔 손을 더듬었다. 겁에 질린 손가락이 팔을 타고 조심스레 올라가더니, 근육질의 가슴을 툭툭 건드리고 수염이 난 얼굴을 더듬었다. 마블의 얼굴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이런, 제기랄!” 그가 말했다. “이게 닭싸움보다 더 기막힌 일이로 군! 정말이지 놀라워! 저기 반 마일이나 떨어진 토끼가 당신 몸을 흰히 꿰뚫고 보이다니! 당신 모습은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구먼. 다만—”

그는 걸보기에 텅 빈 공간을 날카롭게 살폈다. “빵이랑 치즈는 좀 먹었나?” 그는 보이지 않는 팔을 붙잡은 채 물었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아직 그게 몸속에 완전히 소화·흡수 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아!” 마블 씨가 말했다. “그래도 일종의 유령 같은군요.”

“물론,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제 소박한 욕심을 채우기엔 아주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놀랍군요.” 마블 씨가 말했다. “대체 어떻게 해내신 겁니까! 도대체 어떤 수로 그런 일을 하신 거냐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게다가—”

“정말이지, 이 모든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마블 씨가 말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당신을 갑작스럽게 마주친 것도 바로 그 때 문입니다. 나는 분노에 미쳐 헤매고 있었습니다. 알몸인 채로, 아무것

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로 말입니다.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맙소사!” 마블 씨가 외쳤다.

“당신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망설였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마블 씨의 표정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여기,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있군.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라고 말했죠. 그래서 나는 발길을 돌려 당신에게, 바로 당신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맙소사!” 마블 씨가 외쳤다. “정신이 하나도 없군요. 실례지만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투명인간이라니요!”

“당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입을 옷과 머물 곳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외의 것들까지 말이야.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어. 만약 도와주지 않겠다면, 뭐,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당신은 도와줄 거야. 반드시 그래야만 해.”

“이보시오,” 마블 씨가 말했다. “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소. 더는 나를 밀치지 마시오. 제발 좀 놓아주시오. 마음을 좀 추스려야겠단 말이오. 발가락도 거의 부러질 뻔했소. 이 모든 게 너무나 비상식적이지요. 텅 빈 언덕에, 텅 빈 하늘뿐이지 않소. 대자연의 품 외

에는 수 마일 동안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 오다니.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 같았던 말이오! 게다가 돌멩이에, 주먹질까지! 세상에나!”

“정신 차려.” 목소리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완수해야 하니까.”

마블 씨는 불을 뱅뱅하게 부풀렸고, 눈은 동그랗게 커졌다.

“당신을 선택했소.” 목소리가 말했다. “저 아래에 있는 바보들을 제외하면, 투명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오. 당신은 나의 조력자가 되어야 하오. 나를 돕게나.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위대한 일을 해 주겠소. 투명인간은 권력을 가진 존재니까.”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동안 격렬하게 재채기를 했다.

“하지만 만약 나를 배신한다면,” 그가 말했다.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말을 멈추고 마블 씨의 어깨를 세게 툭 쳤다. 마블 씨는 그 손길에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배신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마블 씨는 손가락이 닿았던 곳에서 슬금슬금 몸을 피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당신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세상에!) 당신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X장

마블 씨의 아이핑 방문

첫 번째 돌풍 같은 공포가 찾아들자, 아이핑 마을에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회의론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 다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회의론이었으나, 어쨌든 회의론은 회의론이었다. 투명인간의 존재를 믿지 않는 편이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가 공기 중으로 녹아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그의 팔 힘을 직접 느껴본 사람은 양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목격자들 중 와저스 씨는 자기 집 문을 빗장과 창살로 굳게 걸어 잠근 채 안으로 숨어버려 보이지 않았고, 재퍼 경관은 코치 앤드 호시스(여관)의 거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경험을 초월하는 거대하고 기이한 생각은, 대개 작고 실질적인 사안들보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곤 한다. 아이핑 마을은 만국기가 걸려 축제 분위기였고, 사람들도 모두 화려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달 넘게 성령강림절 다음 월요일(백월요일)을 손꼽

아 기다려 왔다. 오후가 되자, 그가 완전히 떠나버렸으리라는 생각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던 이들조차 조심스레 각자의 소소한 놀이를 다시 즐기기 시작했고, 회의론자들 사이에서 그는 이미 우스갯거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 믿는 사람이든, 그날 하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사교적이었다.

헤이스먼의 초원은 텐트 덕분에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텐트 안에서는 번팅 부인과 다른 숙녀들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밖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목사와 커스 양, 색크벳 양의 시끌벅적한 지도 아래 달리기 경주와 놀이에 한창이었다. 공기 중에 미세한 불안감이 감돌긴 했으나,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만큼 눈치가 빨랐다. 마을 광장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경사진 밧줄 놀이가 큰 인기를 끌었다. 도르래가 달린 손잡이를 붙잡고 있으면 반대편 끝에 있는 자루 쪽으로 몸이 세차게 날아가는 놀이였다. 그 외에도 그네 타기와 코코넛 맞추기 놀이도 인기가 많았다.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작은 회전목마에 달린 증기 오르간은 기름 냄새 섞인 톱 쏘는 향기와 그만큼이나 자극적인 음악을 공중에 뿌려댔다.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클럽 회원들은 분홍색과 초록색 배지를 달아 멋을 냈고, 흥이 많은 이들은 중절모에 화려한 색 리본을 꽂아 장식하기도 했다. 휴가란 엄격해야 한다고 믿는 노인 플레처는 창가의 재스민 넝쿨 사이로든, 혹은 열린 문틈 사이로든 어디를 보아도 눈에 띄었다. 그는 의자 두 개 위에 판자를 걸쳐 놓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서서, 앞방의 천장에 흰칠을 하고 있었다.

오후 4시경, 한 낮선 이가 구릉지 쪽에서 마을로 들어왔다. 그는 키가 작고 체구가 다부진 사람이었는데, 유난히 초라한 실크햇을 쓰고 있었다. 숨이 몹시 찬 듯 보였다. 양 볼은 때로 축 늘어졌다가 다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기를 반복했다. 얼룩덜룩한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움직임은 마치 내키지 않으면서도 서두르는 듯한 기묘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교회 모퉁이를 돌아 코치 앤드 호시스(여관)로 향했다. 노인 플레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그를 보았다고 기억한다. 사실 노인은 그 남자의 특이한 불안 증세에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를 뵈는 바라보다가 붓에 묻은 석회수를 실수로 코트 소매에 흘리고 말 정도였다.

코코넛 던지기 노점 주인의 눈에는 이 낮선 이가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헉스터 씨도 같은 것을 알아챘다. 그는 '코치 앤드 호시스(여관)'의 계단 아래에서 발을 멈추었다. 헉스터 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여관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까지 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 듯 보였다고 한다. 마침내 그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고, 헉스터 씨는 그가 왼쪽으로 몸을 돌려 응접실 문을 여는 것을 목격했다. 곧이어 헉스터 씨는 방 안과 바(bar) 쪽에서 그 남자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알려주는 목소리들을 들었다. 홀 씨가 "그 방은 개인실이요!"라고 외치자, 낮선 이는 서투른 동작으로 문을 닫고 바 쪽으로 들어갔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손등으로 입술을 닦아 내며 묘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 헉스터 씨가 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꾸며낸 듯한 태도였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며 서 있더니, 이내 응접실 창문이 내다보이는 마당 문을 향해 이상하리만큼 은밀한 발걸음으

로 걸어갔다. 낮선 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기둥 중 하나에 몸을 기대고는 짧은 흡파이프를 꺼내 담배를 채워 넣을 채비를 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투른 손놀림으로 불을 붙인 뒤, 팔짱을 끼고 나른한 자세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따금 마당 쪽을 살피는 그의 눈빛은 그 나른한 태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헉스터 씨는 담배 진열창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남자의 행동이 워낙 기이했기에, 그는 계속해서 그를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낮선 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파이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마당 너머로 사라졌다. 헉스터 씨는 누군가 좀도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카운터를 뛰어넘어 도둑을 붙잡으려고 길가로 달려 나갔다. 그 순간, 마블 씨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모자를 빼딱하게 쓴 채, 한 손에는 파란 식탁보로 싼 커다란 꾸러미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책 세 권을 묶어 들고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책들은 교구 목사님의 멜빵으로 묶여 있었다. 헉스터 씨를 발견하자마자 마블 씨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급히 왼쪽으로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헉스터 씨는 "도둑이야, 멈춰!"라고 외치며 그를 뒤쫓았다.

헉스터 씨가 느낀 감각은 강렬했으나 아주 짧게 끝났다. 그는 바로 눈앞에서 교회 모퉁이를 지나 언덕길로 힘차게 질주하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저 멀리 마을의 깃발과 축제 분위기가 보였고, 누군가의

얼굴이 자신을 향해 돌아가는 것도 보였다. 그는 다시 한번 "멈춰!"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열 걸음도 채 떼기 전에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정강이를 걸려 넘어졌다. 그는 더 이상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허공을 날아오르고 있었다. 갑자기 눈앞으로 땅바닥이 들이닥쳤다. 세상이 수만 개의 회전하는 빛의 파편으로 흩어지는 듯하더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제XI장

코치 앤드 호시스(여관)에서

여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확히 이해하려면, 마블 씨가 헉스터 씨의 창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바로 그 순간, 커스 씨와 번팅 씨는 응접실에 있었다. 두 사람은 오전부터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을 진지하게 조사하는 중이었으며, 홀 부인의 허락을 받아 투명인간의 소지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재퍼 경부는 넘어졌던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뒤, 동정적인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낯선 이가 흘뜨려 놓았던 옷가지들은 홀 부인이 치웠고 방도 정돈된 상태였다. 낯선 이가 평소 작업하곤 했던 창가 쪽 탁자 위에서, 커스 씨는 거의 곧바로 '일기'라고 적힌 원고 형태의 두툼한 책 세 권을 찾아냈다.

“일기장이라니!” 커스가 세 권의 책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야 뭐라도 알 수 있겠군.” 목사는 탁자에 두 손을 얹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일기라고?” 커스가 자리에 앉으며 되물었다. 그는 두 권의 책을 받침대 삼아 세 번째 책을 그 위에 올리고는 펼쳤다. “흠, 먼지에 이름이 없군. 젠장! 암호뿐이야. 숫자들도 잔뜩 적혀 있고.”

목사가 그의 어깨 너머로 살피러 다가왔다.

커스는 갑자기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책장을 넘겼다. “이건 —세상에! 전부 암호뿐이잖아, 번팅.”

“도표는 없습니까?” 번팅 씨가 물었다. “내용을 설명해 줄 삽화도 전혀 없단 말입니까?”

“직접 보게나.” 커스 씨가 말했다. “어떤 건 수학 기호고, 어떤 건 러시아어나 그 비슷한 언어 같군(글자 모양을 보니 말이야). 또 어떤 건 그리스어고. 그런데 그리스어만큼은 자네가—”

“물론입니다.” 번팅 씨가 안경을 꺼내 닦으며 대답했다. 그는 갑자기 무척이나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딱히 내세워 이야기할 만한 그리스어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어가 분명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 줄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자네가 볼 만한 곳을 찾아 주지.”

“먼저 책들을 훑어보는 게 좋겠어.” 번팅 씨가 여전히 무언가를 닦아 내며 말했다. “먼저 전체적인 인상을 파악하고 나서, 그래, 그다음 단계에서 단서를 찾아보자고.”

그는 기침을 하더니 안경을 썼다. 안경을 아주 세심하게 고쳐 쓴 그는 다시 한번 기침을 내뿜었다.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노출의 순간을 막아줄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나서 그는 커스 씨가 건네준 책을 느긋하게 받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났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두 신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털이 달린 실크 모자 아래로 가끔씩 발그레해지는 얼굴이 보이자 그제야 안도했다. “탭인가요?” 그 얼굴이 물으며 뺨히 쳐다보았다.

“아니오.” 두 신사가 동시에 대답했다.

“반대편으로 가게나, 이 사람아.” 번팅 씨가 말했다.

“제발 그 문 좀 닫아 주게.” 커스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침입자가 말했다. 처음 물을 때의 쉼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기묘하게 낮은 목소리였다. 이어 침입자는 다시 이전의 목소리로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라고 덧붙였다. “물러나세요!” 그는 그렇게 외치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며 문을 닫았다.

“선원 같군, 내 보기엔 말이야.” 번팅 씨가 말했다. “그 친구들 참 재미있지. ‘물러서라(Stand clear)’라니! 정말이지, 방에서 나가라는 뜻으로 쓴 해상 용어겠지.”

“그렇지도 모르지.” 커스가 말했다. “오늘따라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거든. 문이 그렇게 갑자기 벌컥 열리니 정말 깜짝 놀랐네.”

번팅 씨는 마치 놀라지 않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 이제 이 책들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누군가가 코를 킁킁거렸다.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번팅이 커스 옆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아이핑에서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건 분명해요. 정말이지 기괴할 정도였죠. 물론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투명인간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믿을 수가 없군.” 커스가 말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 하지만 내가 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네. 분명히 봤단 말이야. 그 사람 소매 안쪽까지 푹푹히 봤다고!”

“하지만 정말로—확실합니까? 예를 들어 거울 같은 것 말입니다. 환각은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정말 뛰어난 마술사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군요만——”

“더는 논쟁하지 않겠네.” 커스가 말했다. “번팅, 그 문제는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런데 지금 이 책들 좀 보게. 아! 이건 내가 보기에 그리스어 같은데! 분명 그리스 문자들이야.”

그는 페이지 중간을 가리켰다. 번팅 씨는 얼굴을 약간 붉히더니 안경이 잘 안 맞는 듯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다 댔다. 그때 갑자기 뒷덜미에서 기묘한 느낌이 전해졌다. 그가 고개를 돌려 했으나, 무언가 꿈쩍도 않고 저항하며 움직임을 막아섰다. 그것은 묵직하고 단단한 손이 짊어주는 듯한 기이한 압박감이었고, 그의 턱은 저항할 새도 없이 탁자 쪽으로 짓눌렸다. “움직이지 마, 이 조그만 놈들아.” 어떤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안 그러면 둘 다 머리통을 깨버릴 테니까!” 그는 코앞까지 다가온 커스의 얼굴을 마주 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서 제 자신의 병적인 경악이 그대로 비친 듯한 공포를 읽었다.

“이렇게 거칠게 다루서 미안하군.” 목소리가 말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언제부터 조사관의 개인적인 메모를 훔쳐보는 법을 배웠나?” 목소리가 말했다. 그러자 턱 두 개가 동시에 탁자를 내리쳤고, 두 쌍의 치아가 달그락거리며 부딪혔다.

“불행에 처한 사람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법을 언제부터 배웠나?” 그 충격적인 말은 다시 한번 되풀이되었다.

“내 옷들을 어디에 둔 거야?”

"잘 들어." 목소리가 말했다. "창문은 다 잠갔고 문에서 열쇠도 빼두었어. 난 꽤 힘이 센 데다 바로 옆에 부지깥이도 있지. 게다가 난 투명하기까지 해. 마음만 먹으면 너희 둘을 죽이고도 아주 쉽게 도망칠 수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도 없지. 내 말 알아듣겠어? 좋아.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 판짓하지 않고 내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나?"

목사님과 의사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의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렇습니다." 번팅 씨가 말하자 의사도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목을 죄던 압박이 풀렸다. 의사와 목사님은 상체를 일으켜 앉았는데,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연신 흔들어들었다.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투명인간이 말했다. "보시다시피, 여기 부지깥이가 있으니까요."

"내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말이야." 투명인간이 방문객들의 코끝에 부지깥이를 차례로 들이대며 말을 이었다. "방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 게다가 내 메모장뿐만 아니라 입을 옷가지도 있을 줄 알았지. 그건 어디 있지? 아니, 일어나지 마. 이미 다 사라진 모양이군. 지금은 낮에 투명인간이 알몸으로 돌아다녀도 충분히 따뜻한 날씨지만, 저녁에는 꽤 쌀쌀하단 말이야. 난 옷도 필요하고 다른 편의도 필요해. 그리고 그 세 권의 책도 반드시 찾아야겠어."

제XII장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끊어낼 수밖에 없다. 곧 밝혀지겠지만, 거기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거실에서 이런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헉스터 씨는 대문 옆에서 파이프를 피우는 마블 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채 12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홀 씨와 테디 헨프리가 아이핑의 화두를 두고 혼란스러운 기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거실 문을 거칠게 들이받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뒤이어 정적이 찾아왔다.

“어럽쇼!” 테디 헨프리가 외쳤다.

“어럽쇼!” 탭 룸 쪽에서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홀 씨는 상황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파악해 나갔다.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데.”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카운터 뒤에서 나와 거실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와 테디 헨프리는 비장한 표정으로 함께 문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의 눈길이 문 안쪽을 살폈다. “뭔가 잘못됐어.” 홀 씨가 말하자, 헨프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불쾌한 화학 약품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문 너머에서는 아주 빠르고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괜찮으신 거요?” 홀 씨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웅성거리던 대화가 갑자기 뚝 끊겼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다 돌연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하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무언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졌고,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헨프리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거기—다들—괜찮은 거요?” 홀 씨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물었다.

목사의 목소리가 기묘하게 끊기는 어조로 대답했다. “그, 그렇습니다. 제발—말을 끊지 마십시오.”

“이상하군!” 테디 헨프리가 말했다.

“이상하군.” 홀 씨가 말했다.

“말하기를, ‘말 끊지 마시오’라고 했다니깐요.” 헨프리가 말했다.

“나도 들었소.” 홀 씨가 말했다.

“코를 킁킁거리기도 하고요.” 헨프리가 말했다.

그들은 계속 귀를 기울였다. 대화는 빠르고도 낮게 오갔다. "전 못 합니다." 번팅 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전 절대 못 합니다."

“방금 그게 뭐였지?” 헨프리가 물었다.

“안 하겠다는데.” 홀 씨가 말했다. “우리한테 한 말은 아니었지, 안 그래요?”

“정말 수치스럽군!” 번팅 씨가 안에서 외쳤다.

“수치스러운 일이야.” 테디 헨프리가 말했다.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똑똑히 들었다고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헨프리가 물었다.

“커스 씨겠지요.” 홀 씨가 말했다. “뭐, 좀 들리는 거라도 있소?”

정적만이 감돌았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형체를 알 수 없이 모호하고 어지러웠다.

“식탁보를 휘두르는 소리 같군.” 홀 씨가 말했다.

홀 부인이 바 뒤편에서 나타났다. 홀은 조용히 하라는 몸짓과 함께 들어오라는 손짓을 보냈다. 그러자 홀 부인은 아내로서 가만히 있지 못

하고 반발했다. “홀, 거기서 뭘 그렇게 듣고 있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이렇게 바쁜 날에,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

홀은 얼굴을 찡그리거나 몸짓을 해가며 어떻게든 뜻을 전달하려 애썼지만, 홀 부인은 요지부동이었다. 부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홀과 헨프리는 맥이 풀린 채 발꿈치를 들고 바 쪽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면서도 부인에게 설명하려는 듯 계속해서 손짓을 해댔다.

처음에 그녀는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다 헨프리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에는 홀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녀는 이 모든 소동이 그저 가구를 옮기는 정도의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내가 그자가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어. 정말 들었다니까.” 홀 씨가 말했다.

“그건 제가 들은 말입니다, 홀 부인.” 헨프리가 말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홀 부인이 말을 시작했다.

“췌!” 테디 헨프리가 말했다. “방금 창문 소리 안 들렸어요?”

“무슨 창문 말씀이세요?” 홀 부인이 물었다.

“거실 창문 말입니다.” 헨프리가 말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홀 부인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눈앞의 풍경은 보이지 않았다. 여관 문이 만드는 눈부신 직사각형의 빛무리도, 하얗고 선명하게 뻗은 도로도, 6월의 태양 아래 달귀

진 헉스터의 가게 앞모습도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헉스터의 가게 문이 벌럭 열리더니 헉스터가 나타났다. 그는 흥분으로 눈을 부릅뜬 채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이봐!” 헉스터가 외쳤다. “도둑이야!” 그는 빛이 쏟아지는 길을 가로질러 마당 문 쪽으로 비스듬히 달려가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거실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을 닫는 소리도 함께 울려 퍼졌다.

홀 씨와 헨프리, 그리고 탭 룸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우르르 거리로 뛰쳐나갔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길 쪽으로 모퉁이를 돌아 휙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헉스터 씨가 공중에서 복잡하게 도약하다 결국 얼굴과 어깨부터 바닥에 처박히는 모습도 보았다. 거리 저편에는 사람들이 놀란 채 서 있거나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헉스터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헨프리는 이를 살피려 발을 멈췄으나, 홀 씨와 탭 룸에서 온 일꾼 두 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내지르며 즉시 모퉁이로 달려갔고, 교회 담장 모퉁이 너머로 마블 씨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이자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투명한 간이라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린 듯, 곧장 오솔길을 따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홀 씨는 채 열두 야드도 가지 못해 경악하며 큰 소리를 질렀고, 옆으로 휙 나동그라지며 일꾼 한 명을 붙잡고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들이받듯 누군가에게 정통으로 부딪힌 것이다. 두 번째 일꾼은 빙글 돌아 그쪽을 바라보았다. 홀 씨가 제

풀에 발이 꼬여 넘어진 것이라 여긴 그는 다시 추격에 나서려 했으나, 헉스터 씨가 그랬던 것처럼 발목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뒤이어 첫 번째 일꾼이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하자, 황소도 쓰러뜨릴 법한 강력한 발길질이 그를 옆으로 걷어찼다.

그가 나가떨어질 때, 마을 공터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모퉁이를 돌아 몰려왔다.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파란 저지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코코넛 던지기 게임 주인이었다. 그는 세 남자가 우스꽝스럽게 나뒹굴고 있을 뿐 텅 빈 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 그의 맨 뒷발에 무언가 걸렸고, 그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옆으로 굴렀다. 하필 뒤따라 고꾸라지던 그의 형제이자 동업자의 발을 스치고 말았다. 뒤이어 성급하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이 두 사람을 걷어차고, 무릎으로 짓누르고, 걸려 넘어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홀 씨와 헨프리, 그리고 일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수년간의 경험으로 단련된 홀 부인은 계산대 옆 바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커스 씨가 나타났다. 그는 홀 부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모퉁이를 향해 계단을 단숨에 뛰어 내려갔다. “저자를 붙잡아요!” 그가 외쳤다. “저자가 그 꾸러미를 떨어뜨리게 두면 안 돼요!”

그는 마블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투명인간이 마당에서 책과 꾸러미를 마블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이다. 커스 씨의 얼굴은 분노와 결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나, 그가 걸친 옷차림은 엉망이었다. 그리스

에서나 통할 법한 흐물흐물한 흰색 킨트 같은 것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놈을 잡아라!” 그가 고함을 질렀다. “저놈이 내 바지를 가져갔어! 목사님 옷도 한 벌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고!”

“잠시만 저 사람 좀 돌봐줘요!”

그는 쓰러져 있는 헉스터를 지나치며 헨프리에게 소리쳤다. 그리고는 소란스러운 현장으로 합류하려고 모퉁이를 돌아 들어갔으나, 곧바로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져 보기 흉하게 나동그라졌다. 도망치던 누군가가 그의 손가락을 세게 짓밟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 쳤지만, 사람들에게 치여 다시 네 발로 땅을 짚고 고꾸라졌다. 그제야 그는 지금 벌어지는 일이 누군가를 붙잡는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도망치는 난장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모두 마을을 향해 달아나고 있었다.

그가 다시 몸을 일으켰을 때, 누군가 그의 귀 뒷부분을 세게 때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즉시 코치 앤드 호시스(여관)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가는 길에 이제 막 몸을 일으켜 앉아 있는 헉스터를 훌쩍 뛰어넘으며 그는 서둘러 움직였다.

여관 계단을 절반쯤 올라갔을 때, 등 뒤에서 갑작스러운 분노의 비명이 들려왔다. 그 비명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던 소란을 뚫고 날카롭게 치솟았고, 뒤이어 누군가의 얼굴을 철썩 내리치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그 목소리가 투명인간의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타격에 격분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잠시 후, 커스 씨가 다시 거실로 뛰어 들어왔다. "번팅, 그자가 돌아오고 있어!" 그가 다급히 외쳤다. "어서 도망쳐!"

번팅 씨는 창가에 서서 벽난로용 카펫과 《웨스트 서리 가제트》 신문으로 몸을 감싸려 애쓰고 있었다. "누가 오는 건가요?"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그 바람에 그가 걸치고 있던 옷이 하마터면 다 풀어헤쳐질 뻔했다.

“투명인간이야!” 커스가 외치며 창가로 달려갔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해! 그놈은 미쳐버렸어! 완전히 미쳤다고!”

잠시 후, 그는 마당으로 나갔다.

“세상에나!” 번팅 씨가 두 가지 끔찍한 선택지 사이에서 망설이며 외쳤다. 여관 복도에서 무시무시한 몸싸움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창문 밖으로 기어 나가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짧고 통통한 다리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마을 위쪽으로 도망쳤다.

투명인간이 분노에 차 비명을 지르고 번팅 씨가 마을을 향해 줄행랑을 친 그 순간부터, 아이핑에서 벌어진 일들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아마도 투명인간의 원래 의도는 마블이 옷과 책을 챙겨 도망치는 것을 돕는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도 성미가 그리 좋지 못했던 그는,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인해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는 그저 남을 해치는 데서 오는 쾌락을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뒤엎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문이 쿵쿵 닫히며, 몸을 숨길 곳을 찾아 다투는 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 소란이 플래처 영감의 판자와 의자 두 개가 위태롭게 이루고 있던 평형 상태를 순식간에 뒤흔들며 빔어낸 대재앙 같은 광경도 그려보라. 그 와중에 그네에 매달린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갇혀버린 한 쌍의 남녀도 떠올려 보라.

그 격렬한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뒤, 화려한 장식과 깃발로 꾸며졌던 아이핑의 거리는 적막에 잠긴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날뛰고 있을 뿐, 거리에는 코코넛과 쓰러진 천막, 그리고 사탕 가게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이다. 어디를 가든 덧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는 소리만 들려온다. 창문 구석, 치켜 올라간 눈썹 아래로 가끔씩 스치듯 움직이는 눈동자만이 이 거리의 유일한 인적이다.

하지만 아이핑 거리의 황량한 정적 속으로 다시 발을 내디딜 용기를 내는 사람은, 두 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제XIII장

마블 씨가 사직에 대해 이야기하다

황혼이 깔리고, 공휴일의 소란이 휩쓸고 간 아이핑 마을이 조심스레 다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브램블허스트로 이어지는 길 위, 너도밤나무 숲 뒤편으로 낡은 실크 모자를 쓴 키가 작고 체격이 단단한 남자가 황혼을 가르며 고통스럽게 발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장식용 고무줄로 묶어놓은 책 세 권과 파란색 식탁보로 감싼 꾸러미 하나를 들고 있었다. 붉게 상기된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피로가 역력했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경련하듯 서둘러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그의 곁에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따라붙었으며, 그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닿을 때마다 연신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또다시 나를 따돌리려 한다면,” 목소리가 말했다. “만약 또다시 나를 따돌리려 한다면—”

“맙소사!” 마블 씨가 말했다. “그 어깨만 해도 이미 멍투성이 아닙니까.”

“내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말했다. “당신을 죽이겠다.”

“도망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블 씨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맹세컨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놈의 갈림길을 몰랐을 뿐이에요! 도대체 그 갈림길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덕분에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이 얻어맞게 될 거요.” 목소리가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블 씨는 돌연 입을 다물었다. 그는 불을 부풀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이 미련한 시골뜨기들이 내 비밀을 까발리는 것도 모자라, 당신까지 내 책들을 챙겨 달아나다니 정말 최악이군. 그놈들이 제때 도망치게 천만다행이야! 나는 여기 이렇게 남겨졌는데…… 아무도 내가 투명인간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다! 이제 난 대체 어찌란 말인가?”

“난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마블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 퍼졌어. 신문에도 다 실릴 거야! 사람들이 전부 나를 찾아 헤맬 거고, 모두가 경계하겠지—” 목소리는 거친 욕설로 이어지다 이내 뚝 끊겼다.

마블 씨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더욱 짙게 깔렸고, 발걸음은 점차 느려졌다.

“계속해!” 목소리가 말했다.

마블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른 부분 사이사이로 잿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책들 떨어뜨리지 마, 이 바보야.” 목소리가 그를 따라잡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사실은 말이야.” 목소리가 말했다. “자네를 이용해야겠어. 자네가 보잘것없는 도구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전 정말 비참한 도구일 뿐입니다.” 마블이 말했다.

“그래, 맞아.” 목소리가 말했다.

“전 당신에게 가장 쓸모없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블이 말했다.

“전 강하지 않습니다.” 낙담한 듯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몸이 그리 튼튼한 편은 아닙니다.” 그가 다시 한번 말했다.

“아니라고요?”

“심장이 약해졌어요. 그 작은 일 말이에요. 물론 어떻게든 헤쳐 나가긴 했지만, 세상에! 정말 쓰러질 뻔했다니까요!”

“그래서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해낼 배짱도, 기력도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자극해 주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망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순전히 겁에 질리고 비참한 나머지—그렇게 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마블이 말했다.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당신도 인정해야 할 겁니다. 내게도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 같은 말입니다——”

“어서 가!” 목소리가 외쳤다.

마블 씨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정말이지 지독하게 어렵군요.” 마블 씨가 말했다.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내가 그걸 해서 얻는 게 대체 뭐냐고!” 그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다시 말을 내뱉었다.

“아, 입 좀 닥쳐!”

목소리가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힘을 주어 외쳤다.

“내가 알아서 잘 챙겨 줄 테니, 넌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잘 해낼 거다. 넌 바보에 어찌고저찌고하지만, 그래도 쓸 만한 할 거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손님. 저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외람된 말씀이지만—정말로 그렇단 말입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손목을 다시 비틀어 버리겠어.” 투명인간이 말했다. “생각 좀 하자고.”

이윽고 나무 사이로 노란 빛을 내뿜는 직사각형 모양의 불빛 두 개가 나타났고, 어스름 속에서 교회의 사각형 탑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을 지나는 동안 내내 네 어깨에 손을 얹고 있을 거다.” 목소리가 말했다. “똑바로 걸어가기나 해.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고. 만약 까불다가는 너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 말은 저도 압니다.” 마블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요.”

얇은 실크 모자를 쓴 불행해 보이는 형체가 짐을 짊어진 채 작은 마을의 거리를 지나갔다. 그리고는 창밖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 너머,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제XIV장

포트 스토크에서

다음 날 오전 10시, 포트 스토크 외곽의 작은 여관 앞 벤치에는 마블 씨가 앉아 있었다. 수염은 깎지 않아 덩수룩했고, 물결은 지저분한 데다 여행의 먼지까지 뒤집어쓴 상태였다. 그는 옆에 책들을 둔 채 양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있었다. 몹시 지치고 초조해 보이는 그는 간간이 볼을 부풀리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옆에 놓인 책들은 이제 끈으로 묶여 있었다. 투명인간이 계획을 바꾸는 바람에, 보따리는 브램블허스트 너머 소나무 숲에 버려두고 온 터였다. 마블 씨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그의 불안함은 열병이라도 앓는 듯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묘하게 초조한 손놀림으로 자꾸만 여기저기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가 한 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였다. 신문을 든 한 노년의 선원이 여관에서 나오더니 그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날씨가 참 좋구려.” 선원이 말했다.

마블 씨는 공포에 질린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맘때면 흔히 겪는 날씨지.” 선원이 대꾸를 듣지도 않고 말했다.

“그렇고말고요.” 마블 씨가 말했다.

선원은 이쑤시개를 꺼내더니, 한동안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눈길만은 예외였지만. 그사이 선원의 눈은 마블 씨의 먼지투성이 몸과 그 옆에 놓인 책들을 여유롭게 훑었다. 마블 씨에게 다가갈 때, 선원은 마치 주머니 속으로 동전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마블 씨의 초라한 행색과 방금 떠올린 부유함의 암시 사이의 괴리감에 선원은 내심 놀랐다. 그러다 그의 생각은 다시금 기묘할 정도로 강렬하게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화제로 흘러갔다.

“책이라고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그는 이쑤시개를 요란하게 사용하며 말을 마쳤다.

마블 씨는 깜짝 놀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 네.” 그가 말했다. “네, 책입니다.”

“책에는 참으로 기이한 것들이 담겨 있지요.” 선원이 말했다.

“믿습니다.” 마블 씨가 말했다.

“거기서 아주 기이한 것들도 좀 건져 올렸지.” 선원이 말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마블 씨가 말했다. 그는 대화 상대를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예를 들어, 신문에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실리기도 하지요.” 선원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신문 말입니다.” 선원이 말했다.

“아!” 마블 씨가 말했다.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선원이 마블 씨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단호하고 신중한 눈빛으로 말했다. “예를 들면, 투명인간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 말입니다.”

마블 씨는 입술을 비뚤게 일그러뜨리며 뺨을 긁었다. 귀가 화끈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다음엔 또 뭐라고 쓰려나?"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스트리아인가, 아니면 미국인가?"

“둘 다 아닙니다.” 선원이 말했다. “바로 _여기_입니다.”

“세상에!” 마블 씨가 깜짝 놀라며 외쳤다.

“내가 ‘여기’라고 말할 때는,” 선원이 말했다. 그 말에 마블 씨는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물론 지금 있는 이 지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말하는 거라네.”

“투명인간이라니!” 마블 씨가 말했다. “도대체 그자가 그동안 뭘 하고 다녔단 말입니까?”

“전부 다.” 선원이 마블을 눈빛으로 제압하며 말했다. 그러고는 목 소리를 높여 덧붙였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이야.”

“요 나흘 동안 신문 한 장 구경도 못 했습니다.” 마블이 말했다.

“그가 처음 나타난 곳은 아이핑이라네.” 선원이 말했다.

“정말로요!” 마블 씨가 말했다.

“그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여기 보세요. ‘아이핑에서 전해진 기이한 이야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게다가 이 신문에는 증거가 아주, 아주 강력하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이지 믿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세상에!” 마블 씨가 외쳤다.

“그게 말이죠, 정말이지 기가 막힌 이야기라니까요. 목사님하고 의사 선생님이 증인으로 있어요. 그 양반들이 똑똑히 봤다니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봤다고 해야 하나. 기록에 따르면 그 양반은 ‘코치 앤드 호시스(여관)’에 머물렀다는데, 여관에서 말다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양반의 불행을 눈치채지 못했대요. 말다툼 끝에 머리에 감고 있던 붕대가 풀려버렸는데, 그때서야 머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는 겁니다. 즉시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격렬한 몸싸

움이 있었대요. 그 바람에 우리 마을의 유능하고 훌륭한 경관인 J. A. 재퍼스 씨가 아주 크게 다치고 말았고요. 아주 확실한 이야기죠, 안 그래요? 이름까지 다 나온다니깐요.”

“세상에!” 마블 씨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외쳤다. 그는 눈을 쓰지 않고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주머니 속의 돈을 세어보려 애쓰는 동시에, 생전 처음 겪는 기묘하고도 낯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요. 제 말은, 정말이지 기이하다는 겁니다. 투명인간이라니, 살다 살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워낙 별의별 기이한 일들이 다 일어나니—그게—”

“그게 전부인가요?” 마블 씨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안 그래?” 선원이 말했다.

“혹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나요?” 마블 씨가 물었다. “그저 도망친 것뿐인가요, 그게 전부인가요?”

“전부 다요!” 선원이 말했다. “아니, 그게 다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만하면 됐습니다.” 마블이 말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네.” 선원이 말했다. “충분하고말고.”

“그 사람한테 친구 같은 건 없었잖아요. 아무리 봐도 친구가 있었다는 말은 없지 않나요?” 마블 씨가 초조한 듯 물었다.

“그런 놈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 선원이 물었다. “아니, 다행히도, 말하자면, 그에게는 친구 같은 건 없었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놈이 이 시골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이지 불안해 죽겠소! 지금 그놈은 도주 중인데, 확실한 증거를 보니 포트 스토헤드 쪽으로 길을 잡았다고—아니, 그렇게 갔다는 뜻이겠지—하더군. 보시다시피 우린 완전히 그놈 사정권 안에 들어온 셈이오! 이번에는 당신네 미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란 말이오. 그놈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한번 생각해보시오! 만약 그놈이 술이라도 한잔 걸치고는 당신을 해치고 싶어지면, 당신은 어디로 도망치겠소? 도둑질이라도 하려 들면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이오?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빈집을 털고, 경찰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도 눈먼 사람을 따돌리는 것보다 훨씬 쉽게 그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오! 아니, 훨씬 더 쉽겠지! 듣기로는 여기 눈먼 사람들이 청력만큼은 아주 예민하다고 하니 말이오. 게다가 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놈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에게 분명 엄청난 이점이 있긴 합니다.” 마블 씨가 말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선원이 말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놈한테는 그런 이점이 있단 말이오.”

그동안 마블 씨는 주변을 유심히 살피며 아주 미세한 발소리라도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움직임이라도 포착하려는 기색이었다. 그는 마치 중대한 결심이라도 내리려는 듯 보였다. 마블 씨는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헛기침을 했다.

그는 다시 주위를 살피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선원 쪽으로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사실은 말이지요. 내가 이 투명인간에 대해 한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 선원이 흥미롭다는 듯 말했다. “당신이었소?”

“맞습니다.” 마블 씨가 말했다. “바로 저예요.”

“정말 그렇군요!” 선원이 말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블 씨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말했다. “정말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정말이지요!” 선원이 말했다.

“사실은 말입니다.” 마블 씨가 은밀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을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기이하게 변했다. “아악!” 그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리에서 뻗뻗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육체적 고통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으악!” 그가 다시 소리쳤다.

“무슨 일인가?” 선원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치통이 있어서요.” 마블 씨가 귀에 손을 갖다 대며 말했다. 그는 책을 움켜쥐었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군요.” 마블 씨가 덧붙였다. 그는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듯 의자 위에서 묘한 동작으로 몸을 비켜 앉았다. “하지만 방금 그 투명인간에 대해 이야기해주려던 참 아니었소!” 선원이 항의했다. 마블 씨는 잠시 스스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날조예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날조라고요.” 마블 씨가 말했다.

“하지만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원이 말했다.

“어쨌든 다 속임수예요.” 마블이 말했다. “그 거짓말을 시작한 놈이 누군지 난 안다고요. 투명인간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세상에나.”

“그런데 이 신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마—?”

“거기 적힌 건 한 마디도 사실이 아닙니다.” 마블이 단호하게 말했다.

선원은 손에 종이를 든 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블 씨는 움찔하며 몸을 돌렸다. 선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잠깐만 기다려 보게. 지금 그게— 무슨 뜻인가?”

“그렇습니다.” 마블 씨가 말했다.

“그럼 왜 내가 이딴 지긋지긋한 소리를 계속 늘어놓게 내버려 둔 거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보 꼴이 나게 만들면서 대체 무슨 생각이었냐고! 어?”

마블 씨가 불을 부풀렸다. 선원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갳게 달아오르더니 주먹을 짝 쥐었다. “내가 여기서 십 분 동안이나 떠돌고 있었는데,” 그가 말했다. “너 같은 배 나오고 얼굴이 가죽처럼 쭈글쭈글한 고약한 놈은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단 말이나—”

“나한테 말대꾸하지 마!” 마블 씨가 말했다.

“말다툼이라니! 정말이지 한 대 갈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단 말이야—”

“이리 와.”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마블 씨는 갑자기 몸이 휙 돌아가더니, 기묘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걸음걸이로 행진하듯 걷기 시작했다.

“그냥 가버리는 게 좋을 거야.” 선원이 말했다.

“누가 간다는 겁니까?” 마블 씨가 되물었다.

그는 기묘하게 서두르는 걸음걸이로 비스듬히 물러나고 있었는데, 이따금 몸을 앞으로 거칠게 휙 젖히기도 했다. 길을 따라 한참을 가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항의와 비난이 섞인 독백이었다.

“이 어리석은 놈!”

선원은 다리를 넓게 벌리고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멀어져 가는 형체를 지켜보며 외쳤다.

“어디 두고 보자, 이 열간이 같은 놈! 감히 나를 속여? 여기 있잖아, 이 종이 위에!”

마블 씨는 횡설수설하며 대꾸하더니, 뒤로 물러나다가 길의 굽이진 곳 너머로 사라졌다. 하지만 선원은 길 한복판에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러다 정육점 수레 한 대가 다가오자 그제야 자리를 비켰다. 그리고는 포트 스토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별난 멍청이들뿐이군.” 그가 혼잣말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나를 좀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그 바보 같은 수작 말이야. 이걸 신문에 띄하니 실려 있다고!”

그가 곧 듣게 될 또 다른 기이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있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세인트 마이클 가(街) 모퉁이 벽을 따라, 눈에 보이는 움직임도 없이 '한 움큼의 돈'이 스스로 움직이는 환영을 보았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아침, 한 선원이 이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즉시 그 돈을 낚아채려 달려들었으나, 그 반동으로 머리부터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가 다시 몸을 일으켰을 때, 나비처럼 가볍게 움직이던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는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이번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이 사건을 곰곰이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날아다니는 돈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그날 그 일대에서는, 심지어 위엄 있는 런던 앤드 컨트리 은행에서부터 햇살이 내리쬐는 날

씨에 문을 활짝 열어둔 상점과 여관의 금고에 이르기까지, 돈이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돈은 한 움큼씩 혹은 돌돌 말린 뭉치로 벽을 타고 그늘진 곳을 따라 조용히 흘러갔으며, 사람들의 눈길이 다가오면 재빨리 몸을 숨겼다. 비록 그 누구도 돈의 뒤를 쫓지는 못했지만, 이 신비로운 도주극은 예외 없이 한 곳에서 끝을 맺었다. 바로 포트 스토크 외곽의 작은 여관 밖에 앉아 있는, 낡은 실크 모자를 쓴 초조한 기색의 신사, 그 남자의 주머니였다.

그 일이 있는 지 열흘이 지나서야,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버독의 이야기가 이미 옛날이야기처럼 시들해질 무렵에야 그 선원은 이 사실들을 대조해 보았다. 그리하여 자신이 그 경이로운 투명인간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제XV장

달려가던 사내

초저녁 무렵, 캠프 박사는 버독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벨베데레(전망대)에 있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북쪽, 서쪽, 남쪽으로 난 세 개의 창문이 있는 그 작은 방은 아늑하고 쾌적했다. 방 안에는 책과 과학 학술지들이 가득 꽂힌 책장과 넓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북쪽 창가 아래에는 현미경과 슬라이드 글라스, 정밀 기구들, 배양액,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시약병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노을빛이 여전히 밝게 남아 있었지만, 캠프 박사는 태양등을 켜 두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만한 사람도 없었기에 블라인드는 올려둔 상태였다. 캠프 박사는 키가 크고 날렵한 체격의 젊은이였다. 아마빛 머리카락에 거의 백색에 가까운 콧수염을 기른 그는, 지금 몰두하고 있는 연구가 왕립학회 회원 자격을 얻게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만큼 그는 왕립학회라는 명예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작업하던 일에서 잠시 눈을 돌렸다. 그러다 마침 눈앞의 언덕 너머로 타오르는 노을을 발견했다. 그는 입에 펜을 문 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능선 위로 펼쳐진 풍성한 황금빛을 감상하던 그의 시선은, 이내 언덕 능선을 따라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검은 점 같은 작은 인영에 머물렀다. 그는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작은 체구에 높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다리가 번쩍거릴 정도였다.

“또 그런 바보들 중 하나군요.” 캠프 박사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도 모퉁이를 돌다 저와 부딪힌 그 멍청이 같으니라고. ‘투명인간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13세기에 살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어두한 산비탈과 그 아래를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가는 검은 형체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무척 서두르는 것 같긴 한데,” 캠프 박사가 말했다. “진척이 없어 보이는군요. 주머니에 납덩이라도 가득 채운 것처럼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박사님.” 캠프 박사가 말했다.

잠시 후, 버둑에서 언덕 위로 다닥다닥 붙어 올라온 빌라 중 높은 건물이 달리는 형체를 가렸다. 그는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사라지

기를 반복했다. 이어지는 세 채의 단독 주택 사이로 세 번 정도 보였다가, 이내 테라스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다.

“멍청한 놈들!” 캠프 박사가 쏘아붙였다. 그는 발길을 돌려 다시 책상으로 걸어갔다.

도망자를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은 달랐다. 길 한복판에 있던 그들은 땀에 젖은 남자의 얼굴에 서린 비굴할 정도의 공포를 알아차렸고, 그리하여 박사가 느낀 경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남자는 그들 곁을 쿵쿵거리며 내달렸고, 달리는 동안 마치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득 찬 지갑처럼 찢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남자는 좌우를 살피지도 않은 채, 확장된 눈동자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저 아래 언덕길만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뒤틀린 입은 벌어져 있었고, 입술에는 번들거리는 거품이 맺혔으며, 거칠고 소란스러운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가 지나치는 사람마다 발을 멈추고 길 위아래를 두리번거렸고, 그가 왜 저토록 다급한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서로에게 캐물었다.

그러다 잠시 후, 언덕 위 멀리서 길에서 놀던 개 한 마리가 짹짹거리며 대문 밑으로 달아났다. 그들이 여전히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무언가가—바람 같기도 하고, 탁, 탁, 탁 하는 발소리 같기도 하고, 헐떡이는 숨소리 같기도 한 무언가가—곁을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은 보도 위에서 튀어 올랐다. 비명은 함성이 되어 언덕 아래로 본능적으로 번져 나갔다. 마블이 길 중간쯤 가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사람들

은 소식을 접하자마자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쿵 닫아걸었다. 마
블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질주했다. 공포가
그를 앞질러 달려 나가더니,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다.

“투명인간이 온다! 투명인간이 온다!”

제XVI장

「줄리 크리케터스」에서

'줄리 크리케터스' 여관은 전차 선로가 시작되는 언덕 바로 아래에 있다. 바텐더는 기름지고 붉은 팔을 카운터에 기댄 채, 안색이 창백한 마부와 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회색 옷을 입고 검은 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비스킷과 치즈를 급히 집어 먹으며 버터 맥주를 마셨다. 그는 비번인 경찰관과 미국식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대체 왜 저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안색이 창백한 마부가 갑자기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그는 여관의 낮은 창문에 달린 때 묻은 노란 블라인드 너머로 언덕 위 상황을 살피려 애썼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불이라도 난 모양이군.” 바텐더가 말했다.

무거운 발소리가 달려오는 듯 다가오더니,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다. 마블이 울먹이며 형클어진 모습으로 뛰어 들어왔다. 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코트 깃은 찢겨 있었다. 그는 몸을 격하게 돌리며 문을 닫으려 애썼다. 문은 끈에 걸려 반쯤 열린 채 매달려 있었다.

“와요! 그가 온다고요!” 그가 고함을 질렀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그가 오고 있어요. 투명인간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요! 제발, 세상에!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도와달라고요!”

“문 닫아!” 경찰관이 외쳤다. “누가 오는 거야? 무슨 소란이지?” 그는 문으로 다가가 잠금띠를 풀었다. 그러자 문이 쿵 하고 닫혔다. 미국인은 다른 쪽 문을 닫았다.

“안으로 들여보내 줘요.” 마블이 책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울먹였다. “제발 안으로 들여보내 줘요. 어디든 좋으니 나를 가둬 줘요. 정말이라니까요, 그가 나를 쫓고 있어요. 겨우 따돌리긴 했지만, 그가 나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죽일 거라고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검은 수염을 기른 남자가 말했다. “문도 닫혔으니 걱정 마십시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안으로 들여보내 줘요!” 마블이 소리쳤다. 그러더니 갑자기 쿵 하고 문을 내리치는 소리에 문짝이 파르르 떨리자, 그는 비명을 내질렀다. 문밖에서는 다급한 두드림과 고함이 이어졌다. “거기 누구냐!” 경찰관이 외쳤다. 마블은 문처럼 보이는 판자들을 미친 듯이 헤집으며 탈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날 죽일 거야. 칼 같은 걸 들고 있다고. 제발, 맙소사!”

“여기 있습니다.” 바텐더가 말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그러고는 그는 바의 가림막을 들어 올렸다.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마블 씨는 카운터 뒤로 급히 몸을 숨겼다. “문 열지 마세요!” 그가 비명을 질렀다. “제발 문을 열지 마세요. 대체 어디에 숨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럼, 이 투명인간이라는 자가 바로 그놈이란 말인가?” 검은 수염을 기른 남자가 한 손을 뒤로 뺀 채 물었다. “이제 슬슬 그자를 직접 대면해 볼 때가 된 것 같군.”

여관 창문이 갑자기 박살 났고, 거리에서는 비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란이 일었다. 경찰관은 소파 위에 서서 문 앞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목을 길게 빼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소파에서 내려왔다. “저것 때문이군요.” 그가 말했다. 바텐더는 마블 씨가 안에 갇힌 채 문이 잠겨버린 술집 안쪽 방 문 앞에 서서, 박살 난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른 두 남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순식간에 사방이 고요해졌다. 경찰관은 망설이며 문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경찰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군. 문을 여는 순간 그놈이 들이닥칠 거야. 막을 방법이 없어.”

“그 문을 너무 서둘러 열지는 말아 주십시오.” 안색이 창백한 마부가 불안한 듯 말했다.

“빗장을 풀어라.” 검은 수염을 기른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자가 오면—” 그는 손에 든 권총을 들어 보였다.

“그건 안 됩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그건 살인이예요.”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와 있는지는 잘 안다.” 수염을 기른 남자가 말했다. “놈의 다리를 향해 쏘겠다. 빗장을 풀어라.”

“내 뒤에서 그 망할 물건이 터지는 판에는 안 됩니다.” 바텐더가 블라인드 너머로 고개를 길게 빼며 말했다.

“좋소.” 검은 수염을 기른 남자가 말했다. 그는 권총을 준비한 채 몸을 숙여 직접 빗장을 풀었다. 바텐더와 마부, 그리고 경찰이 일제히 몸을 돌렸다.

“들어오게.”

수염을 기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뒤로 물러나 빗장을 풀지 않은 문을 마주 보고 서 있었으며, 등 뒤에는 권총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문은 굳게 닫힌 채 그대로였다.

5분이 흐른 뒤, 두 번째 마부 한 명이 조심스레 머리를 들이밀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때 바와 거실 사이에서 초조한 기색의 얼굴 하나가 쑥 나타나 상황을 전했다.

“집 안의 모든 문은 다 잠갔나?” 마블이 물었다.

“그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몰래 살금살금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정말 악마처럼 교활한 자예요.”

“세상에나!” 건장한 체격의 바텐더가 외쳤다. “뒤쪽도 있잖아! 저 문들을 잘 봐! 이보게, 세상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위를 두리번 거렸다. 그때 바 안쪽 응접실 문이 쿵 닫히더니,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당 문이랑 개인용 출입문이 있어. 마당 문이—”

그는 술집에서 급히 뛰쳐나갔다.

잠시 후, 그는 손에 고기 찌는 칼을 든 채 다시 나타났다. “마당 문이 열려 있었어!” 그가 말하며 두툼한 아랫입술을 떨구었다. 그러자 첫 번째 마부 가 말했다. “그자가 지금 집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방에는 없어요.” 바텐더가 말했다. “여자 두 명이 거기 있는데, 제가 이 작은 고기 찌는 칼로 구석구석 다 찢어봤거든요. 그런데도 그 여편네들은 그가 들어온 줄도 모르더군요.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그 문은 잠갔습니까?” 첫 번째 마부가 물었다.

“가운이 다 떨어졌습니다.” 바텐더가 말했다.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권총을 다시 집어넣었다. 그와 동시에 술집의 가림막이 내려오며 빗장이 철컹 소리를 내며 잠겼다. 이어 문고리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술집 안쪽 방으로 통하는 문이 쿵 하고 열

렸다. 마블 씨가 마치 뒷에 걸린 새끼 산토끼처럼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은 즉시 그를 구하기 위해 술집 카운터 너머로 몸을 날렸다.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권총을 발사하자, 방 안쪽의 거울이 거미줄처럼 금이 가더니 산산조각이 나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바텐더가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블이 이상하게 몸을 웅크린 채 마당과 주방으로 이어지는 문을 붙잡고 버둥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바텐더가 주춤하는 사이 문이 벌럭 열렸고, 마블은 주방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비명 소리와 함께 냄비들이 요란하게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블은 고개를 숙인 채 끈질기게 뒤로 물러나려 버텼으나, 결국 주방 문 앞까지 밀려났고 문빋장은 걸어 잠겼다.

그때 바텐더를 지나쳐 들어가려던 경찰관이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왔다. 마블을 붙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손을 뉘아채려던 경찰관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에 얼굴을 얻어맞고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뒤이어 마부 한 명도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 마블은 문 뒤로 몸을 숨기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이어 마부가 무언가를 덥석 붙잡았다. "잡았다!" 마부가 외쳤다. 그러자 바텐더가 붉게 달아오른 손을 뻗어 보이지 않는 형체를 할퀴듯 움켜쥐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바텐더가 소리쳤다.

풀려난 마블 씨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싸우는 사람들 다리 사이로 기어 들어가려 애를 썼다. 몸싸움은 문가 주변에서 뒤엉키며 어지럽게 이어졌다. 그때 투명인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왔다. 경찰관에게 발을 밟힌 그가 날카롭게 비명을 지른 것이다. 이어 투명인간은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며 타작할 때 쓰는 도리깨처럼 주먹을 휘둘러댔다. 마부는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다. 횡격막 아래를 걷어차인 것이다. 주방에서 바 안쪽 방으로 이어지는 문이 쿵 닫히며 마블 씨의 도주로를 가렸다. 주방에 있던 사람들은 허공을 움켜쥐며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그 사람 어디 갔어?” 수염 난 남자가 외쳤다.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이쪽입니다.” 경찰관이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멈춰 서서 말했다.

기와 조각 하나가 그의 머리 옆을 뺨 하고 스쳐 지나가더니, 주방 탁자 위에 놓인 그릇들 사이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그놈에게 본때를 보여주마!” 검은 수염을 기른 남자가 소리쳤다. 순간 경찰의 어깨 너머로 강철 총신이 번뜩이더니, 탄환 다섯 발이 그 무언가가 날아온 어스름 속으로 잇따라 날아갔다. 남자는 총을 쏘면서 손을 수평으로 휘둘렀고, 그 덕분에 탄환들은 마치 바퀴살처럼 좁은 마당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침묵이 흘렀다. "탄약 다섯 발이라." 검은 수염을 기른 남자가 말했다. "그게 제일이군. 에이스 네 장에 조커 한 장이라니. 누구든 좋으니 랜턴 좀 가져와 봐. 가서 시신이 어디 있는지 더듬어 찾아봐야겠어."

제XVII장

캠프 박사의 방문객

캠프 박사는 서재에서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 총성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탕, 타당, 타당. 총성은 연달아 울려 퍼졌다.

“이런!” 캠프 박사가 펜을 다시 입에 물고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버독에서 누가 권총을 쏘아대는 거야? 저 바보들이 이번엔 또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거지?”

그는 남쪽 창가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몸을 밖으로 내민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밤의 마을은 창문들이 촘촘히 얹혀 있고, 가스등이 구슬처럼 박혀 있으며,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사이사이로 지붕과 마당이 만들어낸 검은 틈새들이 보였다. “언덕 아래 ‘더 크리켓터스’ 여관 근처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 같군.” 그가 혼잣말을 하며 한참 동안 아래를 지켜보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은 마을을 지나 멀리까지 옮겨갔다. 그곳에는 배들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고, 부두는 마치 노란 보석처럼 다면체로 빛나는 작은 조명 파빌리온처럼 환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상현달이 서쪽 언덕 위로 떠 있었고, 별들은 열대 지방의 밤하늘처럼 선명하고 눈부시게 빛났다.

5분 동안 캠프 박사는 미래 사회의 조건에 관한 막연한 사색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결국 시간의 차원 속으로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정신을 차린 뒤, 다시 창문을 내리고 집필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 일이 있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였을 것이다. 현관 벨이 울렸다. 총성이 들린 이후로 그는 멍하니 펜을 놀리며, 이따금 정신을 놓기도 하며 글을 쓰고 있었다. 그는 앉은 채로 귀를 기울였다. 하인이 문을 열러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계단을 올라오는 하인의 발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체 무슨 소리지?” 캠프 박사가 말했다.

그는 다시 연구에 몰두하려 애썼으나 실패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와 계단참까지 내려갔다. 그리고는 아래층 홀에 나타난 하녀를 향해 난간 너머로 벨을 울리며 소리쳤다.

“방금 그게 편지였나?”

그가 물었다.

“그저 누가 초인종만 누르고 달아난 거예요, 나리.” 그녀가 대답했다.

“오늘 밤은 영 마음이 진정되질 않는군.”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는 서재로 돌아가 이번에는 결연한 의지로 연구에 몰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작업에 열중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전등갓이 탁자 위에 만들어낸 빛의 원형 한가운데를 바쁘게 가로지르는 깃펜의 날카로운 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다.

캠프 박사가 그날 밤의 일을 마쳤을 때는 이미 두 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품을 한 뒤, 잠을 자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코트와 조끼를 이미 벗어 던진 참이었으나, 문득 갈증이 느껴졌다. 그는 촛불을 들고 탄산수 사이펀과 위스키를 찾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캠프 박사는 과학 연구에 매진해 온 덕분에 관찰력이 매우 예리한 사람이었다. 복도를 다시 가로질러 가던 그는 계단 발치에 놓인 매트 근처 리놀륨 바닥에서 검은 얼룩을 발견했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갔으나, 문득 그 얼룩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무의식 속의 어떤 요소가 작용한 모양이었다. 어쨌든 그는 짐을 든 채 몸을 돌려 다시 복도로 돌아왔다. 사이펀과 위스키를 내려놓은 그는 몸을 굽혀 그 얼룩을 만져보았다. 그는 그다지 놀라지도 않은 채, 그 얼룩이 말라가는 피처럼 끈적거리고 검붉은 빛을 띠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시 짐을 챙겨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내내 그는 주위를 살피며, 아까 본 핏자국이 왜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민했다. 그러다 계단참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무언가를 발견하

고는 경악하며 멈춰 섰다. 자신의 방 문손잡이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은 아주 깨끗했다. 문득 서재에서 내려올 때 방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덕분에 문손잡이를 전혀 만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결연한 표정으로,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호기심 어린 눈길로 주위를 살피던 그의 시선이 침대에 머물렀다. 침대 덮개에는 피가 엉망으로 묻어 있었고, 시트는 갈가리 찢겨 있었다. 그전까지는 화장대 쪽으로 곧장 걸어오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침대 반대편에는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침구류가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때 그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맙소사! 켄프!”라고 외치는 것을 들은 것 같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켄프 박사는 환청 따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흐트러진 시트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방금 들린 게 정말 목소리였을까? 그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어지럽혀진 채 피로 얼룩진 침대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세면대 근처 방 저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 해도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는 미신적인 두려움을 품기 마련이다. 기괴하고 섬뜩한 기분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방 문을 닫고 화장대 쪽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며 무언가를 목격했다. 그와 세면대 사이의 허공에, 피가 묻어 엉겨 붙은 린넨 봉대 뭉치가 둥둥 떠 있었다.

그는 경악하며 그 광경을 응시했다. 그것은 봉대였다. 제대로 매듭까지 지어져 있었지만,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가 그것을 붙잡으려 손을 뻗으려던 찰나, 누군가의 손길이 그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캠프!” 목소리가 외쳤다.

“뭐라고요?” 캠프 박사가 입을 벌린 채 되물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투명인간이다.”

캠프 박사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봉대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투명인간이라니.” 그가 말했다.

“나는 투명인간이다.” 목소리가 되풀이했다.

그가 그날 아침에 그토록 조롱하려 애썼던 그 이야기가 캠프 박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박사는 그리 크게 겁을 먹거나 놀란 기색은 아니었다. 실감이 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었다.

“전부 거짓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침 내내 되풀이되었던 논쟁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봉대를 감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렇소.” 투명인간이 말했다.

“아!” 캠프 박사가 외치더니 이내 정신을 차렸다. “이보게!” 그가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분명 무슨 속임수일 걸세.” 그는 갑자기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봉대를 향해 뻗은 그의 손에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맞닿았다.

그는 닿는 느낌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고, 안색이 변했다.

“진정하게, 캠프! 제발 좀! 도움이 절실하단 말일세. 멈춰!”

손이 그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는 그 손을 내리쳤다.

“캠프!” 목소리가 외쳤다. “캠프! 정신 차려!” 그러면서 움켜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캠프는 자신을 놓아달라는 격렬한 갈망에 사로잡혔다. 봉대를 감은 팔이 그의 어깨를 움켜쥐더니, 갑자기 그를 발로 걸어 침대 위로 내팽개쳤다.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린 순간, 시트 모서리가 그의 치아 사이로 거칠게 밀려 들어왔다. 투명인간은 잔인할 정도로 그를 짓눌렀으나, 캠프는 양팔이 자유로웠기에 사납게 휘두르며 발길질을 해댔다.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응?” 투명인간이 말했다. 그는 갈비뼈를 얻어맞는 통증을 견디며 그에게 바짝 달라붙었다. “맙소사! 이러다간 자네 때문에 곧 미쳐버리겠군!”

“가만히 좀 있어, 이 바보야!” 투명인간이 캠프 박사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캠프는 잠시 더 몸부림치더니, 이내 가만히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 지르면 얼굴을 뭉개버리겠다.” 투명인간이 입을 가리며 말했다.

“나는 투명인간이다. 허튼소리도, 마술도 아니다. 나는 정말로 투명 인간이란 말이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당신을 해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당신이 미친 시골뜨기처럼 행동한다면 어쩔 수 없다. 캠프,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그리핀 말일세.”

“일어나게 해 줘요.” 캠프 박사가 말했다. “여기서 꼼짝 않습니다. 잠깐만 조용히 앉아 있게 해 줘요.”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목을 만져 보았다.

“나는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그리핀일세. 스스로를 투명하게 만들었지.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자네도 알고 지내던 사람이, 그저 투명해진 것뿐이라네.”

“그리핀이라고요?” 캠프 박사가 물었다.

“그리핀이라네.” 목소리가 대답했다. “자네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었지. 거의 백색증 환자처럼 보일 정도로 피부가 하였고, 키는 6피트 정도에 체격도 건장했어. 분홍빛과 흰색이 뒤섞인 얼굴에 붉은 눈을 가졌던, 화학 부문 메달 수상자 말이야.”

“혼란스럽군요.” 캠프 박사가 말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입니다. 이 모든 게 그리핀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내가 바로 그리핀이다.”

캠프 박사는 생각에 잠겼다. “끔찍하군요.” 그가 말했다. “도대체 어떤 악마 같은 일이 벌어져야 사람이 투명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악마의 장난 같은 게 아니야.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아주 이성적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란 말일세—”

“끔찍하군요!” 캠프 박사가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정도면 충분히 끔찍해. 하지만 난 지금 상처를 입어 고통스럽고, 너무 지쳤어……. 세상에! 캠프, 자네도 사람 아닌가. 진정하게. 음식과 마실 것 좀 가져다주고, 여기 좀 앉게 해줘.”

캠프 박사는 방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붕대를 멍하니 응시했다. 이어 바구니 의자가 바닥을 쓸며 끌려오더니 침대 근처에 멈춰 서는 것을 보았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앉는 부분은 1/4인치 정도 폭 꺼졌다. 그는 눈을 비비고는 자신의 목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유령보다 더하군.” 그는 바보처럼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좀 낫군. 다행히 정신이 좀 드는 모양이야!”

“아니면 어리석거나요.” 캠프 박사가 주먹으로 눈을 비비며 말했다.

“위스키 좀 가져다주게.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 것 같진 않던데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어나면 당신과 부딪히려나요? 아, 저기 있군요! 됐어요. 위스키 말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드릴까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캠프는 유리잔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본능은 필사적으로 거부하라고 외쳤지만, 그는 간신히 손을 놓았다. 유리잔은 의자 좌석 앞쪽 가장자리에서 20인치 높이의 허공에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다. 캠프는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에 휩싸여 그 광경을 응시했다.

“이건……. 이건 분명……. 최면술이야. 당신이 내게 자신이 투명하다는 암시를 걸어 놓은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소리가 말했다.

“미칠 지경이야.”

“내 말을 들어보게.”

“오늘 아침에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캠프 박사가 말을 시작했다. “투명화라는 것이—”

“증명해 보인 게 뭐가 중요해! 난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목소리가 말했다. “옷 한 벌 걸치지 못한 사람에게 밤공기는 너무나 차갑단 말이야.”

“음식 말이오?” 캠프 박사가 물었다.

위스키 잔이 스스로 기울어졌다. “그래요.” 투명인간이 잔을 두드리며 말했다. “가운 하나 있습니까?”

캠프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탄성을 내뿜었다. 그는 옷장으로 걸어가더니 빛바랜 진홍색 가운을 꺼내 왔다. “이걸 입을까?” 그가 물었다. 누군가 그에게서 가운을 낚아챘다. 가운은 잠시 허공에 힘없이 매달려 기묘하게 펄럭이더니, 이내 단추가 스스로 채워지며 품위 있게 모양을 갖추었다. 그리고는 그의 의자에 털썩 앉았다.

“속옷이랑 양말, 슬리퍼가 있으면 좀 편하겠군.” 투명인간이 통명스럽게 말했다. “음식도 좀 가져오고.”

“뭐든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평생을 통틀어 겪어본 일 중 가장 미친 짓입니다!”

그는 물건들을 꺼내기 위해 서랍을 열더니, 식료품 저장실을 뒤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잠시 후 차가운 커틀릿과 빵을 가지고 돌아온 그는 간이 탁자를 끌어다 손님 앞에 음식을 차려 놓았다. “칼은 필요 없소.” 방문객이 말하자, 커틀릿 하나가 무언가 갇아먹는 소리를 내며 허공에 떠 있었다.

“투명하다니!” 캠프 박사가 외치며 침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난 식사하기 전에 항상 몸에 뭔가 걸치는 걸 좋아하지.” 투명인간이 음식을 게걸스럽게 입안 가득 문 채 말했다. “참 별난 취향이지!”

“손목은 괜찮은 것 같군요.” 캠프 박사가 말했다.

“나를 믿게.” 투명인간이 말했다.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모든 것들 중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봉대를 감으려고 하필 당신의 집으로 들이닥치게 된 건 참 묘한 일이군요. 내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행운이라니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밤은 이 집에서 자고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이셔야 해요! 피가 비쳐 보여서 아주 지저분하고 성가시겠지요? 저기 피가 꽤 뭉쳤군요. 피가 굳으면서 점점 눈에 띄게 변하는 모양입니다. 내가 변화시킨 건 살아있는 조직뿐이고, 그마저도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지되니까요. 이 집에 들어온 지는 세 시간째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캠프 박사가 짜증 섞인 말투로 입을 뗐다. “제기랄! 이 모든 상황이—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투명인간이 말했다.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는 손을 뻗어 위스키 병을 움켜쥐었다. 캠프 박사는 게걸스럽게 음식을 먹어 치우는 가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른쪽 어깨의 찢어진 틈으로 스며든 촛불 한 줄기가 왼쪽 갈비뼈 아래에 삼각형 모양의 빛을 드리웠다.

“총성은 무엇이었나?” 캠프 박사가 물었다. “총격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

“내 돈을 훔치려 했던 아주 멍청한 놈이 하나 있었지. 내 공범이나 다름없던 놈인데, 빌어먹을! —아니, 이미 실제로 훔쳐 가버렸어.”

“그 사람도 투명인간인가요?”

“아니요.”

“그래서요?”

“그 모든 걸 말하기 전에 좀 더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나더러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까!”

캠프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사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물었다.

“내가 아니야.” 방문객이 말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멍청한 놈이 무턱대고 총을 쏘댔어. 사람들이 잔뜩 겁에 질렸지. 다들 나를 보고 겁을 먹었다고! 빌어먹을 놈들! —내 말은— 캠프, 난 이것보다 더 먹을 게 필요해.”

“아래층에 먹을 게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오겠네.” 캠프 박사가 말했다.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말이야.”

식사를 마친 투명인간은 꽤나 든든하게 배를 채우더니 시가 한 대를 요구했다. 캠프 박사가 칼을 찾아오기도 전에 그는 시가 끝을 거칠게 물어뜯었다. 그러다 겉잎이 너털너털하게 풀리자 욕설을 내뿔었다. 그

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소용돌이치는 연기가 뿜어져 나올 때마다 그의 입과 목구멍, 인두와 콧구멍이 마치 형체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축복받은 담배 한 모금이라니!” 그가 말하며 힘차게 연기를 내뿜었다. “캠프, 자네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자네가 날 도와줘야 하네. 방금 자네를 마주치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야! 지금 난 아주 지독한 곤경에 처해 있네. 내 생각엔 내가 미쳤던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모를 걸세! 하지만 아직 해낼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어. 자,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그는 위스키 소다를 더 가져다 마셨다. 캠프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더니, 여분의 방에서 유리잔 하나를 가져왔다. “좀 무모한 짓 같긴 합니다만, 저도 한잔해도 되겠지요.”

“캠프, 지난 12년 동안 자네는 별로 변하지 않았군. 자네처럼 살결 흰 사람들은 원래 잘 안 변하지. 처음 한 번 무너지고 나면, 그다음엔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돌아오니까. 자네한테는 꼭 말해둬야겠어. 우리는 함께 일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단 말입니까?” 캠프 박사가 물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된 겁니까?”

“제발 부탁이니, 잠시만이라도 방해하지 말고 내가 담배 좀 피우게 내버려 두시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소.”

하지만 그날 밤 이야기가 모두 풀린 것은 아니었다. 투명인간은 손목의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다. 열이 오르고 기력이 다한 그는, 언덕 아래를 내달리던 추격전과 여관에서 벌어진 몸싸움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괴로워했다. 그는 마블에 대해 띄엄띄엄 말을 내뱉었고, 담배를 더 빠르게 피워댔으며, 목소리는 점점 분노로 떨렸다. 캠프 박사는 그가 하는 말들을 어떻게든 갈무리해 보려 애썼다.

“그는 나를 두려워했어. 그가 나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지.” 투명인간은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는 나를 따돌리려고 했어.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이 개만도 못한 놈!”

“그를 죽였어야 했어!”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캠프 박사가 갑자기 물었다.

그가 갑자기 신음하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머리를 받쳐 든 모양이었다. “캠프,” 그가 말했다. “한 시간 남짓씩 겨우 몇 번 졸았을 뿐, 사흘 가까이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이제 곧 잠들어야 해.”

“좋아요, 내 방을 쓰세요. 아니, 이 방을 쓰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잠을 자란 말인가? 내가 잠든 사이에 그자가 도망쳐 버리면 어찌지? 으윽! 아니, 그게 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총상은 어떻게 된 건가?” 캠프 박사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없어. 긁힌 자국과 피뿐이야. 오, 신이시여! 잠이 너무나도 간절하구나!”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캠프 박사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이 멍청한 놈!” 투명인간이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외쳤다. “내가 당신 머릿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군.”

제XVIII장

투명인간은 기진맥진한 데다 상처까지 입은 상태였지만, 자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캠프 박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그는 침실에 있는 두 개의 창문을 살피더니,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문을 열어젖혔다. 캠프 박사의 말대로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려는 심산이었다. 창밖의 밤은 매우 고요하고 정적에 잠겨 있었으며, 초승달이 언덕 너머로 저물고 있었다. 이어 그는 침실 열쇠와 두 개의 드레스룸 문 열쇠를 하나하나 점검했다. 이 역시 탈출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는 만족스러운 듯 행동을 멈췄다. 그가 벽난로 앞 카펫 위에 서자, 캠프 박사의 귀에 그의 하품 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하네.” 투명인간이 말했다. “오늘 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전부 다 말해줄 수는 없겠어. 몸이 너무 지쳤거든. 분명 기괴한 이야기겠지. 끔찍할 거야! 하지만 캠프, 오늘 아침 자네가 했던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네. 내 믿어주게. 나는 발견을 해냈어. 원래는 나 혼자만 알고 있으려 했네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군. 반드시 동료

가 필요해. 그리고 자네라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내일 이야기하세. 지금은, 캠프, 당장 잠들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군.”

캠프 박사는 방 한가운데 서서 머리 없는 옷가지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군요.” 그가 말했다. “정말이지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세 가지나 연달아 일어나다니, 제 모든 상식을 뒤엎는군요. 이 정도면 미쳐버리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군요!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그저 작별 인사만 해 주십시오.” 그리핀이 말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캠프 박사가 말하며 보이지 않는 손을 맞잡았다. 그는 문을 향해 옆으로 비껴 걸어갔다. 그때 갑자기 가운 하나가 그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다. “내 말을 알아들어야 해!” 가운이 말했다. “나를 방해하거나 붙잡으려 들지 마!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시도를 한다면—”

캠프 박사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분명히 약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가 말했다.

캠프 박사가 조용히 문을 닫고 뒤돌아서자마자, 즉시 안에서 열쇠가 돌아가며 문이 잠겼다. 캠프 박사가 어안이 병병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는데, 이번에는 다급한 발소리가 드레스룸 문 앞까지 다가오더니 그 문마저 잠겨버렸다. 캠프 박사는 손으로 이마를 탁 쳤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세상이 미쳐버린 건가,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그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잠긴 문에 손을 갖다 대었다. “내 침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다니,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상황인가!” 그가 말했다.

그는 계단 꼭대기까지 걸어가 몸을 돌리더니, 잠긴 문들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건 사실이야.” 그가 말했다. 그는 약간 멍이 든 목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덧붙였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는 절망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식당의 등불을 켜고 시가 하나를 꺼내 물었다. 그러고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무언가를 툭툭 내뱉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는 마치 자기 자신과 논쟁이라도 벌이듯 혼잣말을 내뱉었다.

“투명하다니!” 그가 외쳤다.

"투명한 동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 …… 바다라면 가능해. 수천, 아니 수백만 마리는 될 거야. 온갖 유생들, 작은 노플리우스와 토나리아, 온갖 미세한 것들, 그리고 해파리까지 말이야. 바다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군. 연못도 마찬가지야! 색깔도 없고 투명한 젤리 같은 작은 생명체들이 가득 하니까! 하지만 공기 중에는? 아니, 그건 불가능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결국, 안 될 게 뭐 있겠어?"

“사람이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눈에 보일 것이다.”

그의 명상은 깊어졌다. 그가 다시 입을 열기 전까지, 시가 세 대 분량의 뭉치가 재가 되어 사라지거나 카펫 위로 하얗게 흩어졌다. 이윽고 그가 내뿜은 것은 그저 짧은 감탄사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더니 방을 나가 자신의 작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가스등을 켜다. 캠프 박사는 진료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진료실은 규모가 작았다. 방 안에는 그날의 신문들이 놓여 있었다. 아침 신문 한 부가 아무렇게나 펼쳐진 채 옆으로 던져져 있었다. 그는 신문을 집어 들어 넘기더니, 포트 스톤의 선원이 마블 씨에게 고통스럽게 한 자 한 자 불려주었던 ‘아이핑에서 전해진 기이한 이야기’라는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캠프는 그 기사를 빠르게 읽었다.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군!” 캠프 박사가 말했다. “변장한 거야! 숨기려고 말이지! ‘그의 불행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그는 종이를 떨어뜨리더니 눈을 번뜩이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아!” 그가 외치며, 배달된 상태 그대로 접혀 있던 《세인트 제임스 가제트》지를 낚아챘다. “이제야 진실을 알 수 있겠군.” 캠프 박사가 말했다. 그는 신문을 확 찢어 펼쳤다. 그러자 두 개 정도의 칼럼이 눈에

들어왔다. ‘서식스의 마을 전체가 미쳐가다’라는 제목이 그를 맞이했다.

“세상에나!” 켄프 박사가 외쳤다. 그는 이미 묘사된 바 있는, 아이핑에서 일어난 전날 오후의 믿기지 않는 사건들을 담은 기사를 열정적으로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신문 지면 한쪽에는 아침 신문에 실렸던 보도 내용이 그대로 재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글을 다시 읽었다. "거리 곳곳을 누비며 사방으로 주먹을 휘둘렀음. 재퍼스는 의식을 잃음. 헉스터 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나 여전히 목격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함. 목사에게는 뼈아픈 굴욕임. 여자는 공포에 질려 앓아누움! 창문들은 박살 남. 이 기이한 이야기는 아마도 꾸며낸 것일 것임. 하지만 신문에 신지 않기엔 너무나 그럴듯한 소재임—cum grano(소금 한 알을 곁들여, 곧 에누리해서 들을 것)!—"

그는 종이를 떨어뜨리고는 멍하니 앞을 응시했다. “아마도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그는 다시 신문을 집어 들고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그런데 부랑자는 언제 등장하는 거지? 도대체 왜 그 부랑자를 쫓아다닌 거야?”

그는 수술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단순히 투명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미쳤어! 살인마라고!"

새벽빛이 식당 안의 등불 및 시가 연기와 뒤섞일 무렵에도, 캠프 박사는 여전히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 애쓰는 중이었다.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졸음이 가득한 얼굴로 내려온 하인들은 그를 발견하고는, 과도한 연구 탓에 몸이 상한 것이라 여겼다. 그는 하인들에게 벨베데레 서재에 두 사람의 아침 식사를 차려 놓고, 그런 다음에는 지하실과 1층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이례적이지만 아주 분명한 지시를 내렸다. 그러고는 아침 신문이 올 때까지 식당을 서성였다.

신문에는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사실로 확인된 것 외에는, 할 말은 많아도 정작 알려주는 내용은 별로 없었다. 포트 버독에서 전해진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아주 형편없는 문장으로 실려 있을 뿐이었다. 이 기사를 통해 캠프 박사는 '줄리 크리케터스'에서 벌어진 일의 핵심과 마블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자가 나를 스물네 시간 동안 자기 곁에서 놓아주지 않았소." 마블은 그렇게 증언했다. 아이핑에서 있었던 일에는 몇 가지 사소한 사실이 덧붙었는데, 특히 마을의 전신선이 끊겼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투명인간과 부랑자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줄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마블 씨가 그 세 권의 책이나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던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구심을 품던 어조는 사라졌고, 이미 수많은 기자와 취재진이 몰려들어 사건을 부풀리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캠프 박사는 보고서의 구석구석을 낱낱이 읽어 내려갔다. 그러고는 하녀를 내보내 그날 아침에 나온 신문을 모조리 구해 오라고 시켰다. 그는 신문들 또한 게걸스럽게 읽어 치웠다.

"그는 투명인간이야!" 그가 외쳤다. "게다가 기사를 보면 광기로 치닫는 분노가 느껴져!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대체 무슨 짓까지 저지를지 몰라! 그런데 그는 지금 위층에서 공기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예를 들어, 만약 이렇게 하면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될까? 아니, 그건 아니야."

그는 구석에 있는 조금 어지러운 책상으로 가서 메모를 적기 시작했다. 그러다 반쯤 쓰다 말고 종이를 찢어버리더니, 다시 다른 메모를 적었다. 그는 메모를 다시 읽으며 찬찬히 검토했다. 그러고는 봉투를 꺼내 '포트 버독의 애디 대령님'이라고 주소를 적었다.

제XIX장

몇 가지 기본 원칙

“무슨 일입니까?” 투명인간이 자신을 들여보내자 캠프 박사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제기랄! 그럼 그 깨지는 소리는 뭘니까?”

“욱하는 성질 때문이었소.” 투명인간이 말했다. “이 팔을 잊고 있었는데, 지금 아주 쓰라리단 말이오.”

“당신은 그런 일을 저지르기 쉬운 부류니까요.”

“그렇소.”

캠프 박사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깨진 유리 조각들을 집어 들었다. 그는 손에 유리 조각을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당신에 관

한 사실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소. 아이핑에서 일어난 일도, 언덕 아래에서 벌어진 일도 말이오. 세상 사람들은 투명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

“비밀이 탄로 났군요. 원래 비밀이었던 모양입니다.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위층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 박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다행히 기묘한 손님이 순순히 일어서자 그는 내심 기뻐했다. 캠프 박사는 좁은 계단을 따라 전망실로 향하는 길을 안내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캠프 박사가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투명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습니다.” 캠프 박사는 창밖을 초조하게 한 번 내다본 뒤,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자리에 앉았다. 그는 식탁에 앉아 있는 그리핀을 바라보았다. 머리도 손도 보이지 않는 채, 마치 기적처럼 허공에 떠 있는 냅킨으로 보이지 않는 입술을 닦고 있는 그리핀의 모습을 보자, 이 모든 일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캠프 박사의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다 사라졌다.

“충분히 간단하고, 충분히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핀이 말했다. 그는 냅킨을 옆으로 밀어 놓더니, 보이지 않는 손에 보이지 않는 머리를 기댔다.

“당신에게는 분명 그렇겠지만—” 캠프 박사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분명 경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 …… 그래도 우리는 조만간 위대한 일을 해낼 겁니다! 이 물질을 처음 발견한 건 체실스토우에서였습니다.”

“체실스토우라고요?”

“런던을 떠난 뒤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의학을 그만두고 물리학을 시작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빛’에 매료되었거든요.”

“아!”

“광학 밀도라니! 이 주제 전체가 수수께끼의 그물망 같습니다. 그 그물망 사이로 해답이 아른거리며 간신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요. 당시 저는 겨우 스물두 살이었고 열정만 가득했기에, ‘내 평생을 여기에 바치겠어. 이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스물두 살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바보들이긴 마찬가지군.” 캠프 박사가 말했다.

“아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만족이라도 줄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군!”

“하지만 저는 노예처럼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던 무렵이었죠. 갑자기 그물코 하나 사이로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색소와 굴절에 관한 일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4차원을 포함하는 기하학적 표현이자 하나의 공식이었죠. 어리석은 자들이나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평범한 수학자들조차 분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이에게 어떤 일반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책들—저 부랑자가 숨겨둔 책들—속에는 경이로운 기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물질의 다른 성질은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어떤 경우에는 색깔만 바뀔 뿐이죠—고체든 액체든 그 물질의 굴절률을, 실질적인 모든 목적에 관한 한 공기의 굴절률만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질 그런 아이디어 말입니다."

“휴!” 켐프 박사가 말했다. “이상하군요! 하지만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귀한 보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신체가 투명해진다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리핀이 말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성이라는 건 가시적인 물체가 빛에 작용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물체는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거나, 굴절시키거나, 혹은 이 모든 작용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만약 물체가 빛을 반사하지도, 굴절시키지도, 흡수하지도 않는다면, 그 물체 자체는 결코 눈에 보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투명한 빨간 상자가 보이는 이유는 그 색깔이 빛의 일부를 흡수하고 나머지 빛, 즉 빨간색 부분의 빛만을 당신에게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자가 빛의 특정 부분을 흡수하지 않고 전부 반사한다면, 그 상자는 빛나는 하얀 상자가 되었을 겁니다. 은처럼 말이죠! 다이아몬드로 만든 상자라면 빛을 많이 흡수하지도, 표면 전체에서 많이 반사

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표면 상태가 유리한 지점마다 빛이 반사되고 굴절되겠지요. 그러면 빛이 번쩍이며 반사되고 투명하게 비치는 화려한 모습, 즉 일종의 빛의 골격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유리 상자는 다이아몬드 상자만큼 화려하지도, 눈에 잘 띄지도 않을 겁니다. 굴절과 반사가 훨씬 적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각도에서는 상자 너머가 아주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유리의 종류에 따라 보이는 정도도 다릅니다. 부싯돌 유리로 만든 상자는 일반 창유리로 만든 상자보다 더 밝게 보일 테니까요. 아주 얇은 일반 유리는 빛이 나뉠 때 알아보기 힘들 겁니다.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고 굴절이나 반사도 아주 조금만 하기 때문이죠. 만약 평범한 백유리 한 장을 물속에 넣는다면, 물보다 밀도가 더 높은 액체에 넣는다면 거의 완전히 사라져 보일 겁니다. 물에서 유리로 통과하는 빛은 굴절이나 반사가 아주 미미하고,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 중의 석탄 가스나 수소 기체 한 줄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캠프 박사가 말했다. “그거 참 명쾌한 이야기군요.”

“캠프 박사, 당신도 곧 사실임을 알게 될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네. 유리판을 산산조각 내서 가루로 만들면, 그 가루가 공중에 떠 있을 때는 훨씬 더 눈에 잘 띄게 된다는. 결국에는 불투명한 흰색 가루가 되어 버리지. 그 이유는 가루가 되면 빛이 굴절되고 반사되는 유리의 표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라네. 유리판에는 표면이 두 개뿐이지만, 가루가 되면 빛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반사되거나 굴절되니, 가루를 그대로 통과하는 빛은 거의 없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 흰색

유리 가루를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가루는 즉시 사라져 버린다네. 유리 가루와 물은 굴절률이 거의 같기 때문이지. 즉, 빛이 유리 가루에서 물로 넘어갈 때 굴절이나 반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겠네.”

“굴절률이 거의 같은 액체에 유리를 담그면 유리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투명한 물체라도 굴절률이 거의 일치하는 매질 속에 넣으면 보이지 않게 되죠. 잠시만 생각해 보면 유리 가루도 공기 중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유리 가루의 굴절률을 공기와 똑같이 맞출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이 유리에서 공기로 통과할 때 굴절이나 반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켈프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사람은 유리 가루가 아니잖습니까!”

“아니요.” 그리핀이 말했다. “사람은 그보다 더 투명한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의사라는 사람이 대체 왜 이럴까요! 어쩔 이리도 쉽게 잊으십니까? 고작 10년 만에 물리학을 다 잊어버린 건가요? 투명하지만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종이는 투명한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이가 하얗고 불투명해 보이는 건, 유리 가루가 하얗고 불투명한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종이에 기름을 먹여 입자 사이의 틈을 메우면, 표면을 제외하고는 굴절이나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종이는 유리처럼 투명해지죠. 종이뿐만이

아닙니다. 캠프 박사님, 먼 섬유도, 아마 섬유도, 양모 섬유도, 나무 섬유도, 심지어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프 박사님, 살점도, 캠프 박사님, 머리카락도, 캠프 박사님, 손톱과 신경도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혈액 속 붉은색과 머리카락의 검은 색소만 제외하면, 인체의 모든 조직은 투명하고 색이 없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건 아주 미미한 요소들뿐입니다. 대개의 경우, 살아있는 생물의 섬유는 물보다 더 불투명하지도 않으니깐요.”

“세상에나!” 캠프 박사가 외쳤다. “그렇고말고, 당연히 그렇고말고! 바로 어젯밤에도 바다의 유충과 해파리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말일세!”

“이제야 나를 제대로 이해하셨군! 내가 런던을 떠난 지 1년 뒤, 그러니까 6년 전에 이미 다 알고 구상하고 있던 것들 말이야. 하지만 난 그 모든 걸 혼자만 알고 있었어. 최악의 조건 속에서 연구를 이어가야 했으니까. 내 지도 교수였던 올리버는 과학계의 건달이었어. 본성은 기자 같았고,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도둑이었지. 그는 늘 내 주변을 기웃거리며 캐묻곤 했어! 과학계의 그 비열한 생태계는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난 내 공로를 그놈과 나누고 싶지 않아서 절대로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어. 그저 연구를 계속했을 뿐이야. 내 공식을 실험으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점점 더 가까워졌지. 살아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세상을 뒤흔들고 단숨에 유명해지기 위해 내 연구를 세상에 터뜨릴 작정이었으니까. 그러다 몇 가지 빈틈을 메우려고 색소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갑자기, 계획한 것도 아닌 우연히 생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만 거야.”

“네, 말씀하세요?”

“혈액의 붉은 색소를 알고 있겠지. 그 색소를 하얗게, 즉 무색으로 만들면서도 지금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게 할 수 있단 말일세!”

캠프 박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라 탄성을 질렀다.

“그런 일을 해낸다면 그건 마법을 초월하는 일일 겁니다. 나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보았습니다. 투명해진다는 것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장엄한 광경을 말입니다. 신비와 권력, 그리고 자유를 말이지요. 단점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지방 대학에서 바보들을 가르치며,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고 사방이 막힌 처지였던 내가 갑자기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니요. 묻고 싶습니다, 캠프 박사. 만약 당신이라면... 누구라도 이 연구에 자신을 내던졌을 겁니다. 나는 3년 동안 매달렸습니다. 산더미 같은 난관을 하나씩 헤쳐 나갈 때마다, 그 정상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도 없는 세부 사항들, 그리고 그로 인한 좌절감이라니! 게다가 늘 참견하기 좋아하는 지방대 교수라는 작자는 ‘그 연구는 언제 발표할 건가?’라는 질문만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학생들은 또 어떻고요, 생활비는 얼마나 부족했는지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비밀을 지키며 애를 태운 끝에, 나는 결국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캠프 박사가 물었다.

“돈 말이야.” 투명인간이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렸다. “내가 그 노인을 털었어. 내 아버지를 털었다고.”

"그 돈은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XX장

그레이트 포틀랜드 스트리트의 집에서

캠프 박사는 잠시 침묵에 잠긴 채, 창가에 서 있는 머리 없는 형체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스친 듯 움찔하며 자리에 서 일어났다. 그는 투명인간의 팔을 붙잡아 창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돌려세웠다.

“피곤하시군요.” 그가 말했다. “나만 앉아 있고 당신은 계속 서성이고 계시잖습니까. 내 의자에 앉으세요.”

그는 그리핀과 가장 가까운 창문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리핀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이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미 체실스토우의 오두막을 떠난 상태였네.” 그가 말했다. “지난 12월의 일이었지. 나는 런던에 방을 하나 얻었네. 그레이트 포틀랜드 스트리트 근처 슬럼가에 있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커다란 하숙집의 가구도 없는 넓은 방이었지. 방 안은 곧

그가 준 돈으로 산 실험 도구들로 가득 찼네. 연구는 꾸준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끝이 보이기 시작했지. 나는 마치 덩불을 헤치고 나오다가 갑자기 아무 의미 없는 비극과 맞닥뜨린 사람과 같았네. 나는 그를 물어주러 갔을 뿐이었어. 내 마음은 여전히 연구에 쏠려 있었기에,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네. 장례식 장면이 기억나는군. 값싼 운구차, 초라한 예식, 바람이 몰아치던 동토의 언덕, 그리고 그의 옛 대학 동창이 고인을 위해 추도사를 읽던 모습 말이야. 그는 콧물을 흘리며 감기에 걸린, 초라하고 검은 옷을 입은 구부정한 노인이었지.”

한때는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조잡한 건설업자들이 여기저기 기워 붙이고 손을 대어 흥측한 마을의 형상만 남겨놓은 그곳을 지나, 나는 텅 빈 집으로 걸어 돌아가던 기억이 난다. 길은 어디로 뻗든 결국 신성함이 훼손된 들판으로 이어졌고, 그 끝에는 돌무더기와 악취 나는 젖은 잡초들이 가득했다. 미끄럽고 번들거리는 포장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나의 모습이 마치 수척하고 검은 형체처럼 기억된다. 그 순간, 나는 이 마을의 지저분한 체면치레와 추잡한 상업주의로부터 묘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아버지가 조금도 가엽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스스로의 어리석은 감상주의에 빠진 희생자처럼 보였을 뿐이다. 세상의 관례상 장례식에는 참석해야 했지만, 사실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하이 스트리트를 따라 걷다 보니, 잠시나마 옛 삶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십 년 전 알고 지내던 한 소녀를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쳤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길을 돌려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옛 장소들을 방문했던 그 모든 일은 마치 꿈만 같았다. 그때만 해도 내가 외롭다는 사실이나,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황량한 곳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타인과 공감할 수 없게 된 처지를 인지하기는 했으나, 그저 세상사가 원래 다 무의미한 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뿐이다. 다시 내 방으로 돌아오니 비로소 현실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곳에는 내가 알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 실험 장치들이 놓여 있었고, 실험 준비는 모두 마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 외에는 남은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

"캠프, 조만간 그 복잡한 과정들을 전부 말해주겠네. 지금 당장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몇몇 빠진 부분들을 내가 기억해내기로 마음먹은 것을 제외하면, 그 과정 대부분은 그 부랑자가 숨겨둔 책들에 암호로 적혀 있네.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야 해. 그 책들을 다시 되찾아야만 하네.

핵심 단계는 이랬네. 굴절률을 낮출 투명한 물체를, 일종의 에테르 진동이 뿔어 나오는 두 중심점 사이에 놓는 것이었지.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네. 아니, 윈트겐의 진동 같은 건 아니야.

내 방식이 기존에 설명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군. 하지만 원리는 아주 명확하네. 나는 작은 발전기 두 개가 필요했고, 값싼 가스 엔진을 이용해 이것들을 작동시켰지.

첫 실험은 흰 양모 천 조각으로 했네.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그 천이 부드럽고 하얗게 빛나다가, 마치 연기 고리처럼 서서히 흐릿해지더니 이내 사라지는 모습은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광경이었네.”

“내가 정말로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허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자, 그것은 여느 때처럼 단단하게 만져졌다. 나는 어설픈 손짓으로 그것을 더듬다가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말았다. 그리고 나니 그것을 다시 찾는 데 애를 좀 먹어야 했다.”

그러다 기묘한 경험을 하나 했다. 등 뒤에서 야옹 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창문 밖 물탱크 덮개 위에 아주 더럽고 마른 흰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너를 위해 다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하고는 창문을 열고 부드럽게 고양이를 불렀다. 굶주린 가여운 짐승은 가르릉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었다. 내 음식은 모두 방 구석 찬장에 들어 있었다. 우유를 마신 고양이는 마치 제 집이라도 되는 양 방 안 이곳저곳을 쿵쿵거리며 돌아다녔다. 투명한 걸레가 고양이를 좀 놀라게 하긴 했다. 고양이가 그 걸레를 향해 침을 뱉는 모습은 직접 보았어야 했다. 나는 고양이를 내 보조 침대 베개 위에 편히 앉혀 주었다. 그리고 고양이가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버터도 조금 주었다.

“그래서, 그 고양이에게 그 처리를 한 겁니까?”

“그 녀석에게 약물을 투여했지. 하지만 캄프, 고양이에게 약을 먹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결국 실험은 실패했네.”

“실패라니요!”

“두 가지였네. 하나는 발톱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양이 눈 뒤쪽에 있는 색소 물질이었지. 그게 뭐더라? 자네도 알지 않나?”

“타페툼(Tapetum).”

“그래, 바로 타페툼이었네. 그건 사라지지 않았지. 피를 표백하는 약물을 주입하고 다른 조치들을 다 마친 뒤에, 그 녀석에게 아편을 먹었네. 그러고는 녀석과 녀석이 잠든 베개를 함께 장치 위에 올려놓았지. 다른 모든 것이 흐릿해지며 사라지고 난 뒤에도, 녀석의 두 눈만은 작은 유령처럼 남아 있었네.”

“이상하군!”

“설명하기가 어렵군. 물론 그 녀석은 봉대를 감고 단단히 고정해 둔 터라 빠져나갈 염려는 없었네. 하지만 아직 몸이 흐릿하게 비치는 상태에서 깨어나더니, 가엾게도 구슬프게 야옹거리며 울기 시작하지 뭐가.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네. 아래층에 사는 노파였지. 그 노파는 내가 생체 해부라도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네. 세상에 돌볼 것이라고는 흰 고양이 한 마리뿐인, 술에 절어 사는 노파였지. 나는 얼른 클로로포름을 꺼내 녀석에게 묻힌 뒤 문을 열어 주었네.

‘고양이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내 고양이인가?’ 노파가 물었네. ‘여기엔 없습니다.’ 내가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지.

노파는 못 미더운 눈초리로 내 뒤편 방 안을 들여다보려 했네. 텅 빈 벽과 커튼도 없는 창문, 접이식 침대, 진동하는 가스 엔진, 빛을 내뿜는 점들의 들끓임,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희미하고 섬뜩한 클로로포름 냄새까지—노파에게는 분명 기이한 광경이었을 걸세. 그래도 결국 노파는 만족하고 다시 물러갔네.”

“얼마나 걸렸나?” 캠프 박사가 물었다.

“서너 시간쯤 걸렸네. 고양이 말일세. 뼈와 근육, 지방이 마지막으로 사라졌고, 색깔 있는 털끝도 그랬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눈의 뒷부분은 질기고 무지갯빛이 도는 물질이라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네.”

일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밖은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희미하게 빛나는 눈동자와 발톱뿐이었다. 나는 가스 엔진을 끄고, 아직 의식이 없는 그 짐승을 더듬어 쓰다듬어 주었다. 몸이 피곤했던 나는 짐승을 투명한 베개 위에 그대로 잠든 채 두고 침대로 향했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나는 깨어 있는 채로 힘없고 목적 없는 생각들을 떠올렸다. 실험 과정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되새겼고, 때로는 안개처럼 흐릿해지며 내 주변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열병을 앓듯 꿈꾸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내가 딛고 선 땅마저 사라져 버렸고, 마치 속이 울렁거리는 듯한 악몽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새벽 두 시쯤 되었을까, 고양이가 방 안 여기저기서 야옹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말을 걸어 고양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밖으로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불을 켜올 때 느꼈던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불빛 속에는 그저 초록색으로 빛나는 둥근 눈동자만이 떠 있을 뿐,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양이에게 우유라도 주고 싶었지만, 우유가 없었다. 고양이는 조용해지기는커녕 문 앞에 앉아 계속해서 야옹거렸다. 창밖으로 내보낼 생각으로 고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녀석은 잡히지 않더니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그러더니 방 안의 다른 곳에서 야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나는 창문을 열고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아마도 그제야 고양이가 밖으로 나간 모양이다. 그 뒤로 그 녀석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러다—하늘만이 알겠지만—어찌 된 영문인지 다시금 아버지의 장례식과 그 쓸쓸하고 바람 부는 언덕이 떠올라, 날이 밝을 때까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네. 도저히 잠들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문을 잠근 채 아침 거리로 나가 정처 없이 헤맸지.”

“설마 투명한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캠프 박사가 말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말이지.” 투명인간이 말했다. “왜 안 된다는 건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캠프 박사가 말했다. “방해할 의도는 없습니다.”

“아마 죽었을 걸세.” 투명인간이 말했다. “나흘 뒤에도 살아 있는 건 분명히 봤네. 그레이트 티치필드 가의 하수구 격자 아래에 있었지. 사람들이 그 근처에 모여서 대체 어디서 야옹 소리가 나는지 들여다보려 애쓰고 있었으니까.”

그는 거의 1분 가까이 침묵을 지켰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이어갔다.

변화가 일어나기 전 그날 아침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난다. 분명 그레이트 포틀랜드 거리를 따라 올라갔을 것이다. 올버니 거리에 있던 병영과 그곳에서 나오던 기병대도 기억난다. 마침내 프림로즈 언덕 정상에 다다랐을 때였다. 1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올해 눈이 내리기 전 찾아왔던, 햇살은 밝지만 서리가 내리던 그런 날 중 하루였다. 지칠 대로 지친 내 머릿속은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계획을 세우려 애쓰고 있었다.

마침내 목표를 손에 넣게 되자, 나는 뜻밖에도 그 성취가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는지 깨닫고 놀랐다. 사실 나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4년 가까이 쉬지 않고 연구에 매달리며 받은 극심한 압박감 탓에, 어떤 감정도 강렬하게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무기력했다. 연구 초기에 품었던 그 열정, 심지어 늙은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게 했던 그 발견의 열망을 되찾으려 애써 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그 무엇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지금의 이런 기분이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태이며, 약을 쓰든 휴식을 취하든 머지않아 기운을 차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이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 강박적인 생각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었지. 게다가 가진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던 참이었네. 나는 아이들이 뛰노는 언덕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소녀들을 바라보며, 투명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상천외한 이점들이 무엇일지 궁리해 보았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기어 들어 가듯 집으로 돌아왔네. 음식을 좀 먹고 스트리크닌을 한 움큼 삼킨 뒤, 정리하지 않은 침대 위에서 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지. 캠프 박사, 스트리크닌은 사람의 나태함을 몰아내는 데 아주 훌륭한 강장제라네.”

“악마입니다.” 캠프 박사가 말했다. “병 속에 담긴 구석기 시대의 야만성 그 자체라고요.”

“잠에서 깨어났을 땐 기운이 펄펄 넘치면서도 한편으론 꽤나 짜증이 나더군.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그 물건이 뭔지 압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주인이었다. 그는 회색 긴 코트에 기름기 번들거리는 슬리퍼를 신은 늙은 폴란드계 유대인이었는데, 험박 섞인 말투로 이것저것 캐물어댔다. 그는 내가 밤새 고양이를 괴롭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마 그 노파가 입을 놀린 모양이었다. 그는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아내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 나라의 생체 실험 금지법은 매우 엄격했기에,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고양이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그는 집 전체에 작은 가스 엔진의 진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 말은 분명 사실이

었다. 그는 은색 안경 너머로 주위를 살피며 내 옆을 지나 방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순간, 그가 내 비밀을 알아차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그와 내가 설치해 둔 집중 장치 사이를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그럴수록 그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었다. 내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항상 혼자서 비밀스럽게 구는지, 이 일이 합법적인지, 혹은 위험한 일은 아닌지 그는 의심했다. 나는 평소 처럼 월세 외에는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 그가 운영하는 여관은 평판이 좋지 않은 동네에 있었지만, 건물 자체는 늘 아주 번듯한 곳이었다.

결국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다. 나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는 항의하며 집주인으로서 들어올 권리가 있다고 횡설수설했다. 순식간에 나는 그의 목살을 움켜쥐었다.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그는 복도로 팽개쳐지듯 튕겨 나갔다. 나는 문을 콧 달고 잠근 뒤, 몸을 떨며 주저앉았다.

그가 밖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나는 무시했다. 잠시 후 그는 떠나갔다.

하지만 이 일로 상황은 위기로 치달았다.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니 그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지조차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른 숙소로 옮기는 것은 시간만 지체될 뿐이었다. 게다가 내게 남은 돈은 고작 20 파운드 남짓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은행에 들어 있었기에 그럴 여유가 없었다. 사라져야 했다! 그 충동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내 방은 살살이 털리고 말 터였다.

내 연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누군가 그 실체를 폭로하거나 방해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건잡을 수 없는 분노와 조급함에 휩싸였다. 나는 서둘러 연구 노트 세 권과 수표책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수표책은 지금 부랑자의 손에 들어가 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서, 그 물건들을 그레이트 포틀랜드 가에 있는 편지 및 소포 접수처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소리 없이 나가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집주인이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아마 문 닫히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내가 그를 뒤쫓아 거칠게 달려 나갈 때, 그가 계단참에서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켜나던 모습은 직접 보았다면 분명 웃음이 터졌을 것이다. 내가 그를 지나쳐 갈 때 그는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고, 나는 방문을 쾅 닫아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 그가 내 방이 있는 층까지 발을 끌며 터벅터벅 올라왔다가, 머뭇거리더니 다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곧장 탈출 준비에 착수했다.

그 모든 일은 그날 저녁과 밤 사이에 벌어졌다. 혈액의 색을 없애는 약물의 영향으로 여전히 몸이 나른하고 몽롱한 상태였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다. 두드리는 소리가 멎더니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러다 다시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문틈 사이로 무언가를 밀어 넣으려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파란 종이 한 장이었다. 나는 짜증이 치밀어 올라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대체 뭐야?”

내가 말했다.

“집주인이었어요. 퇴거 통지서 같은 걸 들고 왔죠. 그가 종이를 내밀다가 제 손을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뵈히 쳐다보더군요.”

그는 잠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그러더니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촛불과 통지서를 한꺼번에 떨어뜨리고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계단 쪽으로 허둥지둥 달려 내려갔다. 나는 문을 닫고 잠근 뒤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그제야 그가 왜 그토록 공포에 질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 얼굴은 마치 하얀 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끔찍했습니다. 그런 고통이 뒤따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밤새도록 몸을 뒤트는 극심한 괴로움과 구역질, 그리고 정신을 잃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피부는 금세 타오르는 듯 뜨거워졌고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치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 있었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클로로포름을 써서 기절시키기 전까지 고양이가 왜 그렇게 울부짖었는지 말입니다. 다행히 방에서 혼자 지내던 터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흐느끼고 신음하며 혼잣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 결국 의식을 잃었고, 어둠 속에서 기운 없이 깨어났습니다.”

고통은 지나갔다. 나는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 새벽의 기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 손이 마치 뿌연

유리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기이한 공포를 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은 점점 더 투명하고 얇아졌다. 마침내 투명한 눈꺼풀을 감았음에도, 손을 통해 방 안의 병적인 무질서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가 되었다. 팔다리는 유리처럼 변해갔고, 뼈와 동맥은 흐릿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가느다란 흰 신경뿐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텼다. 마침내 손가락 끝에 죽은 듯 창백하고 하얀 손톱만이 남았고, 손가락 위에는 산성 물질이 묻은 갈색 얼룩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마치 봉대에 감긴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보이지도 않는 팔다리로 더듬거리며 발을 내디뎠다. 몸은 쇠약했고 허기는 극심했다. 나는 면도 거울을 들여다보며 허공을 응시했다.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안개보다 희미하게, 내 망막 뒤편에 남아 있는 가느다란 색채의 잔상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탁자를 붙잡은 채 거울에 이마를 바짝 갖다 대어야만 했다.

"정신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의지를 다잡은 끝에야, 나는 겨우 실험 장치로 몸을 끌어다 놓으며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오전 내내 나는 눈 위로 시트를 끌어올려 빛을 차단한 채 잠을 잤다. 그러다 정오쯤 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앉아 귀를 기울였고, 이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가능한 한 소리 죽여가며

장치들의 연결 부위를 하나씩 분리했다. 그리고 장치들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짐작조차 못 하도록 방 안 여기저기에 흩어 놓았다.

잠시 후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여관 주인의 목소리였고, 곧이어 다른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시간을 벌기 위해 그들에게 대답했다. 손을 뻗어 투명한 천과 베개를 집어 들고는, 창문을 열어 물탱크 덮개 위로 그것들을 던져 버렸다. 창문이 열리는 순간, 문 쪽에서 무언가 무겁게 부딪히는 굉음이 들렸다. 누군가 문고리를 부수려는 생각으로 문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 내가 단단히 조여 놓은 굵직한 빗장들이 그를 막아 세웠다. 그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고, 이내 화가 치밀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나는 허둥지둥 움직였다.

나는 방 한가운데에 흩어진 종이와 짚, 포장용 종이 따위를 대충 모아 쌓아두고 가스등을 켰다. 곧이어 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냥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분노에 휩싸여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나는 가스등을 다시 끄고 창밖 물탱크 덮개 위로 몸을 옮겼다. 그러고는 창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린 뒤, 안전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자리에 앉았다. 몸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켜보기 위해 숨을 죽였다. 사람들이 문밖의 판자를 뜯어내는 것이 보였다. 잠시 후, 그들은 문빋장의 고정 장치까지 부수고는 열린 문틈 사이로 들어섰다. 여관 주인과 그의 의붓아들 둘이었다. 아들들은 스물서넛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청년들이었다. 그들 뒤로는 아래층에 사는 노파가 허둥지둥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방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경악했을지 상상해 보라. 젊은 남자 중 한 명이 즉시 창가로 달려가더니, 창문을 확 열고는 밖을 내다보았다. 멍하니 눈을 뜨고 두툼한 입술에 수염을 기른 그의 얼굴이 내 얼굴 앞까지 불과 한 자 거리로 다가왔다. 나는 그 어리석은 얼굴을 한 대 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짝 좌 주먹을 간신히 멈추었다. 그는 내 몸을 그대로 통과해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뒤따라온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노인은 침대 밑을 살피러 갔고, 이어서 모두가 찬장 쪽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유대어와 코크니 영어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결국 그들은 내가 대답하지 않았을 뿐이며, 자신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결론지었다. 나는 창밖에서 이내 사람을 지켜보았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묘한 희열이 차올랐다. 그사이 노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마치 고양이처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의 기이한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 노인이 쓰는 방언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 보건대, 그는 내가 생체 해부학자라는 노부인의 말에 동의하는 눈치였다. 아들들은 알아듣기 힘든 영어로 내가 전기 기술자라고 항변하며, 발전기와 라디에이터를 예로 들어 호소했다. 그들은 내가 도착했을 때 모두 잔뜩 긴장한 기색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앞문까지 걸어 잠가 두었을 정도였다. 노부인은 찬장 안과 침대 밑을 살살이 뒤졌고, 젊은이 중 한 명은 굴뚝 개폐판을 밀어 올린 뒤 굴뚝 안을 들여다보았다. 맞은편 방을 정육점 주인과 함께 쓰는 노점상인 내 동료 투숙객도 복도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를 불러들여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라디에이터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식이 해박하고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 그것을 본다면, 제 정체가 너무 쉽게 탄로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발전기 하나를 옆에 세워둔 다른 발전기 위로 기울여 떨어뜨린 뒤, 두 장치를 모두 박살 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저는 방을 빠져나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는 거실 중 한 곳으로 들어가 그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추측과 논쟁을 이어갔지만, 기대했던 '공포스러운 장면'이 나타나지 않자 다들 조금은 실망한 기색이었다. 또한 법적으로 자신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들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그 사이 나는 성냥갑을 들고 다시 위층으로 슬그머니 올라갔다. 쌓아둔 종이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다음, 그 곁에 의자와 침구류를 가져다 놓고, 고무관을 이용해 가스를 그 불길로 끌어들었다. 그리고는 방을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넨 뒤, 나는 그곳을 마지막으로 떠났다.

“당신이 집에 불을 질렀어!” 캠프 박사가 외쳤다.

“집에 불을 질렀다. 내 흔적을 지울 방법은 그것뿐이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보험도 들어져 있었다. 나는 앞문 빗장을 조용히 풀고 거리로 나갔다.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그리고 내 투명함이 가져다줄 이 엄청난 이점을 나는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머릿속에는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거칠고 경이로운 일들에 대한
계획이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제XXI장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처음 계단을 내려갈 때, 나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내 발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번이나 발을 헛디뎈 비틀거렸고, 빗장을 잡을 때도 평소와 다르게 손이 자꾸 헛돌았다. 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으려 애쓴 덕분에, 평평한 바닥에서는 그럭저럭 잘 걸어갈 수 있었다.

"내 기분은 한마디로 한껏 고양되어 있었다. 마치 눈먼 자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소리 나지 않는 옷을 입고 발소리조차 죽인 채 걷는, 눈이 보이는 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농담을 던지고 싶고, 누군가의 등을 툭 치거나 모자를 휙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휘몰아쳤다. 이 비범한 이점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거친 욕망이 일었다."

하지만 그레이트 포틀랜드 거리에 막 발을 내디뎠을 때였다(내 숙소는 그곳의 커다란 포목점 근처였다). 갑자기 무언가 부딪히는 굉음이

들리더니 뒤쪽에서 강한 충격이 전해졌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탄산수 시폰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든 채 자신이 들고 있는 짐을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충격 때문에 실제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남자의 그 어처구니없는 표정이 너무나 기가 막혀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바구니 안에 악마가 들어있나 보군!”

내가 그렇게 외치며 남자의 손에서 바구니를 뺏아냈다. 남자는 즉시 손을 놓았고, 나는 그 무거운 바구니를 공중으로 휘둘러 올렸다.

“하지만 술집 앞에 서 있던 어리석은 마부 하나가 갑자기 이쪽으로 달려들었다. 그자가 손가락을 뺏는 바람에 내 귀 밑이 참기 힘들 만큼 세게 부딪혔다. 나는 들고 있던 것을 마부 머리 위로 와장창 내동댕이쳐 버렸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지고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며, 가게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마차들이 멈춰 섰다. 그제야 나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가게 유리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이 혼란을 틈타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조금만 지나면 군중 사이에 끼어 결국 정체가 탄로 나고 말 상황이었다. 나는 정육점 소년을 밀치고 지나갔는데, 다행히 그 소년은 자신을 밀치고 지나간 '무언가'를 보려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마부의 사륜마차 뒤로 몸을 숨겼다.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모른다. 나는 다행히 비어 있던 길을 가로질러 서둘러 달려 나갔다. 정체가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나머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옥스퍼드 거리의 오후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어 보려 했지만, 인파가 너무 뻥뻥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순식간에 뒤꿈치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길가 도랑으로 몸을 피했다. 거친 바닥에 발이 닿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그때 기어오듯 지나가던 한선(hansom) 마차의 축이 내 견갑골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그 충격에 이미 몸 곳곳에 심한 멍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마차를 피했고, 경련하듯 몸을 움직여 유모차를 간신히 비껴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마차 뒤편에 서 있었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라 나를 구했다. 마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마차 바로 뒤를 바짝 따라갔다. 내게 닥친 이 기괴한 모험에 경악하며 몸을 떨었다. 떨림은 곧 오한으로 변했다. 1월의 화창한 날이었지만, 나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 도로를 덮은 얇은 진흙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몸이 투명해졌을지언정, 여전히 날씨의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서둘러 달려가 마차에 올라탔다. 몸은 떨렸고 겁에 질려 있었다. 게다가 감기 기운이 올라오는지 코끝이 찡해졌고, 허리 아래쪽의 멍 자국도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 나는 옥스퍼드 거리를 지나 토트넘 코트 로드 쪽으로 천천히 마차를 몰았다. 10분 전 집을 나설 때와 비교하면 지금 내 기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투명인간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유일한 생각은 오로지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뮤디 서점을 지나쳐 기어갔다. 그때 노란 라벨이 붙은 책 대여섯 권을 든 키 큰 여인이 내 마차를 불러 세웠다. 나는 그녀를 피하려고 간신히 마차에서 뛰어내렸고, 도망치는 와중에 철도 화물차와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했다. 나는 블룸즈버리 광장 쪽 도로를 따라 서둘러 움직였다. 박물관을 지나 북쪽으로 향해 한적한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이었다. 몸은 몹시 떨릴 정도로 차가워졌고, 처한 상황이 너무나 기이해 마음이 불안해진 나머지 달리는 내내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다. 광장 북쪽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약학회 사무실에서 작은 흰 개 한 마리가 뛰어나오더니 코를 땅에 박은 채 곧장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으나, 개의 정신에 있어 코는 눈이 보이는 사람의 정신에서 갖는 위상과 같았다. 사람이 시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듯, 개는 냄새를 통해 움직이는 사람을 인지한다. 이 짐승은 짓으며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내 눈에는 녀석이 나를 분명히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해 보였다. 나는 그레이트 러셀 거리를 가로질러 가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다 몬태규 거리를 따라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때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거리 쪽을 바라보니 러셀 광장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오고 있었다. 붉은 셔츠를 입은 이들이 앞장섰고, 구세군 깃발이 가장 먼저 보였다. 길 위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인도

에서는 조롱 섞인 야유를 퍼붓는 그 인파를 뚫고 지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집에서 더 멀리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박물관 울타리와 마주한 어느 집의 하얀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군중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그곳에 서 있었다. 다행히 개도 악대 소리에 놀라 멈칫하더니, 이내 꼬리를 내리고 블룸즈버리 광장 쪽으로 되돌아 뛰어갔다.

악단이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의 얼굴을 뵈게 될까?'라는 찬송가를 무의식적인 역설을 담아 떠들어댔다. 인파의 물결이 내 곁을 지나 보도 위로 휩쓸려 지나가기까지, 내게는 영겁 같은 시간이 흐르는 듯했다. 북소리가 진동하며 쿵, 쿵, 쿵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내 옆 난간 앞에 멈춰 선 두 명의 꼬마를 알아채지 못했다.

"저것 좀 봐." 한 아이가 말했다.

"뭘?" 다른 아이가 되물었다.

"저거—맨발 자국 말이야. 진흙에 찍힌 자국 같잖아."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이 발걸음을 멈춘 채, 새로 하얗게 칠한 계단 위로 내가 남긴 진흙 발자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팔꿈치로 밀치며 비켜갔지만, 두 아이는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쿵, 쿵, 쿵, 언제, 쿵, 그분의, 쿵, 얼굴을, 쿵, 보게 될까, 쿵." 한 아이가 말했다. "맨발인 남자가 저 계단을 올라갔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내려오질 않아. 발에서는 피까지 나고 있었단 말이야."

군중의 중심부는 이미 지나간 뒤였다. "저것 좀 봐, 테드." 두 꼬마 탐정 중 어린 쪽이 놀란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내 발치를 곧장 가리켰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진흙이 튼 자국을 따라 내 발의 윤곽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단번에 보였다. 순간,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세상에, 이거 참 이상하구먼.” 나이가 더 많은 아이가 말했다. “정말 이상해! 꼭 발 모양의 유령 같지 않아?” 그 아이는 머뭇거리더니 손을 뻗으며 다가왔다. 한 남자가 무엇을 잡으려는 건지 확인하려다 말고 멈춰 섰고, 뒤이어 한 소녀도 멈춰 섰다.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그는 내 몸에 손을 댔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았다. 내가 발을 내딛자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나는 재빨리 움직여 옆집 현관 포치 안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작은 소년은 눈썰미가 좋아 내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계단을 내려와 보도로 채 내려가기도 전에, 소년은 잠시의 놀라움을 떨쳐내고는 발 모양의 유령이 담장 너머로 넘어갔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달려와 구경했다. 낮은 계단과 보도 위로 나의 새로운 발 자국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발이야! 저길 봐! 발이 달아나고 있어!”

나를 뒤쫓는 세 사람을 제외하고 길 위의 모든 이들이 구세군 행렬을 따라 몰려가고 있었다. 이번 충돌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길도 막히고 말았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인지 묻느라 술렁였다. 나는 젊은 사내 하나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면서까지 겨우 그 사이를

빠져나왔다. 잠시 후, 나는 러셀 광장을 따라 정신없이 질주했고, 놀라움에 가득 찬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내 발자국을 따라 뒤쫓아왔다. 상황을 설명할 겨를 따위는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수많은 인파가 통째로 나를 뒤쫓아왔을 것이다.

“모퉁이를 두 번이나 돌고, 길을 세 번이나 건너갔다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발이 뜨겁고 건조해지기 시작하자 젖은 발자국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숨을 돌릴 틈이 생겼을 때, 나는 손으로 발을 깨끗이 문질러 닦아낸 뒤 완전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추격하던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대략 열두 명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비스톡 광장의 물웅덩이에서 생긴, 천천히 말라가는 발자국 하나를 두고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발자국은 마치 크루소의 고독한 발견처럼, 고립되어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달리기를 한 덕분에 몸에 어느 정도 온기가 돌았고, 그래서 나는 이 근처에 얹혀 있는, 인적이 드문 미로 같은 길들을 조금 더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은 이미 뻣뻣하게 굳어 통증이 심했고, 마부의 손가락에 눌린 편도선도 아려왔습니다. 목 피부는 그의 손톱에 긁힌 상태였습니다. 발은 몹시 아팠고, 한쪽 발에 난 작은 상처 때문에 절뚝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침 눈먼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보여서, 나는 그의 예민한 직관이 두려워 절뚝이며 달아났습니다. 한두 번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영문 모를 욕설을 내뱉으며 나를 황망히 바

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얼굴에 무언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것이 닿았습니다. 광장 위로 눈송이가 얇은 베일처럼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탓에 아무리 참으려 해도 재채기가 자꾸만 터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눈에 띄는 개가 나타날 때마다, 코를 찔룩거리며 호기심 어린 냄새를 맡아대는 그 모습이 내게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남자들과 소년들이 한 명씩, 뒤이어 줄지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묵고 있는 숙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리 아래를 돌아보니, 지붕과 전화선 위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숙소가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표책과 그레이트 포틀랜드 스트리트에 남겨둔 세 권의 메모장을 제외한 내 모든 자산, 즉 옷과 장치를 비롯한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녕 배수진을 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퇴로를 완전히 불살라 버린 셈이었지요. 그곳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XXII장

상점 안에서

지난 1월,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눈이 내 몸에 쌓이기라도 하면 내 존재가 탄로 날 판이었기에, 나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추위와 통증이 몰려왔으며, 말로 다 못 할 비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정말 투명해진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피할 곳도, 쓸 만한 도구도 없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밀을 말하는 순간 내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나는 그저 구경거리나 진기한 볼거리로 전락하고 말 테니 까요. 그럼에도 마음 같아서는 지나가는 행인에게라도 말을 걸어 자비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가갔을 때 그들이 느낄 공포와 잔인한 폭력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을 피할 곳을 찾고, 몸을 가려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투명인간인 나에 게조차, 런던의 집들은 빗장과 창살, 자물쇠로 굳게 잠겨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의 혹독한 추위와 비참함,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워 스트리트에서 토트넘 코트 로드로 이어지는 길 중 하나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물건을 다 파는 거대한 상점인 옴니움 앞에 도착했지요. 아마 아실 겁니다. 고기나 식료품, 린넨, 가구, 의류, 심지어 유화까지 파는 곳 말입니다. 단일 상점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상점들이 구불구불하게 모여 있는 집합체에 가까운 곳이지요.

가게 문이 열려 있을 줄 알았는데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넓은 입구에서 있을 때, 밖에서 마차가 한 대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모자에 ‘옴니움’이라고 적힌 제복을 입은 사람이—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아시겠지요—마차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리본이나 장갑, 스타킹 같은 잡화를 파는 구역을 지나 가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피크닉 바구니와 고리버들 가구를 모아놓은 좀 더 넓은 구역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마음 편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기에,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위

층에 있는 거대한 구역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침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위를 기어 올라가 마침내 접어 놓은 커다란 매트리스 더미 사이에서 쉴 곳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불이 켜진 그곳은 기분 좋게 따듯했습니다. 나는 영업이 끝날 때까지 지금 있는 곳에 머물기로 하고, 매장을 어슬렁거리는 두세 무리의 점원과 손님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영업이 끝나면 음식과 옷을 훔치고, 변장을 한 채 이곳을 뒤지며 필요한 물건들을 살펴보고, 어쩌면 침구 중 하나에서 잠을 잘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꽤 괜찮은 계획이었습니다. 우선은 몸을 적당히 가릴 수 있는 옷을 구해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책과 소지품들을 되찾고, 어딘가에 숙소를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명인간이라는 특성이 (당시 내가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점들을 어떻게 완전히 실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 했습니다.

영업 종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자리를 잡은 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창문의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손님들이 문밖으로 밀려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이어 활기 넘치는 젊은 직원들이 흐트러진 상품들을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파가 줄어들자 나는 은신처에서 나와, 한결 트인 가게 구역으로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낮 동안 진열되어 있던 상품들을 젊은 남녀 직원들이 얼마나 빠르게 치워버리는지 보고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상품 상자며 걸려 있던 천들, 레이스

장식들, 식료품 구역의 사탕 상자, 그리고 여기저기 진열된 잡동사니까지 모두 순식간에 치워졌습니다. 물건들은 건어 올려져 접히고, 정리함 속으로 탁탁 던져졌습니다. 치울 수 없는 물건들은 포대 자루 같은 거친 천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자들까지 모두 카운터 위로 올려놓자 바닥이 말끔히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마치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점원들에게서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서둘러 문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자 톱밥을 뿌리며 양동이와 빗자루를 든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피하느라 몸을 비틀어야 했고, 그 와중에 발목에 톱밥이 튀어 따끔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가게 안을 한참 동안 배회하는 동안, 빗질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마침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에는 정적이 찾아왔고, 나는 홀로 광활하고 복잡한 매장과 복도, 전시실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사방이 아주 고요했습니다. 토트넘 코트 로드 쪽 입구 근처를 지나갈 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 굽 소리가 툭툭 울리는 것이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스타킹과 장갑을 팔던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웠던 탓에 성냥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작은 계산대 서랍 안에서 성냥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양초를 구해야 했습니다. 포장지를 뜯어내고 여러 상자와 서랍을 살살이 뒤진 끝에야 마침내 원하는 물건들을 찾아냈습니다. 상자 라벨에는 양모 속바지와 양모 속셔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양말과 두툼한 목도리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류 매장으로 가서 바지와 라운지 재킷, 오버코트, 그리

고 찡을 아래로 꺾어 쓴 성직자풍의 슬라우치 햇을 챙겼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람다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든 생각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2층에는 간식용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차가운 고기 요리를 좀 먹었습니다. 커피 주전자에는 커피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가스 불을 켜서 커피를 다시 데웠고,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요를 찾아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결국 깃털 이불 더미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초콜릿과 설탕 절임 과일이 가득한 식료품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내 몸에 좋을 양보다 훨씬 많았지만요. 거기에는 화이트 버건디 와인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장난감 코너가 있었는데, 문득 아주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짜 코를 몇 개 찾아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형으로 만든 코 말입니다. 검은색 안경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옴니움 백화점에는 안경을 파는 광학 코너가 없었습니다. 내 코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말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페인트를 칠할까도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가짜 코를 발견하자 머릿속에는 가발이나 가면 같은 것들이 줄지어 떠올랐습니다. 결국 나는 깃털 이불 더미 속에 몸을 파묻고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지막 생각은 변화를 겪은 이후 가장 유쾌했다. 몸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고, 그 평온함은 마음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나는 내일 아침이면 옷을 챙겨 입고, 미리 가져온 흰색 천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챙겨온 돈으로 안경 같은 물건들도 사서 변장을 완벽히 마칠 작정이었

다. 그러다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그 기괴한 사건들을 떠올리며 어지러운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자신의 방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못생긴 유대인 여관 주인을 보았다. 경악하는 그의 두 아들과, 고양이를 찾으며 주름진 얼굴을 일그러뜨리던 노파의 모습도 보였다. 천이 사라지던 그 기묘한 감각이 다시금 느껴졌다. 그러다 나는 바람 부는 언덕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열린 무덤 앞에서 "흙에서 흙으로, 재에서 재로, 먼지에서 먼지로"라고 중얼거리는 코를 훌쩍이는 늙은 목사를 마주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무덤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나는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며 조문객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냉담하게 장례 절차를 이어갈 뿐이었다. 늙은 성직자 역시 의식을 읊조리며 코를 훌쩍일 뿐, 결코 흐트러짐이 없었다. 나는 내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라는 것과, 압도적인 힘이 나를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다. 나는 결국 벼랑 끝으로 밀려났다. 관 위로 떨어지는 내 몸에 텅 빈 울림이 전해졌고, 삽으로 퍼 올린 흙더미가 내 뒤를 따라 쏟아져 내렸다. 아무도 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경련하듯 몸부림치다 마침내 깨어났다.

런던의 창백한 새벽이 밝아왔다. 창문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든 서늘한 회색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잠시 동안은 이 넓은 방이 대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카운터와 돌돌 말린 물건 더미, 쌓여 있는 누비이불과 쿠션들, 그리고 철제 기둥들

까지. 그러다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자, 멀리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저 멀리, 이미 블라인드를 올린 어느 구역의 밝은 조명 아래로 두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도망칠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급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그들이 내 존재를 알아차리고 말았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어떤 형체가 조용하고 빠르게 멀어지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한 사람이 "저게 누구야?"라고 외쳤고, 다른 한 사람은 "거기 서!"라고 소리쳤다. 나는 모통이를 돌아 전속력으로 달리다가—명심하게, 얼굴 없는 형체인 내가 말일세!—열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큰 소년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소년이 비명을 질렀고, 나는 소년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그대로 지나쳐 달려갔다. 다시 한번 모통이를 돌았을 때, 나는 번뜩이는 기지로 카운터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발소리가 내 옆을 급히 지나갔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문으로 모여!" 누군가는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고, 또 다른 이들은 나를 어떻게 잡을지 서로 조언을 주고받았다.

땅바닥에 쓰러진 나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겁에 질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인 옷을 벗어 던질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아마도 옷을 입은 채로 도망치겠다는 마음을 이미 굳혔던 모양이다. 그 생각이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진열대 사이로 "저기 있다!" 하는 고함이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카운터 위에 있던 의자를 낚아챘다. 그리고 소리를 지른 그 바보를 향해 의자를 힘껏 내던졌다. 나는 몸을 돌려 모퉁이를 돌아 달아났고, 그를 휘청거리게 만든 뒤 곧장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는 넘어지지 않고 버티더니,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내 뒤를 바짝 쫓아 계단을 올라왔다. 계단 위에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향아리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대체 그것들이 무엇이란 말인가?

“예술품용 향아리 말인가요?” 켐프 박사가 제안했다.

"바로 그거야! 예술품용 향아리. 자, 나는 계단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몸을 뒹 돌렸다. 그러고는 쌓여 있는 향아리 중 하나를 집어 들고, 나에게 달려드는 그 멍청한 녀석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그러자 향아리 더미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고, 사방에서 고함과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미친 듯이 음식점 쪽으로 달려갔다. 그때 요리사처럼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나를 뒤쫓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방향을 틀었고, 어느새 등불과 철물들이 가득한 곳에 이르렀다. 나는 계산대 뒤로 몸을 숨긴 채 그 요리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추격대의 맨 앞에서 그가 들이닥치는 순간, 나는 등불로 그를 후려쳐 쓰러뜨렸다. 그는 그대로 고꾸라졌고, 나는 계산대 뒤에 웅크린 채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코트와 재킷, 바지, 신발은 괜찮았지만, 양모 조끼는 마치 피부처럼 몸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요리사는 기절했는지 겁에 질려 말도 못 하는지 계산대 반대편에 조용히 쓰러져 있었고, 나는 마치 장작더미에서 쫓겨나는 토끼처럼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이쪽이다, 경찰관 양반!"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다시 옷장들이 숲처럼 어지럽게 늘어선 침대 옆 창고 안에 있었다. 나는 옷장 사이를 미친 듯이 헤치며 달렸다. 그러다 몸을 바짝 낮추고, 한참을 몸부림친 끝에 겨우 조끼를 벗어 던졌다. 경찰관과 세 명의 점원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을 때, 나는 숨을 헐떡이며 공포에 질린 채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서 있었다. 그들은 내가 벗어 놓은 조끼와 속바지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중 한 명이 바지를 낚아챘다. 젊은 점원 중 한 명이 말했다. "너석이 훔친 물건들을 흘리고 있잖아.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나를 찾아내지 못했다."

나는 한동안 그들이 나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옷을 잃어버린 내 불운을 저주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간이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우유를 조금 찾아 마신 뒤, 불가에 앉아 내 처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조수 두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바보들답게 아주 흥분한 기색으로 업무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내 만행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내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에 대한 온갖 추측도 엿들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다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이곳은 이미 경계 태세가 발령된 상태라, 물건을 훔쳐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혹시라도 물건을 포장해서 주소를 적어 보낼 방법이 있을까 싶어 창고로 내려가 보았지만, 물건을 검수하는 체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11시쯤 되었을 무렵, 내리던 눈이 녹으면서 날씨는 전날보다 조

금 더 맑고 따뜻해졌다. 나는 이 백화점에서 더 이상 성과를 거두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결국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실패에 대한 짜증만 가득 안고 다시 밖으로 나섰다.

제XXIII장

드루리 레인에서

“하지만 이제야 당신도 깨닫기 시작했겠지.” 투명인간이 말했다.
“내 처지가 얼마나 불리한지를 말아야. 나에겐 몸을 숨길 은신처도, 가릴 수 있는 덮개도 없었어. 옷을 입으려 하면 내 모든 이점은 사라지고, 그저 기괴하고 끔찍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 뿐이지. 게다가 나는 굶주린 상태였어. 음식을 먹어 소화되지 않은 물질로 배를 채우는 순간, 나는 다시 기괴할 정도로 눈에 띄는 모습이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했군요.” 캠프 박사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네. 눈은 다른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지. 눈이 내릴 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 눈이 내 몸에 쌓이면 내 형체가 드러날 테니까. 비도 마찬가지야. 비를 맞으면 물기가 어린 윤곽이 생겨서, 마치 번들거리는 사람의 표면, 그러니까 거대한 비눗방울처럼 보일 테니까. 안개는 또 어떻겠나. 안개 속에서는 희미한 비눗방울처럼, 그저 인간의 형상을 한 기름진 빛줄기처럼 보일 뿐이겠지. 게다가 런던의 공기

속을 돌아다니다 보면 발목에 오물이 묻고, 피부 위로 그을음과 먼지가 떠다니며 달라붙었네. 그런 이유 때문에 언제쯤 내 몸이 눈에 띄게 될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상태가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는 사실이었네."

"어쨌든 런던에서는 오래가지 못하겠죠."

나는 그레이트 포틀랜드 스트리트 쪽의 빈민가로 들어갔다. 그러다 내가 묵었던 거리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내가 불을 지른 집의 잔해가 여전히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그 맞은편 거리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 당장 내게 닥친 가장 급한 문제는 옷을 구하는 것이었다. 얼굴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다 신문, 사탕, 장난감, 문구류, 뒤늦게 팔리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같은 잡화들을 파는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가면과 코 모양의 장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직감했다. 순식간에 나아갈 길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목적지 없이 헤매지 않았다. 변화한 길을 피하기 위해 우회하며 스트랜드 북쪽의 뒷골목을 향해 움직였다. 그 지역에 연극의 상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날은 추웠고, 북쪽으로 뻗은 거리마다 살을 에듯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나는 누군가에게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길

을 건널 때마다 위험이 도사렸고, 스쳐 지나가는 행인 하나하나를 예의 주시해야 했다. 베드퍼드 거리 언덕에서 한 남자를 지나치려던 찰나, 그가 갑자기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며 부딪쳐 왔다. 그 충격에 나는 도로 위로 나동그라졌고, 하마터면 지나가던 한섬 마차 바퀴에 깔릴 뻔했다. 마차 대기소에 있던 사람들은 그 남자가 뇌졸중이라도 일으킨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이 일로 어찌나 신경이 곤두섰던지, 나는 코번트 가든 시장으로 들어가 제비꽃 가판대 옆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한동안 숨을 헐떡이며 몸을 떨었다. 그러다 감기에 새로 걸린 것을 깨닫고, 재채기 소리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릴까 두려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떴다.

마침내 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드러리 레인 근처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파리 떼가 들끓고 지저분한 작은 가게였다. 진열창에는 반짝이는 가짜 망토와 가짜 보석, 가발, 슬리퍼, 도미노 가면, 그리고 연극 사진들이 가득 차 있었다. 가게 안은 낮고 낮으며 어두웠고, 그 위로 4층 높이의 어둡고 음산한 건물이 솟아 있었다. 나는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쉿그랑거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나는 문을 열어둔 채, 텅 빈 의상 거치대를 돌아 전신 거울 뒤편 구석으로 걸어 들어갔다. 1분 정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다 누군가 방을 가로질러 쿵쾅거리며 걷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가 가게 안쪽에서 나타났다.

이제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졌다. 우선 집 안으로 들어가 2층에 몸을 숨긴 뒤 기회를 엿볼 생각이었다. 그러다 주변이 모두 조용해지면 가발과 가면, 안경, 그리고 옷가지들을 살살이 뒤져 찾아내기로 했다. 그렇

게 차림을 갖추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 비록 기괴해 보일지언정 남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집 안에 있는 돈도 얼마든지 챙길 수 있을 터였다.

가게로 막 들어선 남자는 키가 작고 왜소했으며, 등이 굽고 눈썹이 무거운 인상이었다. 팔은 길었지만 다리는 안짱다리로 매우 짧았다. 보아하니 내가 식사 시간을 방해한 모양이었다. 남자는 무언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가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기대감은 놀라움으로, 다시 분노로 바뀌었다. “빌어먹을 녀석들!” 남자가 내뱉었다. 그는 거리 끝까지 훑어보며 서 있었다. 잠시 후 다시 가게로 들어온 남자는 발로 문을 찾김에 걷어차더니, 무언가 투덜거리며 집 문 쪽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그를 뒤따라가려고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는 그 자리에 딱 멈춰 섰다. 그의 예민한 청각에 놀란 나 역시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이윽고 그는 내 눈앞에서 집 문을 쿵 닫아버렸다.

나는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서둘러 되돌아오는 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다시 열렸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 만족하지 못한 사람처럼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그러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카운터 뒷면을 조사하고 집기들 뒤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그는 의구심이 드는 듯 멈춰 섰다. 그가 집 대문을 열어둔 사이, 나는 슬그머니 안쪽 방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그곳은 가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묘하고 작은 방이었고, 구석에는 커다란 가면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그가 뒤늦게 차린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는데, 켄프, 그가 들어와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 동안 그 커피 냄새를 맡으며 멍하니 지켜보고 서 있어야 한다는 건 나로서는 정말이지 미칠 듯이 짜증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그의 식사 예절 또한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작은 방에는 세 개의 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위층으로, 다른 하나는 아래층으로 이어졌으나 모두 닫혀 있었다. 그가 있는 동안 나는 방을 나갈 수도 없었다. 그가 워낙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피는 바람에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등 뒤로는 찬바람까지 뽀뽀 불어왔다. 나는 두 번이나 터져 나오려는 재채기를 간신히 참아내야 했다.

내 감각의 극적인 면모는 기이하고도 새로웠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가 식사를 다 끝내기 훨씬 전부터 진저리가 날 만큼 지치고 화가 나 있었다. 마침내 식사를 끝낸 그는 초라한 그릇들을 찻주전자가 놓여 있던 검은 양철 쟁반 위에 올려놓았다. 이어 겨자 얼룩이 진 천 위에 흩어진 빵 부스러기까지 모아 챙기더니, 그 모든 것을 들고 방을 나갔다. 짐 때문에 그는 평소 같았으면 했을 일, 즉 등 뒤로 문을 닫는 일을 하지 못했다—그자만큼 문이라면 꼬박꼬박 닫고 다니는 사람은 내 평생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를 따라 몹시 지저분한 지하 주방과 설거지실까지 들어갔다. 그가 설거지를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도 잠시, 아래층에 계속 있어 봐야 좋을 게 없다는 생각과 발에 닿는 벽돌 바닥의 냉기 때문에 나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와 그가 앉았던 벽난로 옆 의자에 앉았다. 불이 사그라들고 있기에 나는 별생각 없이 석탄을 조금 더 넣

었다. 그 소리에 그가 즉시 올라와 나를 매섭게 노려보며 섰다. 그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 하마터면 나를 건드릴 뻔했다. 그렇게 살펴보고도 그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기색이었다. 그는 문간에 멈춰 서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방 안을 점검했다.

나는 작은 응접실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올라와 위층 문을 열었다. 나는 간신히 그의 곁을 지나칠 수 있었다.

그는 계단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 나는 하마터면 그와 정면으로 부딪칠 뻔했다. 그는 뒤를 돌아 내 얼굴을 뻗히 응시하며 무언가에 귀를 기울였다. “맹세코 분명히 있었는데.” 그가 말했다. 털이 무성하고 긴 손이 그의 아랫입술을 잡아당겼다. 그는 계단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툭툭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시 위로 올라갔다.

그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금 얼굴에 당혹스러운 분노를 띤 채 멈춰 섰다. 그가 내 움직임에서 비롯된 희미한 소리를 알아채기 시작한 것이다. 그 남자는 악마처럼 예민한 청력을 가진 게 분명했다. 그는 갑자기 울컥 화를 내질렀다. "만약 이 집에 누군가 있다면—"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위협을 채 끝내지도 못한 채 말을 끊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찾으려 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그러고는 나를 거칠게 지나쳐, 소란스럽고 공격적인 기세로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갔다. 하지만 나는 그를 뒤쫓지 않았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계단 머리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다시 나타났다. 그러더니 방 문을 열더니, 내가 채 들어가기도 전에 내 면전에서 문을 광 닫아버렸다.

나는 집 안을 살펴보겠다고 결심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한참 동안 집 안을 뒤졌다. 집은 매우 낡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습기가 가득해 다락방 벽지는 너털너털하게 벗겨져 있었고, 쥐뽀가 들끓었다. 문손잡이 중 몇 개는 뻑뻑해서 돌리기가 겁날 정도였다. 살펴본 방들 중 몇 곳은 가구 하나 없이 비어 있었고, 다른 방들은 중고로 들여온 듯한 연극 소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의 방 바로 옆 방에서는 헌 옷더미를 잔뜩 발견했다. 나는 그 옷더미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찾으려는 열의에 눈이 멀어, 그의 청력이 얼마나 예민한지 그만 다시 잊고 말았다.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그는 구겨진 옷더미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손에는 구식 리볼버를 든 채 서 있었다. 나는 그가 입을 벌린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위를 살피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 여자임이 틀림없어.” 그가 느릿하게 말했다. “빌어먹을 여자!”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고, 곧이어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제야 나는 내가 방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문과 창문을 왔다 갔다 하며 서성였지만,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었다. 갑자기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일단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옷가지들부터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옷을 살피려던 첫 시도에 그만 선반 위에서 옷더미가 쏟아지고 말았다. 그 소리에 그가 다시 돌아왔다. 이전보다 훨씬 더 불길한 기운을 풍기면서였다. 이번에는 그가 실제로

나를 건드리고 말았다.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더니, 방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윽고 그는 조금 진정된 듯했다.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낮은 목소리로 ‘취새끼들인가’라고 말했다. 분명 겁을 먹은 기색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방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바닥 판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그 빌어먹을 맹랑한 놈이 권총을 손에 든 채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하나하나 잠그며 열쇠를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그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깨닫는 순간,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기회를 엿보려 해도 자제력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때쯤 나는 그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래서 더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머리를 내리쳤다고요?” 캠프 박사가 외쳤다.

“그래요, 계단을 내려가던 그를 기절시켰죠. 계단참에 있던 의자로 뒤통수를 내리쳤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낡은 장화 자루마냥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인류가 지켜온 보편적인 관습이라는 게 있지 않소—”

“평범한 사람들에게겐 다 괜찮은 일이지. 하지만 캠프, 내 요점은 그자가 나를 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그 집에서 빠져나와야 했다는 거야. 다른 방법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루이 콰트로르 조끼로 그자의 입을 틀어막고 시트로 꾹꾹 묶어버렸지.”

“시트로 그를 꼼꼼 묶어버렸어!”

“일종의 주머니 같은 걸 만들었지. 그 바보를 겁에 질려 조용히 있게 만드는 건 꽤 괜찮은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놈이 끈에서 머리를 떼지 못하게 만드는 건 정말이지 지독하게 어려운 일이었지. 이보게, 캠프 박사. 마치 내가 살인자라도 되는 양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 봐야 아무 소용없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놈에겐 리볼버가 있었다고. 만약 그놈이 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나를 묘사할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다 해도,” 캠프 박사가 말했다. “오늘날의 영국에서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자기 집에 있었고, 당신은—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강도질이라니! 제기랄! 다음번엔 나를 도둑놈이라고 부르겠군! 캠프, 설마 자네는 예전의 그 뻔한 수법에 놀아날 만큼 어리석은 건 아니겠지?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보이지 않는 건가?”

“그 사람 처지도 봐야지요.” 캠프 박사가 말했다.

캠프 박사의 얼굴이 다소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막 입을 열려다 말고 멈췄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말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당신도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물론 난 곤경에 처해 있었지. 아주 지독한 곤경 말이야. 게다가 그 자가 날 미치게 만들었어. 집 안 여기저기로 나를 쫓아다니며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문을 잠갔다 열었다 하면서 말이야. 정말이지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어. 자네도 날 탓하지는 않겠지? 날 탓하지는 않을 거지?”

“난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캠프 박사가 말했다. “그건 이제 구시대적인 방식이지요. 그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고팠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빵 한 덩이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치즈가 있었다. 허기를 채우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 양이었다. 브랜드에 물을 타서 마신 뒤, 나는 임시변통으로 꾸려 놓은 보따리—그는 아주 가만히 누워 있었다—를 지나 헛 옷들이 있는 방으로 올라갔다. 그 방은 거리 쪽으로 창이 나 있었는데, 때가 타서 갈색으로 변한 레이스 커튼 두 장이 창문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커튼 사이의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눈부시게 밝았다. 내가 처한 이 음울한 저택의 갈색 그림자와는 대조적으로 눈이 부실 정도였다. 거리에는 활기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과일 수레와 한섬 택시, 상자가 쌓인 사륜마차가 지나갔고, 생선 장수의 수레도 보였다. 눈앞에 색색의 잔상이 어른거리는 가운데, 나는 뒤편의 어둡한 가구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흥분은 가라앉고, 내가 처한 상황이 다시금 명확하게 실감 나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옷을 세척할 때 쓰는 벤졸린의 희미한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그곳을 체계적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내 짐작으로는 그 곱추가 집 안에 혼자 머문 지 꽤 된 듯했다. 그는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었다.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옷 보관실로 모은 뒤, 신중하게

골라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소지품으로 적당해 보이는 핸드백 하나를 찾아냈고, 가루 분과 연지, 그리고 반창고도 몇 개 찾아냈다.

나를 다시 보이게 만들려고 얼굴을 비롯해 몸에 드러나는 모든 곳에 색을 칠하거나 가루를 뿌릴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시 투명해지기까지 테레빈유 같은 약품과 여러 도구,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결국 나는 차라리 나은 쪽을 택하기로 했다. 약간 기괴하긴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가면을 쓰고, 검은 안경과 회색빛 수염, 그리고 가발을 갖춰 썼다. 속 옷은 구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사면 그만이었다. 당장은 면직물로 된 도미노 망토와 흰색 캐시미어 스카프를 몸에 돌렸다. 양말도 찾지 못했지만, 곱추가 신던 장화가 다소 헐렁하긴 해도 대신 신기에 충분했다. 가게 책상 안에는 금화 세 닢과 은화 30실링 정도가 있었고, 안쪽 방의 잠긴 찬장을 부수자 금화 8파운드가 나왔다. 이제 나는 모든 채비를 마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때 기묘한 망설임이 찾아왔다. 내 모습이 정말로 그럴듯해 보일까? 나는 혹시라도 놓친 틈새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침실에 있는 작은 거울로 내 몸을 구석구석 살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연극 무대의 구두쇠 역할이라도 맡은 것처럼 기괴한 차림새이긴 했으나,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모습은 아니었다. 나는 자신감을 얻고 거울을 들고 가게로 내려갔다. 가게 셔터를 내린 뒤, 구석에 놓인 전신 거울을 이용해 내 모습을 다각도에서 훑어보았다.

나는 몇 분 동안 마음을 다잡으며 용기를 냈다. 그리고는 가게 문을 열고 거리로 당당히 걸어 나갔다. 그 작은 남자는 내키면 알아서 다시 천을 풀고 빠져나오도록 내버려 둔 채였다. 5분쯤 지나자 의상점과 나 사이에는 열두 개의 골목이 들어섰다. 아무도 나를 유심히 살피는 것 같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난관을 극복한 듯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 뒤로 그 곱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까?” 켄프 박사가 물었다.

“아니오.” 투명인간이 말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듣지 못했소. 아마 스스로 매듭을 풀었거나 발길질로 차고 나왔겠지. 매듭이 꽤 단단했으니까 말이오.”

그는 침묵에 잠기더니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스트랜드 거리에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또다시 환멸이라니. 내 고난은 이제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비밀을 누설하지만 않는다면, 무엇을 하든 아무런 제약이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 결과가 어떠하든 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옷을 벗어 던지고 사라지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호화로운 만찬을 즐긴 뒤, 좋은 호텔에 머물며 새 옷과 소지품들을 갖추기로 마

음먹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흘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떠올리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군요.

어느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주문하던 참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투명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일단 주문을 마친 뒤, 10분 뒤에 돌아오겠다고 종업원에게 말하고는 화가 치밀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식욕이 갑자기 사라져 실망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지만,” 캠프 박사가 말했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 어리석은 놈들을 당장이라도 때려눕히고 싶었네. 마침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다는 갈망에 허기가 진 나머지, 나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별실을 달라고 했지. ‘내 얼굴이 흉하게 망가졌소.’ 내가 말했네. ‘아주 심하게 말ियो.’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당연히 그들이 참견할 일은 아니었지. 그렇게 해서 겨우 점심을 먹을 수 있었네. 음식은 딱히 훌륭하지 않았지만 배를 채우기엔 충분했어. 식사를 마친 뒤에는 시가를 하나 피워 물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궁리하며 앉아 있었지. 그리고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네.”

“캠프, 생각을 거듭할수록 깨닫게 되더군. 춥고 지저분한 기후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문명 도시에서 투명인간이란 얼마나 무력하고 터무니없는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말이야. 이 미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수만 가지 이점만을 꿈꿨지. 하지만 그날 오후, 그 모든 꿈은 실망으로

바뀌었어. 인간이 갈망하는 가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는데, 투명해
진다는 것이 그 가치들을 손에 넣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막상 손에 넣었을 때 그것들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더군.

야망이라니, 정작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여인을 사랑한다 한들, 그 여인의 이름이 필연
적으로 텔릴라처럼 배신자로 낙인찍혀야 한다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
가 있겠나? 나는 정치에도, 명성이 가져다주는 비열한 행태에도, 박애
주의나 스포츠 같은 것에도 흥미가 없네. 그런데 나는 대체 무엇을 해
야 한단 말인가? 고작 이런 꼴이 되려고, 온몸을 꿈꿨던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자 봉대를 칭칭 감은 인간의 희화화된 모습이 되려고 이 고
생을 했던 말인가!”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창밖을 두리번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
다.

“그런데 아이핑까지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캠프 박사가 물었다. 손
님이 계속 말을 이어가게끔 유도하려는 의도였다.

“그곳에 간 건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죠. 그건 아직 미완성된 구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구상은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구체화된 계획이 되었
죠. 다시 되돌아갈 방법 말입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되돌려 놓을 방
법 말이에요. 제가 원할 때, 투명인간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마
친 뒤에 말입니다. 지금 제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도 바로 그 점입니다.”

“곧장 아이핑으로 가셨다고요?”

“맞습니다. 그저 메모를 적어둔 세 권의 수첩과 수표책, 짐과 속옷을 챙기기만 하면 됐지요. 그리고 내 구상을 완성할 화학 약품들을 주문했습니다. 책을 찾는 대로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지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이제야 그 눈보라가 생각나는군요. 종이로 만든 내 코가 눈에 젖지 않게 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서는 말입니다,” 캠프 박사가 말했다. “그저께 사람들이 당신의 정체를 알아냈을 때, 당신은 좀—신문 기사로 미루어 보건대—”

“그랬지. 꽤나 그랬어. 내가 그 멍청한 경관을 죽였나?”

“아니오.” 캠프 박사가 말했다. “그는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그놈 팔자겠지. 바보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어! 왜 다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그 식료품점 멍청이 놈은 또 어떻게?”

“사망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프 박사가 말했다.

“그 부랑자 놈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군.” 투명인간이 불쾌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세상에, 캠프 박사, 당신은 진정한 분노가 무엇인지 몰라! ... 수년간 연구에 매달리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을 들였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건 눈먼 멍청이의 서툰 방해뿐이라니! ... 세상에 태어난 온갖 어리석은 것들이 죄다 나를 방해하려고 달려드는 기분이야!”

“이게 더 많아지면 난 미쳐버릴 거야. 아예 다 베어버리고 말 거라고.”

“지금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그들이 일을 천 배는 더 어렵게 만들었어.”

“참으로 속 터지는 일이겠군요.” 캠프 박사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제XXIV장

실패한 계획

“하지만 이제,” 캠프 박사가 창밖을 결눈질하며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말을 이어가며 손님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오는 세 남자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캠프의 눈에는 그들의 걸음걸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느릿느릿해 보였다.

“포트 버독으로 향하던 그때, 대체 무엇을 하려던 참이었나? 무슨 계획이라도 있었던 건가?”

“이 나라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뒤로 계획을 좀 바꿨지요. 날씨도 더워졌고 투명해지는 것도 가능해졌으니, 이제는 남쪽으로 향하는 게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비밀이 이미 알려진 마당에,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옷을 푹푹 싸맨 남자를 눈에 불

을 켜고 찾으려 들 테니까요. 여기서 프랑스로 가는 정기선이 여러 척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배에 올라타 항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기차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거나 알제리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곳이라면 투명인간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원하는 일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책과 물건들을 어떻게 나에게 보낼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부랑자를 돈통이자 짐꾼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군요.”

“그런데 그 더러운 짐승 같은 놈이 감히 나를 강도질하려 들다니! 캠프, 그놈이 내 책들을 숨겼어. 내 책들을 숨겼단 말이야! 그놈을 내 손에 잡기만 해 봐!”

“우선 그에게서 책들을 어떻게 빼낼지 계획을 세우는 게 최선이겠군.”

“하지만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는 지금 마을 경찰서에 갇혀 있습니다. 본인의 요청에 따라 그곳에서 가장 견고한 독방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빌어먹을!” 투명인간이 내뿔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계획이 좀 틀어지겠군요.”

“그 책들을 반드시 찾아야 하네. 그 책들은 아주 중요해.”

“물론이네.” 캠프 박사가 약간 긴장한 기색으로 말했다. 그는 혹시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 것은 아닌지 의아해하며 덧붙였다. “그 책들은 반드시 확보해야지. 하지만 그가 그 책들이 자네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 모른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걸세.”

“아니,” 투명인간이 말하며 생각에 잠겼다.

캠프 박사는 대화를 이어갈 만한 화젯거리를 찾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투명인간이 스스로 다시 말을 이었다.

“캠프, 자네가 내 집에 불쑥 들이닥치는 바람에 내 계획이 전부 틀어져 버렸네.” 그가 말했다. “자네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 이 지긋지긋한 소문들, 책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과 내가 겪은 고통을 다 떠나더라도, 아직 엄청난 가능성이 남아 있네. 정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말이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겠지?” 그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캠프 박사가 머뭇거렸다. “그야 굳이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네.” 그가 말했다.

“정말 한 사람한테도 말 안 했나?” 그리핀이 다그치듯 물었다.

“단 한 사람한테도 말하지 않았네.”

“아! 이제야—” 투명인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서재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캠프,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이 일을 혼자서 밀고 나가려 했던 게 정말 엄청난 실수였어. 힘과 시간, 그리고 기회까지 모두 낭비하고 말았지. 혼자서라니—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지, 참으로 놀라울 정도야! 아주 조금 흠치거나, 아주 조금 해를 끼치는 것조차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 말이야.”

“캠프, 내가 원하는 건 골키퍼 같은 존재야. 나를 도와줄 사람, 그리고 숨을 곳이 필요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곳에서 잠자고, 먹고,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 말이야.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줄 동조자가 있어야 해. 동조자만 있고, 먹을 것과 쉴 곳만 보장된다면, 수만 가지 일을 해낼 수 있어.”

“지금까지 나는 막연하게만 해왔어. 이제 우린 투명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그 모든 걸 따져봐야 해. 투명해진다고 해서 남의 대화를 엿듣는 데 큰 이점이 있는 건 아니야. 움직이면 소리가 나니까. 빈집털이 같은 일에도 별로 도움이 안 돼. 약간은 될지 몰라도 말이야. 일단 나를 붙잡기만 하면 자네들은 나를 아주 쉽게 가둘 수 있겠지. 하지만 반대로, 나를 붙잡는 일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아. 사실 이 투명함은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쓸모가 있어. 도망칠 때, 그리고 접근할 때지. 그러니 살인을 저지를 때 특히 쓸모가 있어. 상대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든, 나는 그자 주위를 마음껏 돌아다니며 공격할

지점을 고르고, 내키는 대로 내리치고, 내키는 대로 피하고, 내키는 대로 달아날 수 있으니까.”

캠프 박사가 손을 들어 콧수염을 만졌다. 방금 아래층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었던가?

“그리고 캠프, 우린 사람을 죽여야만 하네.”

“우리가 살인을 저질러야 한다는 건가.” 캠프 박사가 되풀이했다. “그리핀, 자네 계획은 듣고 있네만, 그렇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야. 명심하게. 도대체 ‘왜’ 살인인가?”

“제멋대로 죽이는 게 아니야.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살육이지. 핵심은 이거야. 우리가 투명인간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그들도 투명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지. 캠프, 이제 그 투명인간은 공포 정치를 펼쳐야만 해. 그래, 분명 충격적인 이야기겠지. 하지만 진심이야. 공포 정치라고. 그는 자네가 사는 버독 같은 마을 하나를 골라, 그곳을 공포로 몰아넣고 지배해야 해. 명령도 내려야 하고. 방법은 수천 가지나 있어. 문틈 사이로 종이 조각 하나를 밀어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그리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 죽여야 해. 그들을 지키려는 자들 역시 모조리 죽여야만 하고.”

“흥!” 캠프 박사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이제 그리핀의 말에는 귀를 닫은 채, 그의 집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내 생각엔 말이야, 그리핀,” 그는 탄 데로 흐르는 정신을 다잡으려는 듯 말을 건넸다. “자네 공범이 참 난처한 처지에 놓이겠어.”

“아무도 그가 공범인 줄 모를 거야.” 투명인간이 간절하게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멈췄다. “쉴! 아래층에 저게 무슨 소리지?”

“아무것도 아니네.” 캠프 박사가 대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난 이 일에 동의하지 않네, 그리핀. 내 말을 똑 똑히 듣게, 난 절대 동의할 수 없네. 어째서 인류 전체를 상대로 게임을 벌이겠다는 망상을 하는 건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겠나? 혼자서 고립된 늑대처럼 굴지 말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나. 세상을, 적어도 이 나라 전체를 자네의 편으로 끌어들이란 말일세. 수백만 명의 조력자가 자네를 돕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캠프 박사가 말했다.

“어디 보자.” 투명인간이 말했다. 그는 팔을 뻗은 채 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 뒤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캠프 박사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그를 가로막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투명인간이 움찔하며 그대로 멈춰 섰다. “배신자 놈!” 목소리가 외쳤다. 그러자 갑자기 가운데 벌어진 지더니, 형체 없는 존재가 자리에 앉아 옷을 벗기 시작했다. 캠프 박사가 문을 향해 세 걸음 빠르게 내디뎠을 때, 다리가 이미 사라진 투명인

간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캠프 박사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래층에서 급히 발을 옮기는 소리와 사람들의 목 소리가 들려왔다.

캠프는 재빨리 움직여 투명인간을 밀쳐낸 뒤 옆으로 몸을 날리며 문을 광 닫았다. 열쇠는 문 바깥쪽에 바로 쓸 수 있게 놓여 있었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그리핀은 벨베데레 서재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변수가 있었다. 그날 아침, 열쇠를 서둘러 끼워 넣었던 탓에 캠프가 문을 닫는 순간 열쇠가 카펫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만 것이다.

캠프 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양손으로 문손잡이를 움켜쥐려 애썼다. 잠시 동안 그는 버티듯 서 있었다. 그러다 문이 6인치 정도 벌어졌다. 하지만 그는 다시 문을 닫는 데 성공했다. 두 번째에는 문이 1피트나 확 열려버렸고, 그 틈 사이로 가운데가 끼어 들어왔다.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그의 목을 죄어왔고,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뒤로 밀려나다 발이 걸려 넘어졌고, 계단참 구석으로 무겁게 처박혔다. 그러자 주인 없는 가운데가 그의 위로 덮쳐왔다.

계단 중간쯤에는 버독 경찰의 책임자이자 캠프 박사의 편지를 받은 당사자인 애디 대령이 서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캠프 박사를 보고 경악한 채 굳어버렸다. 뒤이어 옷가지들만이 허공에서 맥없이 흔들리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대령의 눈앞에서 캠프 박사는 쓰러졌다

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다. 그러더니 다시 앞으로 달려나가다 마치 소가 도살당하듯 힘없이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그는 격렬한 충격을 받았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 다! 거대한 무게가 그를 덮친 듯했다. 누군가 그의 목을 움켜쥐고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짚어 누르며, 그를 계단 아래로 거칠게 내동댕이쳤다. 보이지 않는 발이 그의 등을 짓밟았고, 유령 같은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아래로 사라졌다. 복도에서는 경찰관 두 명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집 현관문이 쿵 하고 세차게 닫혔다.

그는 몸을 돌려 일어나 앉은 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캠프 박사의 모습이 보였다. 캠프 박사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몰골이 엉망이었고, 한쪽 얼굴은 한 대 얻어맞아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분홍색 가운과 속옷 몇 가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

“세상에!” 캠프 박사가 외쳤다. “이제 다 끝났어! 그가 사라졌다고!”

제XXV장

투명인간을 쫓아서

잠시 동안 캠프 박사는 방금 일어난 급박한 상황을 애디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만큼 말을 더듬었다. 두 사람은 계단참에 서 있었다. 캠프 박사는 그리핀의 기괴한 붕대 더미를 여전히 팔에 안은 채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곧 애디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미쳤어요.” 캠프 박사가 말했다. “비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로지 이기심뿐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안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잔인한 탐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그는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공포를 몰고 올 거예요. 그 무엇도 그를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그가 나가고 있어요. 몹시 분노한 상태로 말입니다!”

“그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애디가 말했다.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캠프 박사가 외쳤다. 그는 순식간에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듯했다.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즉시 투입하십시오. 그가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일단 도망치기라도 하면, 그는 시골 마을을 제멋대로 휘저으며 사람들을 죽이고 해칠 것입니다. 그는 공포 정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공포 정치를 꿈꾸고 있다고요. 기차와 도로, 그리고 선박까지 모두 감시해야 합니다. 주둔군도 도와야 할 겁니다. 전보를 쳐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를 이곳에 묶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연구 노트 몇 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죠. 당신네 경찰서에 마블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애디가 말했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책들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랑자는…….”

“그는 자기한테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부랑자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자가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밤낮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감시해야 합니다. 모든 음식은 자물쇠로 잠가서 단단히 치워 두십시오. 음식이란 음식은 모조리요. 그래야 그자가 음식을 손에 넣으려면 부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게 테니까요.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를 경계해야 합니다. 제발 밤마다 찬바람이 불고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군요! 온 마을 사람들이 사냥꾼이 되어 그를 끝까지 뒤쫓아야 합니다. 애디, 분명히 말하는데 그자는 위험한 존재이자 재앙입니다. 그자를 붙잡아 가두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디가 말했다. “당장 내려가서 조직을 꾸리기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요, 선생도 같이 가시죠! 어서요, 가서 일종의 비상 대책 회의라도 열어야 합니다. 흡스에게 도움을 청하고, 철도 관리인들도 불러 모으고요. 세상에, 정말 급한 일입니다! 어서 움직이시죠. 가는 길에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물건은 일단 내려놓으시죠.”

잠시 후, 애디가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경찰관들은 밖에서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며 서 있었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도망쳤습니다, 대령님.”

“당장 중앙역으로 가야 하네.” 애디가 말했다. “자네들 중 한 명은 어서 내려가서 우리를 데리러 올 마차를 잡아오게. 서둘러야 해. 자, 캠프, 그 외에 또 다른 건 없나?”

“개들을 데려와야 하네.” 캠프 박사가 말했다. “개들을 불러오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냄새는 맡을 수 있을 테니까. 당장 개들을 데려오게.”

“종군.” 애디가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홀스테드 교도소 관계자 중에 블러드하운드를 다루는 사람을 아는 이가 있네. 개 말이야. 그 외에 또 뭐가 있지?”

“명심하게.” 캠프 박사가 말했다. “그의 몸은 먹은 것을 숨기지 못하네. 음식을 먹고 나면, 그것이 몸에 흡수될 때까지는 걸로 드러날 수

밖에 없지. 그래서 그는 식사 후에 반드시 몸을 숨겨야만 하네. 그러니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하네. 덤불 하나, 구석진 곳 하나까지 샅샅이 뒤지란 말일세. 그리고 모든 무기, 즉 무기가 될 만한 모든 도구는 치워버리게. 그는 그런 것들을 오래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누군가 낚아채서 사람을 공격할 만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 역시 전부 숨겨두어야 하네.”

“좋아, 아주 좋아.” 애디가 말했다. “조금만 더 하면 반드시 그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길 위에서도 말일세.” 캠프 박사가 말을 잇다가 머뭇거렸다.

“그래서?” 애디가 말했다.

“가루로 만든 유리 조각이야.” 캠프 박사가 말했다. “잔인한 짓이라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가 저지르게 될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애디는 이를 악물며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그건 비겁한 짓이야. 정말이지 모르겠군. 하지만 가루 유리라도 준비해 두겠네. 만약 그자가 선을 넘는다면…….”

“그자는 이미 인간이 아니네.” 캠프 박사가 말했다. “내가 지금 자네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 만큼이나, 그가 이번 탈출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순간 반드시 공포 정치를 펼치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살길은 그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는 것뿐이야. 그는 이미 제 동족에게서 스스로를 끊어냈어. 그가 어떤 최후를 맞든, 그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제XXVI장

위크스티드 살인 사건

그 시기 그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을지, 또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캠프 박사의 배신을 마주했을 때, 그는 분명 황홀할 정도로 격분했을 것이다. 비록 그 기만으로 이어진 동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그를 기습하려 한 그 시도가 불러일으켰을 분노만큼은 짐작을 넘어 어느 정도 동정심마저 든다. 아마도 옥스퍼드 거리에서 겪었던 그 망연자실한 경악이 다시금 그를 덮쳤을지도 모른다. 그는 분명 공포로 지배되는 세상을 꿈꾸는 자신의 잔혹한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캠프 박사가 협력할 것이라 믿었을 테니까. 어쨌든 그는 정오 무렵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살아있는 목격자 중 누구도 그가 2시 30분경까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인류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방관이었다.

그 무렵, 시골 전역으로 흩어진 수많은 사람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전설 속의 존재이자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캠프 박사가 건조한 어조로 발표한 공고문 덕분에, 그는 이제 상처를 입히거나 붙잡을 수 있고, 혹은 제압할 수 있는 실체적인 적수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시골 마을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후 두 시 전이라면 그가 기차를 타고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두 시가 지나자 그것은 불가능해졌다. 사우샘프턴, 맨체스터, 브라이턴, 호삼을 잇는 거대한 평행사변형 구역 내의 모든 여객 열차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운행했고, 화물 열차의 운행도 거의 전면 중단되었다. 포트 버독을 중심으로 반경 20마일에 이르는 거대한 원 안에서는, 총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서너 명씩 무리를 지어 도로와 들판을 수색하기 위해 곧장 나섰다.

기마 경찰들이 시골길을 따라 누비며 마을의 집집마다 멈춰 섰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집 문을 꼭 걸어 잠그라고 경고했다. 무기를 들지 않았다면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오후 세 시가 되자 모든 초등학교는 수업을 마쳤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애디가 서명한 캠프 박사의 공고문은 오후 네다섯 시 무렵이면 거의 온 지역에 붙어 있었다. 공고문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투명인간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가 움직인 흔적을 발견하는 즉시 기민하게 대응하며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당국

의 조치는 매우 신속하고 단호했다. 이 기이한 존재에 대한 믿음 또한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 덕분에 해가 지기도 전에 수백 평방마일에 달하는 지역은 마치 철저한 포위 공격을 받는 상태와 다름없게 되었다.

해가 저물 무렵, 긴장감에 휩싸인 시골 마을 전체에는 공포의 전율이 몰아쳤다. 위크스티드 씨가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속삭임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마을 구석구석까지 빠르고 확실하게 퍼져 나갔다.

투명인간이 힌톤딘의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이른 오후에 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품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위크스티드를 만나기 전, 그의 손에 철봉이 들려 있었다는 증거만큼은 적어도 나에게 매우 확실해 보인다.

물론 그 충돌의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길이 없다. 사건은 버독 경의 별장 정문에서 채 이백 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자갈 채취장 가장자리에서 일어났다. 짓밟힌 땅과 위크스티드 씨가 입은 수많은 상처, 그리고 산산조각 난 지팡이를 보면 모든 정황이 처절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하지만 살의에 가득 찬 광기 어린 돌발 행동이 아니었다면, 대체 왜 그런 공격이 가해졌는지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사실 광기 때문이었다는 가설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위크스티드 씨는 버독 경의 집사로, 마흔다섯 혹은 마흔여섯 살 정도 된 인물이었다. 성품도 외모도 무뎌서, 그런 끔찍한 적을 자극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었다.

투명인간은 부서진 울타리 조각에서 끌어온 철봉을 휘둘러 그를 공격한 듯하다. 점심 식사를 하러 조용히 집으로 향하던 이 온순한 남자를 투명인간은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를 공격해 연약한 저항을 무력화시켰으며, 팔을 부러뜨리고 쓰러뜨린 뒤 머리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뭇개버렸다.

물론, 그는 희생자를 만나기 전 이미 울타리에서 이 막대기를 끌어냈을 것이다. 즉, 처음부터 손에 쥐고 준비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미 언급한 내용 외에 이 사건과 관련 있어 보이는 정황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자갈 채취장이 위크스티드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직행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곳은 원래 가던 길에서 거의 이백 야드나 벗어난 곳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 어린 소녀의 주장이다. 소녀는 오후 수업을 들으러 가던 중, 살해된 남자가 들판을 가로질러 자갈 채취장 쪽으로 기묘한 걸음걸이로 '총총걸음질'하며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소녀가 몸짓으로 흉내 낸 남자의 움직임은, 마치 눈앞의 땅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쫓으며 지팡이로 연신 내리치는 듯한 모습이었다. 소녀는 그를 살아 있는 상태로 본 마지막 목격자였다. 남자는 소녀의 시야에서 벗어나 죽음을 맞이했다. 소녀의 눈에 그 사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은 단지 너도밤나무 덤불과 지면의 약간 낮은 지형 때문이었다.

적어도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사실 덕분에 그 살인 사건이 순전히 무모하고 목적 없는 범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핀이 막대기를 무기로 집어 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위크스티드가 허공에서 영문 모를 까닭으로 움직이는 막대기를 발견했을지

도 모른다. 포트 버독과는 십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으니, 그는 투명인간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막대기를 따라갔을 수도 있다. 위크스티드가 투명인간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투명인간은 근처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을 것이고, 흥분과 호기심에 사로잡힌 위크스티드는 정체를 모를 채 움직이는 그 물체를 쫓다가 결국 막대기를 내리쳤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평상시라면 투명인간이 중년의 추격자를 따돌리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위크스티드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보면, 그는 운 나쁘게도 사냥감을 썰기풀 더미와 자갈 채취장 사이의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투명인간의 유별난 성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벌어진 일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대개 믿을 만한 구석이 없기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위크스티드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썰기풀 사이에 내팽개쳐진 피 묻은 철봉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핀이 철봉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보면, 그 사건 당시의 격앙된 감정 때문에 그가 철봉을 가져갔던 목적—만약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말이다—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분명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무감각한 인간이었으나, 발치에 피를 흘리며 처량하게 쓰러진 첫 희생자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후회의 감정이 분수처럼 터져

나왔을지도 모른다. 그 후회는 잠시나마 그가 세워둔 모든 계획을 집어 삼켰을 수도 있다.

웁스티드 씨가 살해당한 뒤, 그는 들판을 가로질러 구릉 지대 쪽으로 향한 듯 보인다. 편 바텀 근처 들판에서 두 남자가 해 질 녘쯤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목소리는 울부짖다가도 웃음을 터뜨렸고, 흐느끼다가도 신음했다. 그러다 이따금씩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참으로 기괴한 소리였을 것이다. 그 소리는 클로버 밭 한가운대를 가로질러 지나가더니, 언덕 쪽을 향해 멀어져 갔다.

그날 오후, 투명인간은 캠프 박사가 자신의 비밀을 얼마나 빠르게 퍼뜨렸는지 깨달았음이 틀림없다. 그는 문마다 굳게 잠기고 걸쇠가 채워진 집들을 보았을 것이다. 기차역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여관 근처를 배회했을지도 모르며, 게시된 방을 읽으며 자신을 뒤쫓는 추적 작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들판 곳곳에는 서너 명씩 모인 사내들이 나타났고, 개들이 짖어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사냥꾼들은 만약 투명인간과 마주치게 되면 서로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까지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모두 피해 다녔다.

그가 느꼈을 좌절감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자신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데 쓰이는 그 정보들을 정작 본인이 직접 제공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을 것이다.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그는 의욕을 잃었다. 웁스티드에게 달려들었던 순간을 제외하면, 거의 24시간 동안 그는 쫓기는 신세였다. 밤사이 그는 음식을 먹고 잠을 청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활기
차고, 강력하며, 분노에 차 있고, 악의에 가득한 모습으로 세상과 벌일
마지막 거대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XXVII장

캠프 박사의 저택을 포위하다

캠프 박사는 기름기 번들거리는 종이 위에 연필로 휘갈겨 쓴 기이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정력적이고 영리하군.”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네. 당신은 내 적이야. 하루 종일 나를 뒤쫓으며 내 휴식을 방해하려 들었지. 하지만 당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고, 잠도 잤네. 이제 겨우 게임이 시작되었을 뿐이야.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네. 공포를 시작하는 것 말이야. 이 편지는 공포의 첫날을 알리는 선언문이다. 네 경찰 대령과 나머지 놈들에게 전해라. 포 버독은 더 이상 여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이제 이곳은 나, 즉 공포의 지배 아래 있다! 오늘은 새로운 시대, ‘투명인간의 시대’ 1년 1일째 되는 날이다. 나는 투명인간 1세대. 우선 통치 체제를 세우는 일은 쉬울 것이다. 첫날에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한 명을 처형

하겠다. 이름은 캠프다. 그를 향한 죽음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그는 스스로를 가두든, 숨어버리든, 경비병을 붙이든, 원한다면 갑옷이라도 입을 수 있겠지. 하지만 죽음은, 보이지 않는 죽음이 오고 있다. 그가 마음껏 대비하게 두어라. 그것이 내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테니까. 죽음은 정오에 우체통으로부터 시작된다. 집배원이 지나갈 때 편지가 툭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은 바로 실행이다! 게임이 시작된다. 죽음이 시작된다. 내 백성들이여, 그를 돕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당신들에게도 닥칠 것이다. 오늘, 캠프는 죽는다.”

캠프 박사는 이 편지를 두 번이나 읽더니 말했다. “장난이 아니야. 이건 분명 그의 목소리야! 게다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고.”

그는 접힌 종이를 뒤집었다. 주소가 적힌 면에는 힌톤딘(Hintondean)이라는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우편요금 2펜스(2d. to pay)"라는 지극히 평범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채 마치지 못한 점심을 뒤로한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시 우편물로 도착한 편지 때문이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가사 도우미를 불러 즉시 집안을 돌며 창문의 잠금장치를 모두 확인하고 덧창을 닫으라고 지시했다. 서재의 덧창은 그가 직접 닫았다. 그는 침실의 잠긴 서랍에서 작은 리볼버 한 자루를 꺼내 주의 깊게 살펴본 뒤, 편안한 차림의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짧은 메모를 여러 장 썼다. 애디 대령에게 보내는 메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메모들을 하인에게 건네며, 집을 나갈 때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위험한 일은 없을 거다."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속으로 '당신에게

는'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일을 마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식어버린 점심을 다시 먹기 위해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생각에 잠겨 멍하니 식사를 이어가다 이따금씩 끊어 먹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그가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그놈을 반드시 잡고 말겠어!” 그가 말했다. “내가 미끼가 될 거다. 그놈은 분명 너무 멀리까지 따라오게 될 테니까.”

그는 지나온 문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닫으며 전망대로 올라갔다. “이건 게임이야.” 그가 말했다. “기묘한 게임이지. 하지만 그리핀 씨, 당신이 투명인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승산은 내게 있어. 그리핀, 세상에 맞서서... 아주 처절하게 말이야.”

그는 창가에 서서 뜨겁게 달궜진 산비탈을 응시했다. “매일 먹을 것을 구해야 할 텐데, 정말이지 그가 부럽지가 않군. 어젯밤엔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 어디 탁 트인 곳에서,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며 말이야. 이 지긋지긋한 더위 대신 차갑고 축축한 비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군.”

“그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창가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창틀 위쪽 벽돌을 무언가 날카롭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깜짝 놀라 뒤로 거칠게 물러났다.

“슬슬 초조해지는군.” 캠프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창가로 다가간 것은 그로부터 5분이 지난 뒤였다. “참새였을 거야.” 그가 말했다.

이윽고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문빗장을 풀고 잠금장치를 연 뒤, 안전고리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는 그것을 올렸다. 그리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애디였다.

“캠프, 자네 하인이 습격을 당했네.” 문틈 사이로 그가 말했다.

“뭐라고요!” 캠프 박사가 외쳤다.

“그쪽이 보낸 그 쪽지를 그녀에게서 빼앗아 왔습니다. 그자가 이 근처에 있어요. 어서 안으로 들여보내 주세요.”

캠프 박사가 사슬을 풀자, 애디가 최대한 몸을 웅크려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갔다. 애디는 복도에 서서, 캠프 박사가 문을 다시 잠그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의 손에서 쪽지를 낚아챘습니다. 아주 겁에 질렸어요. 지금 역에 내려가 있는데,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놈이 이 근처에 있어요. 대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캠프 박사가 욕설을 내뱉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군.” 캠프 박사가 말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힌톤딘에서 걸어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 아닌가. 벌써 그렇게 됐단 말인가?”

“무슨 일인가?” 애디가 물었다.

“이쪽으로 오시죠!” 캠프 박사가 말하며 서재로 앞장서 들어갔다. 그는 애디에게 투명인간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애디는 편지를 읽더니 나직하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럼 당신은—?” 애디가 물었다.

“바보같이 함정을 제안했더니깐요.” 캠프 박사가 말했다. “하녀를 시켜 그에게 내 제안을 보냈습니다.”

애디는 캠프 박사가 내뱉은 욕설을 그대로 따라 했다.

“그놈은 곧 떠날 겁니다.” 애디가 말했다.

“그는 아니야.” 캠프 박사가 말했다.

위층에서 유리가 박살 나는 굉음이 들려왔다. 애디는 캠프 박사의 주머니 밖으로 반쯤 빠져나온 작은 리볼버가 은빛으로 번뜩이는 것을 흘끗 보았다. “위층 창문이야!” 캠프 박사가 외치며 앞장서 올라갔다. 두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동안 두 번째 파열음이 들렸다. 서재에 도착했을 때, 세 개의 창문 중 두 개가 박살 나 있었고, 방 안 절반은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으로 어지러웠다. 책상 위에는 커다란 부싯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두 남자는 문간에 멈춰 서서 난장판이 된 방 안을 응시했다. 캠프 박사가 다시 한번 욕설을 내뱉는 순간, 세 번째 창문이 권총

소리 같은 파열음을 내며 깨졌다. 창문은 잠시 별 모양으로 금이 가더니, 이내 날카롭고 떨리는 삼각형 조각이 되어 방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이건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애디가 물었다.

“시작일 뿐이네.” 캠프 박사가 말했다.

“이 위로 올라갈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고양이도 못 올라옵니다.” 캠프 박사가 말했다.

“덧창은 없나요?”

“여긴 아니야. 아래층 방은 전부 다—어라!”

아래층에서 무언가 박살 나는 소리와 함께 판자가 세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기랄!” 캠프 박사가 말했다. “분명히—그래, 침실 중 하나가 틀림 없어. 집안을 죄다 때려 부술 작정이군. 하지만 어리석은 짓이야. 덧창이 올라가 있으니 유리 파편은 밖으로 튀겠지. 발을 베이고 말 거야.”

또 다른 창문 하나가 박살 나 있었다. 두 남자는 계단참에 서서 어찌 할 바를 몰랐다.

“방법이 있습니다!” 애디가 말했다. “지팡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역으로 내려가서 혈흔 추적전을 풀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놈도 끝장입니다! 역이 바로 근처라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창문 하나가 다른 창문들과 마찬가지로 깨져 나갔다.

“리볼버는 안 가지고 있나?” 애디가 물었다.

캠프 박사가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러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남는 건 없군요.”

“금방 가져다 놓겠소.” 애디가 말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요.”

잠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낀 캠프 박사는 그에게 무기를 건네주었다.

“이제 문으로 갑시다.” 애디가 말했다.

그들이 복도에서 망설이며 서 있을 때, 1층 침실 창문 중 하나가 깨지며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캠프 박사는 문으로 다가가 최대한 소리 없이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창백해져 있었다. “당장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캠프 박사가 말했다. 잠시 후 애디는 문턱에 섰고, 빗장은 다시 제자리로 내려앉았다. 애디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하다고 느끼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고는 곧 허리를 꼴꼴이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다가갔다. 잔디 위로 미풍이 살랑이며 일렁이는 듯했다. 그때 누군가 그의 근처에서 움직였다. “잠

시 멈춰라.”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권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디가 물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온몸의 신경이 팽팽하게 날 서 있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내 부탁을 들어주게.” 목소리가 말했다. 애디의 목소리만큼이나 긴박하고 엄숙한 어조였다.

“미안하군.” 애디는 약간 쉼 목소리로 말하며 혀로 입술을 चु었다. 목소리는 왼쪽 앞쪽에서 들려왔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여기서 총을 쏘서 운을 시험해 본다면 어떨까?

“어디로 가려는 겁니까?” 목소리가 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서 급박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애디의 주머니 입구 사이로 햇빛이 번쩍였다.

애디는 동작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내가 어디를 가든,"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건 내 자유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누군가의 팔이 그의 목을 휘감았고, 등 뒤로 무릎이 닿더니 그는 뒤로 나자빠졌다. 그는 서투르게 권총을 꺼내 엉뚱한 곳을 향해 발사했다. 곧이어 입을 한 대 얻어맞았고, 손에 쥐고 있던 권총마저 강제로 빼앗겼다. 그는 미끄러운 팔을 붙잡으려 애쓰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시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체질!" 애디가 외쳤다. 목소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총알이 아까워서 지금 당장 죽이지는 않겠다." 목소리가 말했다. 애디의 눈

앞에 권총이 허공에 떠 있었다. 6피트쯤 떨어진 곳에서 권총이 그를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요?” 애디가 몸을 일으켜 앉으며 물었다.

“일어나게.” 목소리가 말했다.

애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목해.” 목소리가 말했다. 그러더니 이내 격앙된 어조로 덧붙였다. “수작 부릴 생각 마라.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더라도, 나는 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해.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가 나를 들여보내 주지 않아요.” 애디가 말했다.

“그거 안타깝군요.” 투명인간이 말했다. “난 당신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소.”

애디는 다시 입술을 축였다. 그는 권총 총구에서 시선을 돌려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낮의 태양 아래 바다는 아주 푸르고 짙은 빛을 띠고 있었다. 매끄러운 초록빛 언덕과 헤드의 하얀 절벽,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마을이 보였다. 그 순간 그는 삶이 참으로 달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윽고 그의 시선은 하늘과 땅 사이, 불과 6야드 거리에 매달린 이 작은 금속 물체로 다시 돌아왔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그가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나*더러 어찌라는 겁니까?” 투명인간이 물었다. “당신은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노력해 보죠. 만약 그가 나를 들여보내 준다면, 문을 급하게 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당신과 싸울 생각은 없소.” 목소리가 말했다.

애디를 밖으로 내보낸 뒤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온 캠프 박사는 서재 창가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창틀 너머를 조심스레 살피던 그의 눈에, 애디가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치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들어왔다. “왜 총을 쏘지 않는 거지?” 캠프 박사가 혼잣말로 나직이 속삭였다. 그때 권총이 살짝 움직였고, 눈부신 햇빛이 캠프 박사의 눈을 찔렀다. 그는 눈을 가린 채, 시야를 어지럽히는 그 강렬한 빛이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지 확인하려 애썼다.

“분명히 그럴 거야!” 그가 말했다. “애디는 이미 권총을 포기했으니까.”

“문을 너무 급하게 열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애디가 말하고 있었다. “승기를 잡았다고 해서 너무 몰아붙이지 말란 말이야.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건대, 나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소.”

애디의 결심은 돌연 내려진 듯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느릿느릿 집을 향해 걸어갔다. 캠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권총이 보였다 사라졌다는 반복하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애디를 뒤따라가는 작은 검은 물체임이 분명해졌다.

그다음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애디가 뒤로 펄쩍 뛰어오르더니 몸을 꺾 돌렸다. 그는 그 작은 물체를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허공을 갈랐다. 애디는 두 손을 치켜든 채 앞으로 고꾸라졌고, 공중에는 푸른 연기 한 줄기만이 흩어졌다. 캠프는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 애디는 몸을 뒤틀며 한쪽 팔로 몸을 일으키려 애쓰더니, 이내 앞으로 쓰러져 미동도 없이 누워버렸다.

캠프는 애디의 태연하고도 무심한 태도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후는 매우 덥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집과 도로 입구 사이의 관목 사이를 누비며 서로를 쫓는 노란 나비 두 마리 외에는, 세상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애디는 입구 근처 잔디밭에 누워 있었다. 언덕 아래 도로를 따라 늘어선 별장들은 모두 블라인드를 내려놓은 상태였으나, 작은 초록색 정자 하나에는 흰 형체가 보였다. 잠든 노인인 듯했다. 캠프는 리볼버가 어디 있는지 살피려 집 주변을 살살이 훑었지만, 그것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캠프의 시선이 다시 애디에게로 향했다. 판이 아주 잘 풀리고 있었다.

이윽고 현관문에서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차 격렬해졌으나, 캠프 박사의 지시에 따라 하인들은 이미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상태였다. 소동이 지나가

자 정적이 찾아왔다. 캠프 박사는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이다가, 세 개의 창문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계단 꼭대기로 올라가 불안한 기색으로 소리에 집중했다. 그러고는 침실에 있던 부지깽이를 무기로 챙겨 들고, 1층 창문들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러 나섰다. 모든 곳은 안전했고 고요했다. 그는 다시 전망대로 돌아왔다. 자갈밭 가장자리에는 애디가 쓰러졌던 모습 그대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한편, 별장들이 늘어선 길을 따라 하녀 한 명과 경찰 두 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했다. 세 사람은 아주 느릿느릿 다가오는 듯 보였다. 그는 상대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아래층에서 무언가 박살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주춤하다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때 갑자기 집 안 전체가 육중한 타격음과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로 울려 퍼졌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덧창을 고정하던 철제 장치들이 파괴되며 쳇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열쇠를 돌려 주방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갈라지고 부서진 덧창이 안쪽으로 날아 들어왔다. 그는 경악하며 멈춰 섰다. 창틀은 가로지르는 막대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유리창은 조각조각 부서져 틈에 겨우 박혀 있을 뿐이었다. 누군가 도끼로 덧창을 내리치고 있었고, 이제 도끼는 창틀과 이를 보호하던 철제 창살을 향해 거칠게 휘둘러지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도끼가 옆으로 튀어 오르더니 사라졌다. 그는 바깥 길 위에 놓인 리볼버를 보았고, 곧이어 그 작은 무기가 허공으로 솟구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몸을 뒤로 피했다. 리볼버가 발사되었으나 한발 늦었

고, 닫히는 문 끝에서 튼 파편이 그의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는 문을 쿵 닫고 잠갔다. 문 밖에 서 있자니 그리핀이 소리를 지르며 웃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나무를 쪼개고 박살 내는 도끼질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캠프 박사는 생각에 잠긴 채 복도에 서 있었다. 머지않아 투명인간이 주방으로 들이닥칠 터였다. 이 문 따위로는 그를 단 한 순간도 막을 수 없었다. 그다음엔—

현관문에서 다시 벨 소리가 울렸다. 경찰들이 분명했다. 그는 복도로 달려가 문걸쇠를 올리고 빗장을 걸었다. 그는 문걸쇠를 내리기 전 소녀에게 말을 시켰다. 그러자 세 사람이 한데 뒹켜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캠프는 다시 문을 쿵 닫아버렸다.

“투명인간이야!” 캠프 박사가 외쳤다. “그놈에게 리볼버가 있어. 총알은 두 발 남았어. 애디를 죽였어. 어떻게든 쏜 죽인 거라고. 잔디밭에 있는 거 못 봤나? 거기 쓰러져 있단 말일세.”

“누구입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물었다.

“애디,” 캠프 박사가 말했다.

“우리는 뒷길로 들어왔어요.” 소녀가 말했다.

“무슨 소란이지?” 경찰 중 한 명이 물었다.

“그가 주방에 있어요. 아니, 곧 들어갈 거예요. 그가 도끼를 찾아냈거든요——”

갑자기 주방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투명인간의 굉음이 집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소녀는 주방 쪽을 응시하다가 몸을 떨며 식당 안으로 물러났다. 캠프 박사는 말을 더듬으며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다. 이윽고 주방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쪽입니다.” 캠프 박사가 서둘러 움직이며 말했다. 그는 경찰관들을 이끌고 식당 입구로 향했다.

“부지깽이!” 캠프 박사가 외치며 화로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부지깽이를 경찰관에게 건네고, 식당에 있던 다른 부지깽이를 또 다른 경찰관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뒤로 휙 젖혔다.

“윽!” 한 경찰관이 소리치며 몸을 숙였다. 그는 부지깽이를 휘둘러 날아오는 도끼를 받아냈다. 권총은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발사되었고, 값비싼 시드니 쿠퍼(Sidney Cooper)의 그림을 찢어 놓았다. 다른 경찰관은 마치 말벌을 때려잡듯 부지깽이로 그 작은 무기를 내리쳤고, 권총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첫 충돌이 일어나자 소녀는 비명을 질렀다. 소녀는 잠시 벽난로 옆에 서서 비명을 내지르더니, 이내 창문 덧창을 열기 위해 달려갔다. 아마도 깨진 창문 너머로 탈출할 생각이었으리라.

도끼가 복도 안쪽으로 물러나더니 바닥에서 약 2피트 높이에서 멈춰 섰다. 투명인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둘은 물러나 있어.” 투명인간이 말했다. “나는 켄프라는 남자를 원한다.”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관이 성큼 다가서며 외쳤다. 그는 부지깽이를 휘둘러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훑었다. 투명인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다가 그만 우산꽃이에 세계 부딪히고 말았다.

경찰관이 휘두른 일격의 반동으로 몸이 휘청거리자, 투명인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끼를 내질렀다. 투명인간의 공격에 경찰관의 헬멧이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그 충격으로 경찰관은 주방 계단 입구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하지만 뒤따라온 두 번째 경찰관이 도끼 뒤쪽을 겨냥해 부지깽이를 휘둘렀고,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툭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전해졌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고, 이내 도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찰관은 허공을 향해 다시 한번 휘둘러 보았으나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 그는 도끼를 발로 밟아 고정시킨 뒤 다시 한번 내리쳤다. 그러고는 부지깽이를 몽둥이처럼 움켜쥔 채,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식당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안쪽에서 발소리가 급히 다가왔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동료는 눈과 귀 사이로 피를 흘리며 몸을 돌려 앉았다. 바닥에 누워 있던 남자가 물었다. “그는 어디 있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부딪혔거든요. 복도 어딘가에 서 있을 겁니다. 당신을 지나쳐 슬쩍 빠져나간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캠프 박사님—박사님!”

알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번역할 원문을 주시면 설정하신 규칙과 문체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캠프 박사님!” 경찰관이 다시 한번 외쳤다.

두 번째 경찰이 몸을 일으키려 애쓰기 시작했다. 그가 간신히 일어섰을 때, 갑자기 주방 계단에서 맨발이 바닥을 스치는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얍!” 첫 번째 경찰이 외치며 즉시 부지깽이를 내던졌다. 부지깽이는 작은 가스등 거치대를 들이받아 박살 났다.

그는 투명인간을 쫓아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다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는 식당 안으로 발을 들였다.

“캠프 박사님—” 그가 입을 뗐으나, 이내 말을 멈췄다.

“캠프 박사는 영웅이야.” 동행인이 그의 어깨 너머로 살펴보는 동안 그가 말했다.

식당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나, 하녀도 캠프 박사도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경찰이 캠프 박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짧지만 아주 강렬했다.

제XXVIII장

사냥꾼이 사냥당하다

캠프 박사의 이웃인 빌라 거주자 힐라스 씨는 캠프의 집이 포위당하기 시작했을 때 여름 별채에서 잠들어 있었다. 힐라스 씨는 투명인간에 관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지 않는 강직한 소수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깨닫게 되겠지만, 그의 아내는 그 소리를 믿었다. 힐라스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정원을 거니는 것을 고집했고, 수년간 그래왔던 습관대로 오후에 낮잠을 청했다. 그는 창문이 박살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을 잤다. 그러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기묘한 확신이 들면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캠프의 집 쪽을 바라보며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그러고는 바닥에 발을 딛고 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는 제기랄, 하고 욕설을 내뱉었지만, 눈앞의 기이한 광경은 여전했다. 집은 마치 격렬한 폭동이 일어난 뒤 몇 주 동안이나 버려진 곳처럼 보였다. 창문은 모조리 깨져 있었고, 전망대 서재의 창문을 제외한 모든 창문은 내부 셔터가 내려진 채 가려져 있었다.

"분명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20분 전 까지만 해도 말이지."

멀리서 규칙적인 충격음과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던 그에게, 곧이어 더욱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거실 창문의 덧창이 거칠게 열리더니, 외출용 모자와 옷차림을 한 하녀가 창문을 올리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나타났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하녀를 돕기 위해 곁에 나타났다. 바로 켐프 박사였다! 순식간에 창문이 활짝 열렸고, 하녀는 밖으로 나가려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관목 사이로 사라졌다. 힐라스 씨는 이 모은 기이한 광경에 어안이 병병한 듯, 모호하면서도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켐프 박사가 창틀에 올라서서 창밖으로 뛰어 내리는 것을 보았다. 박사는 거의 즉시 관목 사이 오솔길을 따라 달려 나왔는데, 마치 누군가의 눈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몸을 굽힌 채 달리고 있었다. 그는 금사슬나무 뒤로 사라졌다가, 이내 탁 트인 벌판과 맞닿은 울타리를 기어오르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켐프 박사는 순식간에 울타리를 넘어갔고, 엄청난 속도로 비탈을 내려와 힐라스 씨를 향해 달려왔다.

"세상에!" 힐라스 씨가 무언가 깨달은 듯 외쳤다. "그 투명인간 놈 때문이야! 결국 그게 맞았던 거야!"

힐라스 씨에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곧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했다. 위층 창문에서 그를 지켜보던 요리사는 힐라스 씨가 시속 9마일은 족히 넘는 속도로 집을 향해 돌진해 오는 모습에 경악했다. 이

익고 문이 쿵쿵 닫히고 종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힐라스 씨는 황소처럼 포효하며 소리쳤다. "문 다 닫아! 창문도 닫고, 전부 다 닫으란 말이야! 투명인간이 오고 있다!" 순식간에 집 안은 비명과 지시 사항, 그리고 다급히 뛰어다니는 발소리로 가득 찼다. 힐라스 씨 본인도 베란다로 통하는 프랑스식 창문을 닫으려 달려갔다. 그가 창문을 닫으려던 찰나, 정원 울타리 너머로 캠프 박사의 머리와 어깨, 그리고 무릎이 보였다. 잠시 후 캠프 박사는 아스파라거스 밭을 헤치고 나와 테니스장 잔디를 가로질러 집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힐라스 씨가 빗장을 걸어 잠그며 말했다. “그가 당신을 쫓고 있다면 정말 유감입니다만, 그래도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캠프 박사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유리창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프랑스식 창문을 두드리더니, 이내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하지만 소용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베란다를 따라 달려가 난간을 뛰어넘더니 옆문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옆문을 지나 집 앞으로 달려가 언덕길로 사라졌다. 창밖을 내다보던 힐라스 씨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캠프 박사가 시야에서 사라지기가 무섭게, 보이지 않는 발들에 짓밟힌 아스파라거스가 이리저리 엉망이 되었다. 그 모습에 놀란 힐라스 씨는 황급히 위층으로 도망쳤고, 그 뒤에 이어진 추격전은 그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다만 계단 창문을 지나던 그는 옆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언덕길로 나온 캠프 박사는 자연스럽게 내리막길을 택했다. 불과 나흘 전, 전망대 서재에서 그토록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켜보았던 바로 그 길을, 이제는 그 자신이 직접 달려 내려가게 된 것이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치고는 꽤 잘 달렸다.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만은 차분하게 유지했다. 그는 성큼성큼 발을 내디뎠다. 거친 땅이 나타나거나 날카로운 부싷돌이 깔린 곳, 혹은 깨진 유리 조각이 눈부시게 빛나는 곳이 나올 때마다 그는 그 구간을 일부러 가로질러, 뒤따르는 맨발의 투명한 발이 알아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캠프는 생전 처음으로 언덕길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하고 황량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덕 아래 멀리 보이는 마을의 입구는 낮설 만큼 아득하게 느껴졌다. 달리기보다 더 느리고 고통스럽게 나아가는 방법은 없었다. 오후의 햇살 아래 잠든 앙상한 빌라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근 듯 보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문들은 굳게 닫혀 있을 것이다. 바로 자신이 내린 명령 때문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망이라도 보고 있었어야 했다! 마을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로 바다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래쪽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덕 아래에는 전차 한 대가 막 도착하고 있었다. 그 너머에는 경찰서가 있었다. 뒤에서 들리는 저 소리는 발소리인가? 속력을 내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뵈히 쳐다보았고, 한두 명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쉼쉼거리는 소리가 났다. 전차는 어느덧 코앞까지 다가왔고, ‘줄리 크리케터스’ 여관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전차 너머에는 배수 공사 현장의 말뚝과 자갈더미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순간 전차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쾅 닫아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으나, 이내 마음을 바꿔 경찰서로 가기로 결심했다.

잠시 후 그는 ‘줄리 크리케터스’ 여관의 문을 지나, 사람들이 북적이
는 거리
의 가장 끝자락에 이르렀다. 전차 운전사와 조수는 그의 미친
듯한 서두름에 압도되어, 말의 굴레를 풀어놓은 채 멍하니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조금 더 나아가자 자갈더미 너머로 경악에 찬 인부들의 얼
굴이 나타났다.

그의 발걸음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뒤쫓는 자의 빠른 발소
리가 들려오자 그는 다시 힘차게 앞으로 뛰어 나갔다. 그는 인부들을
향해 막연하게 손짓하며 "투명인간이다!"라고 외쳤다. 그러고는 무엇
에 홀린 듯 굴착 지대를 뛰어넘어, 자신과 추격자 사이를 가로막을 건
장한 무리 속으로 몸을 던졌다. 경찰서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한 그는
작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다. 채소 수레 옆을 지나친 그는 사탕 가게
문 앞에서 0.1초 정도 머뭇거리더니, 다시 힐 스트리트로 이어지는 골
목 입구를 향해 달렸다. 그곳에서 놀고 있던 두세 명의 어린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그의 모습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곧이어 문과 창문
이 열리더니, 놀란 어머니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전차 노선의 끝
에서 300야드 떨어진 지점의 힐 스트리트로 다시 튀어 나왔다. 그러자
마자 그는 사람들의 거친 함성과 달아나는 발소리를 느꼈다.

그는 길 너머 언덕 쪽을 훑어보았다. 불과 십여 야드 앞에서는 거구의 인부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삼을 사납게 휘두르고 있었다. 그 뒤를 전차 차장이 주먹을 꽉 쥐 채 바짝 뒤쫓았다. 길 위로는 이 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구타와 고함 소리를 내며 몰려들었다. 마을 쪽에서는 남녀들이 달려 나오고 있었는데, 그는 한 남자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 “포위해! 포위하라 고!” 누군가 외쳤다. 캠프 박사는 추격전의 양상이 돌연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놈이 이 근처에 있어!” 그가 소리쳤다. “길을 가로질러 대열을 형성해—!”

그는 귀 밑을 세계 얻어맞고는 비틀거렸다.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몸을 돌려보려 애썼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허공에 헛된 반격을 휘두를 뿐이었다. 곧이어 턱 밑을 다시 한번 얻어맞은 그는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잠시 후, 무릎 하나가 그의 횡격막을 짓눌렀고, 다급한 두 손이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한쪽 손의 악력이 다른 쪽보다 약했다. 캠프가 그 손목들을 붙잡자 가해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려왔다. 그 순간, 인부의 삼이 그의 머리 위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더니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내리쳤다. 캠프는 얼굴에 축축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목을 조르던 손아귀가 갑자기 풀렸고, 캠프는 발작하듯 몸부림쳐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는 힘없이 늘어진 어깨를 붙잡고 몸을 뒤집어 위로 올라탔다. 그러고는 바닥 가까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팔꿈치를 짚 움켜쥐었다.

“잡았다!” 캠프가 소리쳤다. “도와줘! 도와줘—붙잡아! 놈이 쓰러졌다! 발을 붙잡아!”

순식간에 양측이 동시에 달려들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길을 지나가던 낯선 사람이 보았다면, 마치 아주 사나운 럭비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캠프 박사의 외침이 있는 뒤에도 함성은 들리지 않았다. 오직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이윽고 엄청난 힘이 실린 몸부림이 일어났다. 투명인간은 자신을 붙들고 있던 이들 중 몇 명을 뿌리치고 무릎을 꿇으며 일어섰다. 캠프 박사는 마치 사냥개가 사슴을 쫓듯 투명인간의 앞을 필사적으로 막아섰고, 수십 개의 손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움켜쥐고, 쥐어뜯으며, 할퀴어댔다. 그때 전차 차장이 갑자기 투명인간의 목과 어깨를 낚아채더니 뒤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몸싸움을 벌이던 사내들의 더미가 다시 한번 쓰러지며 뒤엎졌다. 안타깝게도 그 와중에 거친 발길질 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다 갑자기 "자비! 자비를!" 하는 광기 어린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 소리는 이내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로 급격히 잦아들었다.

“물러서, 이 바보들아!” 캠프 박사가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건장한 사내들이 힘껏 뒤로 밀려났다. “다친 상태라고 말하지 않나. 모두 물러서!”

공간을 확보하려는 짧은 몸싸움이 벌어진 뒤, 호기심에 찬 얼굴들이 둥글게 둘러선 가운데 사람들은 캠프 박사의 모습을 보았다. 박사는 땅에서 15인치쯤 떠오른 허공에 무릎을 꿇은 듯한 자세로, 보이지 않는

두 팔을 땅에 눌러 붙잡고 있었다. 그 뒤에서는 순경 한 명이 보이지 않는 발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를 놓지 마세요!” 피 묻은 삼을 든 거구의 인부 하나가 외쳤다.
“연기하는 겁니다!”

“그는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캠프 박사가 조심스레 무릎을 세우며 말했다. “제가 붙잡고 있겠습니다.” 박사의 얼굴은 멍이 들어 이미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입술에서 피가 흘러 목소리도 어눌하게 새어 나왔다. 그는 한 손을 놓더니 보이지 않는 얼굴을 더듬는 듯했다.
“입 주변이 온통 젖었군요.” 그가 말했다. 그러더니 곧, “맙소사!”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보이지 않는 물체 옆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사람들이 새로 몰려들며 군중의 압박이 거세지자, 무언가 밀치고 발을 끄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집 안에서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줄리 크리커스' 여관의 문도 갑자기 활짝 열렸다. 사람들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캠프는 손을 더듬어 주위를 살폈다. 그의 손은 마치 허공을 가르는 듯했다. “숨을 쉬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이어 그는 덧붙였다. “심장 박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옆구리가—으악!”

그때 갑자기 한 노파가 덩치 큰 인부의 겨드랑이 밑을 살피더니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저것 좀 봐!” 노파가 주름진 손가락을 내밀며 외쳤다.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모두가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마치 유리로 만든 것처럼 희미하고 투명한 손의 윤곽이 놓여 있었다. 손은 힘없이 늘어진 채 옆드려 있었고, 그 투명한 모습 사이로 혈관과 동맥, 뼈와 신경의 형체까지 훤히 들여다보였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러자 그 손은 마치 안개가 낀 듯 점점 흐릿해지더니 이내 불투명하게 변해갔다.

“이보시오!” 순경이 외쳤다. “여기 저놈 발이 보여요!”

그 기묘한 변화는 손발에서 시작해 사지를 타고 올라가 신체의 주요 기관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진행되었다. 마치 독이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하얀 신경들이 나타나며 팔다리의 형태를 흐릿한 회색 스케치처럼 그려냈고, 이어 유리처럼 투명한 뼈와 복잡한 동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다음에는 살과 피부가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옅은 안개처럼 흐릿하다가 이내 급격히 밀도가 높아지며 불투명해졌다. 곧 사람들은 그의 짓눌린 가슴과 어깨, 그리고 초췌하고 상처 입은 얼굴의 희미한 윤곽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군중이 물러나 캠프 박사가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을 때, 바닥에는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의 몸이 멍들고 부서진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처량하게 누워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과 이마는 하얗다. 노화로 인한 회색이 아니라, 백색증 특유의 순백색이었다. 눈은 석류석처럼 붉게 빛났다. 그는 두 손을 움켜쥐고 눈을 부릅뜬 채,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가려!” 한 남자가 외쳤다. “제발 부탁이니, 그 얼굴 좀 가리란 말이야!” 군중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서던 어린아이 셋은 누군가의 손에 갑자기 돌려세워져 다시 멀찍이 쫓겨났다.

누군가 ‘줄리 크리스커스’ 여관에서 시트를 가져와 그를 덮었고, 사람들은 그를 집 안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곳, 조잡한 조명 아래 초라한 침대 위에서 그는 그렇게 누워 있었다. 무지하고 흥분한 군중에게 둘러싸인 채, 상처 입고 만신창이가 된 그는 아무런 동정조차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었다. 인류 최초로 투명인간이 된 사내, 세상이 마주한 가장 천재적인 물리학자였던 그리핀. 그의 기이하고도 끔찍한 여정은 결국 끝없는 파멸로 막을 내렸다.

에필로그

이것으로 투명인간의 기이하고도 사악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난다. 만약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포트 스톤 근처에 있는 작은 여관을 찾아가 주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 여관의 간판에는 모자와 장화 외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빈 판이 걸려 있으며, 여관의 이름은 바로 이 소설의 제목과 같다. 여관 주인은 키가 작고 몸집이 비대한 사내로, 원통형처럼 생긴 코와 뺨뺨한 머리카락, 그리고 얼굴 곳곳에 얼룩덜룩하게 퍼진 홍조가 특징이다. 술을 넉넉히 대접한다면, 그는 그 일이 있는 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그에게서 발견된 보물을 가로채려 했던 변호사들의 수작에 대해 아주 상세히 들려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 돈이 누구 것인지 도무지 증명할 수 없게 되자, 글썄 나를 아주 노다지 매장물로 몰아세우려 들지 뭐니까!” 그가 말했다. “내가 어디 봐서 노다지로 보입니까? 그러고는 어떤 신사분이 옴파이어 뮤직홀에 나와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더군요. 딱 한 부분만 빼고 전부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 대가로 하룻밤에 1기니씩 주겠다고 했지요.”

만약 그의 회상에 흐름을 끊고 싶다면, 이야기에 원고가 세 권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원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상에나! 그에게는 원고가 없다. "투명인간이 내가 포트 스토로 도망칠 때 숨기려고 가져가 버렸단 말이야. 켄프 박사가 사람들이 다 나한테 원고가 있다고 믿게끔 부추긴 거라고!"

그러고는 곧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가라앉더니, 슬쩍 눈치를 살피며 당신을 훑쳐본다. 그러다 초조한 기색으로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내 바를 떠나버린다.

그는 독신주의자였다. 취향 또한 늘 독신에 가까웠고, 집안에는 여자의 흔적이라곤 전혀 없었다. 겉으로는 남들 하는 대로 단추를 채우고 다니지만, 멜빵을 매는 일 같은 아주 사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끈을 사용하곤 했다. 그는 집안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 모험을 즐기지는 않았으나, 예의 범절만큼은 아주 철저히 지켰다. 동작은 느릿느릿했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혜롭고도 꽤

검소한 사람으로 여겼으며, 영국 남부의 도로 지리에 대해서라면 코벳도 그를 당해내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일 년 내내 일요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그가 바깥세상과 문을 달아거는 동안이면, 또 매일 밤 10시가 지나면, 그는 물을 살짝 섞은 진 한 잔을 들고 술집 안쪽 거실로 들어갔다. 잔을 내려놓은 그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살피더니, 심지어 탁자 밑까지 들여다보았다. 혼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찬장과 그 안의 상자, 그리고 상자 속 서랍을 차례로 열어, 갈색 가죽으로 제본된 책 세 권을 꺼내 탁자 한가운데에 엄숙하게 올려놓았다. 책 표지는 비바람에 닳아 이끼처럼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았다. 한때 도랑에 처박혀 있던 탓에, 몇몇 페이지는 더러운 물에 씻겨 글자가 모두 지워져 있었다. 여관 주인은 안락의자에 앉아 긴 진흙 파이프에 천천히 담배를 채우며, 그동안 내내 책들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책 한 권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펼친 뒤, 앞뒤로 페이지를 넘겨가며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입술을 힘겹게 움직였다. “헥스, 공중에 떠 있는 작은 2, 십자 표시에, 알아먹지도 못할 꼬부랑 기호라니. 세상에! 그 양반, 머리 하나는 정말 비상한 사람이었지!”

그는 이내 긴장을 풀고 몸을 뒤로 기댄 채, 자욱한 담배 연기 너머로 다른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며 눈을 깜빡였다. “비밀로 가득 차 있지.” 그가 말했다. “경이로운 비밀들 말이야!”

“이것들로 한몫 제대로 잡기만 하면—세상에!”

“난 그가 한 짓처럼은 안 할 거야. 난 그냥—아니, 참!” 그는 파이프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흐렸다.

여관 주인은 그렇게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평생토록 사그라지지 않은, 경이로운 꿈속으로 말이다. 캠프 박사가 끊임없이 캐묻고 다녔지만, 여관 주인 말고는 그 누구도 그 책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책들 속에는 투명해지는 오묘한 비결과 그 밖의 수많은 기이한 비밀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 비밀을 아는 이는 끝내 아무도 없을 것이다.